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78

고향愛를 품은
**재일(在日)제주인의
선행 영향력**

고광명 저



(사)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the Overseas Jeju Korean Network

고향愛를 품은
재일(在日)제주인의 선한 영향력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78

고향愛를 품은
재일(在日)제주인의 선한 영향력

고광명 저

| 발간사 |

재일제주인의 고향애를 잊는 마음으로

지난해 11월, (사)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연구원은 재일제주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고, 제주대학교에 유학 중인 재일제주인 3세·4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세대 간 교류의 뜻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문화예술교류 행사를 주관하여 고향과 재외제주인 사회를 잊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결실은 고광명 원장께서 열심히 연구에 전념하여 집필한 『고향愛를 품은 재일(在日)제주인의 선한 영향력』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된 일입니다. 이 책은 오랜 세월 재일제주인을 연구해 온 저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향 제주를 위해 헌신한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기증과 공헌의 역사를 한데 정리한 귀중한 연구 성과입니다.

책에는 마을과 학교, 산업경제, 문화예술, 체육 등 제주 사회와 재일 사회 전반에 걸친 재일제주인의 기여가 세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료의 집적을 넘어,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당시 재일제주인들은 낯선 일본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디며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고향 제주를 향한 애듯한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제주 근대화와 산업경제의 발전을 이끈 정신적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직항로가 개설된 지 102주년이 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연구원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랜 시간 연구와 집필을 병행하며 책을 완성해주신 고광명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이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귀중한 학문적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제주도의 발전과 세계 속 제주인의 위상을 이어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재일제주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10월

(사)제외제주인교류연구원 이사장 문경운

| 머리말 |

고향愛를 품은 재일(在日)제주인의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동시에, 1923년은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 연락선이 개설되었는데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가 첫 항해를 한 지 100년이 넘었다. 이는 제주인들의 일본 이주를 본격화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제주인의 일본 진출은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제주 해녀들이 처음으로 일본에 출가(出稼) 물질을 떠났고, 이후 일제강점기의 징병과 징용, 해방 이후의 제주4·3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이들이 생존을 위해 현해탄(玄海灘)을 건넜다. 또한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이주한 노동자들까지 더해지며, 일본 각지에 재일제주인 사회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현재 재일제주인은 2024년 기준 재일한국·조선인 43만여 명 중 약 7만여 명(추정)으로 전체의 16%가량을 차지한다. 이들은 도쿄 미카와시마(三河島)와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区) 등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단 거주하며, 관동과 관서 지역에 활발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과거 조선소, 탄광, 방적 공장, 고무공업 등에서 힘든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제주인들은, 해방 이후 조천리 출신은 고무공업,

고내리 출신은 가방 제조업, 대정읍 출신은 도장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져왔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고된 삶을 이어가면서도 언제나 고향의 현실을 먼저 걱정했다. 그 애틋한 마음은 도로 획·포장, 상수도 설치, 학교·마을회관 건립 등 지역개발의 밑거름이 되었고, 1965년부터 1984년까지 20년간 감귤 묘목 426만 8천 그루를 기증한 일은 오늘날 제주 감귤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사례로 남았다. 이러한 물적·정신적 지원은 마을과 학교, 산업경제, 문화예술, 체육, 재일사회 등 제주 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946년 23억 원에서 2023년 26조 133억 원으로 1만 배 이상 성장했고, 1인당 GRDP 역시 8만 8천 원에서 3845만 원으로 약 4천 배 증가했다. 관광객 수와 감귤 생산량 또한 수십 배로 늘어나 제주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성장의一面에는 재일제주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애향의 정신이 있었다. 그들의 기여는 제주의 산업경제 발달과 도민 소득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오늘의 제주를 일구는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재일제주인 사회는 1세대의 고령화와 사망, 민단 조직의 약화, 친목회 소멸, 세대 간 교류 단절 등 여러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후세대에게 뿌리의 기억을 전하고 공동체의 정신을 잊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는 제주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일본에서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는 고령 재일제주인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고향과의 교류, 공동체 정신, 애향심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재일제주인의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positive influence)을 되새기고자 한다.

첫째, 고향과의 교류란 마을과 재일제주인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의 끈을 의미한다. 후세와의 소통을 위해 기증자료의 기록을 복원하고, 세대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 정신은 고향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재일제주인 사회가 보여준 연대와 상부상조의 마음을 뜻한다. 마을 곳곳에 세워진 공덕비와 기념비 등에는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셋째, 애향심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다. 그 마음이 모여 마을과 학교를 일으키고, 제주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이 고향 제주에 남긴 공헌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고향愛를 품은 재일(在日)제주인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마을, 교육, 산업경제, 문화예술, 체육, 재일사회 발전 등 각 분야에서 그들이 기여한 실질적 내용을 조명하였다.

구성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기증현황과 특성을 중심으로 애향의 기록을 살렸고, 제2장은 공헌 단체와 인물들의 역할을 다루었다. 제3장은 마을 발전의 구체적 사례를, 제4장은 교육과 장학지원의 발자취를, 제5장은 산업경제와 감귤농업의 진흥을, 제6장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상을 다루었다. 제7장은 재일사회 단체의 활동과 공헌을, 마지막 제8장은 고향 발전에 대한 심리적 보상과 애향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책은 그간 필자가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체계화하고, 일부 내용을 새롭게 보완하여 엮은 결과물이다.

특히 정부 재원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의 2013년도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2013S1A5A2A01019043)과 2020년도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2020S1A5B5A17090128)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이 책이 재일제주인의 헌신과 애향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고향 제주와 재일제주인 사회가 앞으로도 따뜻한 교류와 연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제1장 「기록과 기억에서 보는 애향무한(愛鄉無限)」(새롭게 집필)

제2장 「기증에 대한 인식과 공헌 인물들」(새롭게 집필)

제3장 「지역사회와 마을 발전」(『日本文化研究』66,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수정·보완)

제4장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日本近代學研究』57, 韓國日本近代學會, 2017, 수정·보완)

제5장 「산업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日本近代學研究』50, 韓國日本近代學會, 2015, 수정·보완)

제6장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새롭게 집필).

제7장 「재일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濟州島研究』60, 濟州學會, 2023).

제8장 「마음으로 새긴 애향의 보람」(새롭게 집필).

이상의 각 장은 앞의 논저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미간행물(새롭게 집필) 원고를 포함한 국내 저명학술지(KCI) 등에 단독으로 발표(게재)해 온 논문을 모아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엮은 것이다. 이를 논문을 각각 집필 당시의 문제의식과 자료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론적 내용이나 자료처리 등에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가능하면 통일된 주제로 작성하려고 했으며, 책의 제목과 성격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일부 통계 등을 추가하여 재일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애향심에 대한 의미를 피력하고자 했다.

저자는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헌 조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능력보다 의욕이 앞선 탓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책은 시기적 흐름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지만 재일제주인의 공현이란 공통된 주제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문헌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밝혀둔다. 비록 완벽하고 훌륭한 책은 아닐지라도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공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정리된 내용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간된 재일한국인이나 재일제주인 관련 서적이나 연구논문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책에서 참고했던 기존의 서적이나 연구논문 등은 참고문헌에 자세히 언급하려 했으나 인용한 모든 내용을 다 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책의 문제점은 저자의 책임이며,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인용된 내용은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저자를 일본 도쿄(東京) 유학 시절에 연구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와세다(早稻田)대학 오케다 아츠시(故 桶田 篤) 교수님과 도쿄(東京)대학 핫토리 타미오(故 服部民夫) 교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원고를 교정·교열·윤문하는데 도움을 준 김규보(전 재주상회) 선생님, 자료 제공에 협력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외교과와 인재개발원, 제주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 책을 발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과 (사)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이다. 그리고 책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격려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더욱이 원고를 집필하는데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사랑을 전하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5년 10월
서사로 연구실에서
고광명 씀

목차

머리말

제1장 기록과 기억에서 보는 애향무한(愛鄉無限)

지역별 기증 현황	17
유형별 기증 특성	20
지역별 기증물 현황	26

제2장 기증에 대한 인식과 공헌 인물들

기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	39
고향 발전에 공헌한 단체와 조직	45
고향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	57

제3장 지역사회와 마을 발전

제주도 발전상 비교와 마을 변화상	71
기관별·마을별 기증 현황	73
자매결연 및 성금 전달	88
기증자 문서 기록부	91

제4장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

지역별 기증 현황	103
학교 설립과 운영에 공헌	105
교육 시설 지원에 공헌	110
장학 지원에 공헌	116
부대시설 지원에 공헌	120
교육·연구 지원에 공헌	123

제5장 산업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

재일제주인의 송금	129
본국 투자의 발자취	135
감귤 농업 진흥에 공헌	141
도내 산업경제에 공헌	150

제6장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

지역별·기관별 기증	161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	163
도서 기증에 공헌	167
체육 발전에 공헌	172
성금으로 지은 체육 시설	174

제7장 재일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

주일(駐日)한국공관과 민단(民団)에 공헌	183
민단 산하단체에 공헌	189
재일사회 단체에 공헌	191

제8장 마음으로 새긴 애향의 보람

사회경제 기여에 따른 서훈(敍勳) 및 수상	207
고향 발전의 공로로 세운 비(碑)	211
고향 사랑에 대한 보은 시책과 교류	218
제주애향묘지에 대한 인식과 향후 과제	225
부록	231
참고문헌	244
찾아보기	252

제1장

기록과 기억에서 보는 애향무한(愛鄉無限)

기록과 기억에서 보는 애향무한(愛鄉無限)

지역별 기증 현황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한 섬(島)이었으나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하여 ‘도(道)’로 승격하였으며, 2006년 7월 국내 최초의 특별자치도(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가 되었다. 과거 제주도에는 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 3개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주도 북쪽의 제주시(구 제주시와 북제주군)와 남쪽의 서귀포시(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가 중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장에서는 1946년 도제(道制) 실시 이후 형성된 마을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시(4읍, 3면, 15동)와 서귀포시(3읍, 2면, 12동)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재일(在日)제주인¹의 기증(donation)²

1 재일(在日)제주인은 혈연·지연·학연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어 제주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지역 출신보다 지역 정체성이 강하다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일제주인이란 개념은 일본 이주의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본래의 한국 국적과 조선 국적, 그리고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거시적 개념의 제주도 출신을 말한다.

2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기증(寄贈)과 기여(寄與), 기부(寄附), 공헌(貢獻), 선물(膳物), 선(善)한 영향력(影響力) 등이 있다. 이 책에서는 재일제주인들이 고향 제주를 위해 송금이나 투자,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 기증한 내용을 담아 문장 내용에 따라 혼용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필자는 기증과 기여, 기부, 공헌, 송금, 투자 등을 모두 합축할 수 있는 용어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현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³

수증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각 읍(邑)·면(面)·동(洞) 등으로, 재일제주인은 2025년 10월 현재까지 420억 329만 원(총 7,959건)을 기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1>).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267억 4706만 원(총 709건)을 기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물(18억 6777만 원 상당, 190건)보다 현금(248억 7929만 원, 519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증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대학교, 제주도교육위원회,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제주도 경찰국, 제주도체육회, 한국예총 제주도지부, 사법기관(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언론사(KBS, MBC, 제주신문사, 제민일보사),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춘강, 제주도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10곳) 등이 있다.

제주시 지역(시·읍·면·동)은 현금과 현물로 95억 4355만 원(총 3,952건)을 기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 내용은 사무소 건립 및 운영비, 사무소 비품, 복지회관 건립 및 성금, 새마을 사업, 전화 사업, 마을 개발 자금, 전기 가설, 상수도 시설, 문화시설, 가로등 시설, 학교 건물과 부지, 학교 설립과 증축 기금, 교문 건립, 학교 비품, 체육 용품, 도서관 건립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시·읍·면·동)은 현금과 현물로 57억 1268만 원(총

3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21·2022·2023·2024) 등이 작성한 보고서와 추가로 파악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자료 등 지금까지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별로 분석하고 기관별로 재정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게재한 사진들은 필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스캔 작업을 한 것으로 지면 관계상 촬영과 스캔 일자 등을 생략하기로 한다. 濟州道(1983·1991·1999), 『愛鄉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鄉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외교과(2007~2012); 제주대학교 발전기금(2007~2012) 자료 등을 참조하여 조사 작성.

3,298건) 등을 기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 내용은 마을 회관과 노인 회관 건립, 마을 공동묘지, 마을 안길 확장, 등대 시설비, 체육관 건립 기금, 도로포장, 전기 가설, 새마을 사업, 미술관 건립, 초등학교 발전 기금, 학교 동상 및 현장탑 건립, 학교 비품 등이다.

원화 이외에 2025년 10월 현재까지 기증 금액은 총 4757만 5793엔(제주특별자치도 3348만 1471엔, 마을 1390만 1960엔, 학교 19만 2362엔)과 571만 환(圜)으로 파악되었다. 수증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청(1224만 엔), 제주대학교(현금 776만 9000엔, 현물 635만 6471엔 상당, 총 1412만 5471엔)를 비롯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제주도체육회, 제주도 경찰국, 언론사, 제주의료원 등이다. 한림읍, 애월읍, 화북동, 월평마을, 성읍리 등의 마을과 신촌초, 북촌초, 무릉초, 구억분교, 강정초, 예래초, 무릉중, 표선중 등의 학교에 기증하였다.

또한 당시 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과 재일제주인들의 열망이 증가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향 땅을 희사하거나 기금(성금)을 모아 새로운 토지를 사서 학교 부지로 기부(donation)하였다. 그리고 사무소와 마을 회관, 경로당 등에도 현물(토지)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과 학교에 대한 이러한 기부 활동은 1960~80년대 새마을 사업과 같은 현실적 상황 속에서 재일제주인이 막연한 동정심을 뛰어넘는 애향심을 발휘했다는 사실과 경제적 성취에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대해 자각했다는 사실이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1> 지역별 기증 현황⁴

(단위 : 천 원, 건)

구분	현금		현물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제주특별자치도	24,879,293	519	1,867,768	190	26,747,060	709
제주시	140,961	39	27,700	16	168,661	55
제주시(읍면동)	8,195,781	2,473	1,179,117	1,424	9,374,893	3,897
서귀포시	392,942	115	59,730	12	452,672	127
서귀포시(읍면동)	4,565,507	2,204	694,498	967	5,260,004	3,171
합계	38,174,484	5,350	3,828,813	2,609	42,003,290	7,959

유형별 기증 특성

사업별 특성

사업별로는 교육 사업이 316억 2411만 원(7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사업이 70억 9483만 원(16.9%), 체육 사업이 19억 5182만 원(4.7%), 문화 사업이 7억 7608만 원(1.9%), 새마을 사업이 3억 6975만 원(0.9%)으로 나타났다(<표 1-2>). 교육 사업 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 수준을

4 표의 자료는 전반적으로 기증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엑셀 작업 중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기증 항목 변경 등으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기증 금액이나 건수가 반영되지 않거나 인식 오류로 항목마다 수치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향후 자세히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미공개이거나 입수하지 못한 자료 등을 전반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편의상 화폐 천 원 단위의 일부를 제외하고 반올림하여 만 원 단위로 통일하여 작성하였다.

향상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이, 제주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재 육성을 비롯한 미래 지향적 분야에 대한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체육 사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제주도체육회에 가장 많이 기부한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11억 8987만 원)을 비롯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관련 사업(3500만 원), 2002년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1억 9564만 원)을 위해 기증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표 1-2> 사업별 기증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시/도	읍	면	동	전체
교육 사업	24,114,401	1,691,769	443,308	5,374,630	31,624,108
공공사업	1,386,888	3,589,592	1,078,318	1,040,029	7,094,827
체육 사업	1,479,329	45,186	414,686	12,620	1,951,821
문화 사업	332,696	55,340	43,131	344,916	776,083
새마을 사업	55,079	86,270	114,625	113,780	369,754
기타		125,576	30,349	30,775	186,700
전체	27,368,393	5,593,733	2,124,417	6,916,750	42,003,290

연대별 특성

기증 실적을 연대별로 보면 1930년대 1만 원(25건), 1940년대 180만 원(16건), 1950년대 987만 원(131건), 1960년대 4억 4288만 원(1,971건), 1970년대 14억 1075만 원(3,073건), 1980년대 114억 7765만 원(1,638건), 1990년대 63억 8782만 원(847건), 2000년대

46억 9292만 원(237건), 2010년대 175억 7930만 원(14건), 연대 불명 30만 원(7건) 등 총 420억 329만 원(7,959건)으로 나타났다(〈표 1-3〉).

기증은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증 금액이 2010년대 다음으로 1980년대가 많은 것은 1960년대 이후 재일교포의 재산 반입⁵이 혀용되고 모국 방문의 길이 열리면서 재일제주인이 1984년 남녕고등학교 설립, 198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1985년 기당미술관 건립, 체육관 건립, 발전 기금 조성, 등대 시설 등을 통해 마을과 교육 발전에 대한 제주 지역주민의 열의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기증 금액이 많은 것은 2002년 제주월드컵경기장과 2008년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등에 즈음하여 개별적 혹은 조직적 성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1-3〉 연대별 기증 현황⁶

(단위 : 천 원, 건)

연대별	시/도		읍		면		동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930년대							10	25
1940년대			1,159	12			637	4
1950년대	500	1	7,406	36	627	35	1,336	59
1960년대	8,113	44	217,168	988	93,617	381	123,984	558
1970년대	217,995	201	530,951	1,549	465,714	650	196,085	673
1980년대	3,243,271	356	2,500,409	779	628,094	291	5,105,877	212

5 1966년 2월 6일에는 재일교포가 재산을 반입할 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의 혀가를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면세 특례를 적용했다.

6 앞의 〈표 1-1〉과 동일.

1990년대	2,436,828	118	1,921,897	475	803,865	99	1,225,231	155
2000년대	3,882,386	157	414,439	45	132,500	9	263,590	26
2010년대	17,579,300	14						
연대 미상			302	7				
합계	27,368,393	891	5,593,733	3,891	2,124,417	1,465	6,916,750	1,712

수증 기관별 특성

1930년대에 시작된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각 읍면동 등에 대한 기증이 이루어진 지역(마을, 학교)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수증 기관별로는 행정기관(80억 3076만 원, 4,140건)과 기타(23억 6561만 원, 675건)에 비교하여 교육기관(316억 692만 원, 3,144건)에 훨씬 많은 금액을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는 제주대학교 발전기금과 함께 2010년대 이후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설립에 대한 기증 금액이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기증 금액은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과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일부 학교 설립(기금과 성금) 부문을 제외하면 읍면동의 교육기관 단위보다 행정기관 단위가 훨씬 많았으며, 기증 내용도 마을 발전기금, 복지회관, 경로당, 공동묘지 부지 등에 현금으로 기증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과 교육 발전을 위해 대부분 자발적이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기증하여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마을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후원회 등)에게 마을(읍·면·동·리) 각 단위에서 기증을 요청하였거나 친인척이

기증을 부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4> 수증 기관별 기증 현황⁷

(단위 : 천 원, 건)

기관별	시/도		읍		면		동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행정기관	1,390,015	379	3,859,774	1,941	1,619,755	856	1,161,219	964
교육기관	24,130,888	128	1,691,769	1,788	443,308	577	5,340,957	651
기타	1,847,489	384	42,189	162	61,354	32	414,574	97
합계	27,368,393	891	5,593,733	3,891	2,124,417	1,465	6,916,750	1,712

주) 기타는 경찰서, 지서, 파출소, 출장소, 의용소방대, 삼성혈, 우당도서관, 천사보육원, 대정향교, 교육용 순회 영화 차량, 기당미술관, 서귀포의료원 등에 기증한 경우임.

학교급별 특성

학교에 대한 기증 실적은 총 316억 692만 원(3,144건) 중에서 읍 지역(16억 9177만 원, 1,788건)과 면 지역(4억 4331만 원, 577건)보다 동 지역(294억 7184만 원, 779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학교급별로는 대학교(241억 3096만 원, 129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50억 9665만 원, 207건), 초등학교(20억 5198만 원, 2255건), 중학교(3억 2141만 원, 5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일제주인의 개별적으로 기증하였거나 도민회, 친목회, 동창회 단위에서 후학 양성을 위한 학교 건립, 비품 구입, 교육 시설 지원, 장학기금, 급식소 시설, 도서관,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등에 자발적으로

7 앞의 <표 1-1>과 동일.

참여하였고, 또한 학교 단위(읍·면·동·리) 요청 등에 의해서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표 1-5> 학교급별 기증 현황⁸

(단위 : 천 원, 건)

학교급별	읍		면		동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초등학교	1,206,702	1,356	223,987	367	621,289	532	2,051,977	2,255
중학교	185,150	302	81,001	185	55,254	59	321,406	546
고등학교	299,918	130	138,321	25	4,658,416	52	5,096,654	207
특수학교					5,980	7	5,980	7
대학교					24,130,906	129	24,130,906	129
합계	1,691,770	1,788	443,309	577	29,471,844	779	31,606,922	3,144

종류별 특성

종류별로는 전반적으로 총 기증 금액(420억 329만 원, 7,959건) 중에서 현금(381억 7705만 원, 5,356건)이 현물(38억 2625만 원 상당, 2,60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대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수증한 금액(273억 6839만 원, 891건)이 동 지역(69억 1675만 원, 1,712건)과 읍 지역(55억 9373만 원, 3,891건), 면 지역(21억 2442만 원, 1,46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1-6>).

재일제주인들은 1960~70년대 제주인의 현실적인 삶에 보탬이

8 앞의 <표 1-1>과 동일.

되거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체육관·급식소 시설, 과수원 조성, 교량 가설, 새마을 사업 성금 등 마을과 학교 발전에 공헌하게 되었다. 이는 제주도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과 학교 단위의 친목회와 동창회, 그리고 형제·친족·친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1-6> 종류별 기증 현황⁹

(단위 : 천 원, 건)

종류별	시/도		읍		면		동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현금	25,413,195	673	4,785,728	2,489	1,911,882	1,039	6,066,240	1,155
현물	1,955,198	218	808,005	1,402	212,535	426	850,510	557
합계	27,368,393	891	5,593,733	3,891	2,124,417	1,465	6,916,750	1,712

지역별 기증물 현황

<표 1-7>은 지역별로¹⁰ 조사한 기증(물)을 유형별(현존, 변형, 소실, 사진기록, 미확인 등)로 구분한 후 각 마을과 학교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테면, 기부 당시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토지 등), 시대의

9 앞의 <표 1-1>과 동일.

10 지역별로 제주시 서부 지역은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동(洞) 지역(노형동, 도두동, 연동, 오라동, 용담동, 이호동), 제주시 동부 지역은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동 지역(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 서부 지역은 대정읍, 안덕면, 동 지역(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서귀포시 동부 지역은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동 지역(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성했다.

흐름에 따라 형태가 변형된 경우, 사용하다가 없어져 사라진 경우(비품 등), 사진이나 영상, 신문 기사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기록상으로 있는데 원형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수도 가설 및 전기·전화 가설, 도로포장 확대, 가로등 시설 등은 현금과 현물(기증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 등으로 기증했지만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 현재 변형되거나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형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다만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형태별로는 전체 3,007개 중에서 마을이 1,307개, 학교가 1,700개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는 현존(원형) 439개, 변형 191개, 소실 2,144개, 사진기록 196개, 미확인 37개 등으로 나타났다(〈표 1-7〉).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주자가 많았던 지역(신촌리, 함덕리, 김녕리, 하도리, 화북동, 삼양동, 난산리, 성산리, 온평리, 오조리, 가시리, 세화리, 하천리, 태흥리, 위미리, 하례리, 효돈동, 토평동, 보목동 등)에는 사진기록을 비롯하여 기증물이 현존하여 남아 있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현재 마을별과 학교별 자료는 전부 확인된 사항이 아니며 마을과 학교 관계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정된 범위 내에 조사했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지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하거나 현금과 현물로 기증했지만 소실된 경우 등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지역별 기증률 현황¹¹

(단위: 개)

구분	지역별	현존(원형)	변형	소실	사진기록	미확인	전체
마을	제주시 서부	85	23	306	5	6	425
	제주시 동부	73	12	221	5	2	313
	서귀포시 서부	47	32	141	85	6	311
	서귀포시 동부	59	19	168	11	1	258
	계	264	86	836	106	15	1,307
학교	제주시 서부	45	27	351	10	8	441
	제주시 동부	66	26	355	12	6	465
	서귀포시 서부	24	27	276	66	3	396
	서귀포시 동부	40	25	326	2	5	398
	계	175	105	1,308	90	22	1,700
합계		439	191	2,144	196	37	3,007

마을별 기증률 현황

지역별로는 전체 1,307개 중에서 제주시 서부 지역 425개, 제주시 동부 지역 313개, 서귀포시 서부 지역 311개, 서귀포시 동부 지역 258개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는 현존(원형) 264개, 변형 86개, 소실 836개, 사진기록 106개, 미확인 15개 등으로 나타났다(<표 1-8>). 마을의 경우 제주시 서부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등에서 이주한 사례가 많다는 것, 마을 단위의 친목

11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21·2022·2023·2024)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파악된 제주시 서부·동부 지역(읍·면·동)과 서귀포시 서부·동부 지역(읍·면·동)의 기증률 실태조사 내용을 재정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단체가 활성화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

기증(물)들은 현재 대부분 소실(비품, 소모품, 시계, 우물 터 등)된 상태이며 일부 기증물은 현존해 있다. 현존한 경우로는 부지와 토지, 마을 회관, 경로당(복지회관), 공동 경작지, 공동묘지, 포제단, 교량, 기념관, 등대, 노인회관, 미술관, 방파제, 소나무밭(공원), 시계탑, 마을 시설, 어린이 공원, 연못, 체육 용구, 우물물, 정미소, 창고, 향나무 등이다. 일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건축물, 경로당, 리사무소, 마을 회관 등)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실되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남은 사례가 있다. 사진(사진, 영상, 신문 기사)기록으로는 감사패(감사장) 전달, 공덕비 제막, 자매 결연, 마을 창고, 명부 표지판, 도로 공사, 교량 가설, 경로당, 마을 회관, 문화관, 전기 가설 점등식, 회관 준공식, 재일교포 기증 관련 신문 기사, 위미리 마을회관과 기둥 시계, 기념식 사진 등이 있다. 미확인 사항으로는 지적도, 사찰 건립, 남성대 전기 가설, 종각, 흥성대원군 수목화(반납) 등이 있다.

<표 1-8> 마을별 기증물 현황¹²

(단위 : 개)

지역	읍면동	현존(원형)	변형	소실	사진기록	미확인	전체
제주시	한림읍	24	4	82	5	1	116
	애월읍	23	11	83		1	118
	한경면	19	2	78		2	101
	추자면			7			7
	동지역	19	6	56		2	83
	계	85	23	306	5	6	425
	구좌읍	26	5	89	2	1	123
	조천읍	22	4	75			101
	우도면	4		5			9
	동지역	21	3	52	3	1	80
	계	73	12	221	5	2	313
서귀포시	대정읍	24	10	44	30	2	110
	안덕면	8	11	35	21	1	76
	동지역	15	11	62	34	3	125
	계	47	32	141	85	6	311
	성산읍	15	3	47	2		67
	남원읍	12	5	46	9	1	73
	표선면	24	10	35			69
	동지역	8	1	40			49
	계	59	19	168	11	1	258
합계		264	86	836	106	15	1,307

12 앞의 <표 1-7>과 동일.



한경교회 종탑 (현존)



건입동 인조목의자 (현존)



화북동 종각대(1976년과 1982년 기증, 사진 기록)

학교별 기증물 현황

지역별로는 전체 1,700개 중에서 제주시 서부 지역 441개, 제주시 동부 지역 465개, 서귀포시 서부 지역 396개, 서귀포시 동부 지역 398개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는 현존(원형) 175개, 변형 105개, 소실 1,308개, 사진기록 90개, 미확인 22개 등으로 나타났다(<표 1-9>).

기증(물)들은 현재 대부분 소실(비품, 시계, 체육 용품, 소모품 등)되었으나 일부는 현존해 있다. 현존한 경우로는 학교 부지, 토지, 동상, 기숙사, 향나무, 학교 연못, 체육 용구, 우물물 복원, 시계탑,

현장탑, 국기 게양대, 도서관, 체육관, 생활관, 기념관, 급식소 시설, 각종 시설 등이 있다. 일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교사, 학교 정문 등)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실되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사진(사진, 영상, 신문 기사)기록으로는 월정리와 한동리 악기 기증, 신성여고 체육 용품, 개교 및 낙성 기념, 체육관, 공덕비 제막, 교문, 피아노 전달(영상), 재일교포 기증 관련 신문 기사, 성산리 체육 용품, 기념식 사진 등이 있다. 미확인 사항으로는 순회 교육용 영화 차량, 종각, 교육 현장탑, 동상, 사제상 등이 있다.

<표 1-9> 학교별 기증물 현황¹³

(단위 : 개)

지역	읍면동	현존(원형)	변형	소실	사진기록	미확인	전체
제주시	한림읍	14	9	114	3		140
	애월읍	15	7	94	3	3	122
	한경면	8	6	89			103
	추자면		1	3	4		8
	동지역	8	4	51		5	68
	계	45	27	351	10	8	441
	구좌읍	31	12	166	6	3	218
	조천읍	20	11	96		1	128
	우도면	2	2	24			28
	동지역	13	1	69	6	2	91
	계	66	26	355	12	6	465

13 앞의 <표 1-7>과 동일.

서귀포시	대정읍	7	10	68	28		113
	안덕면	8	1	63	7	1	80
	동지역	9	16	145	31	2	203
	계	24	27	276	66	3	396
	성산읍	18	8	124	1	1	152
	남원읍	7	5	71		1	84
	표선면	8	4	85	1	1	99
	동지역	7	8	46		2	63
	계	40	25	326	2	5	398
	합계	175	105	1,308	90	22	1,700



한동초 시계탑 (현존)



김녕초 조회대 (현존)



동남초 충효상·세종대왕상·충무공 동상 (현존)

제2장

기증에 대한 인식과 공헌 인물들

기증에 대한 인식과 공헌 인물들

기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

기증 상황 및 분위기

재일제주인들은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 고향을 위해 많은 기부를 해 왔다. 마을에서는 이들의 도움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재일제주인들의 기증은 자발적이거나 혹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부탁으로 이루어졌다. 고향을 방문한 그들은 마을 공공시설과 부지가 부족하거나 사무소와 학교 비품 등이 없는 열악한 환경을 보고 현금과 물품을 기부했다. 또 마을 사람들이나 친인척들의 요청, 재일제주인 친목회 등 뜻있는 사람의 권유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여 주었다.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증 상황은 자발적 기여가 37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을 주민 요청이 14명(20.0%), 뜻있는 사람의 권유, 친인척 권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자발적 기여와 마을 주민 요청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은 16명(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에 돈을 희사한 덕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졌으므로, 마을에서는 고향이 조금이나마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일교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재일제주인이 기부를 통해 내민 마음과 손길은 마을에 있는 학교에도 닿았다. 당시는 학교가 이들의 도움이 절실할 만큼 교육 현장이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재일제주인의 애향심은 마을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줌으로써 고향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표 2-1> 기증에 대한 동기(계기)¹⁾

항목	자발적 기여	복합적 요인	마을 주민 요청	뜻있는 사람 권유	친인척 권유	전체
수(명)	37	16	14	2	1	70
비율(%)	52.9	22.9	20.0	2.9	1.4	100.0

또한 마을 사람들은 재일제주인의 기증에 대하여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실 당시 마을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절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재일제주인의 도움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마을에서 재일제주인 기증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을까.

1)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21·2022·2023·2024)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파악된 면담 조사를 토대로 기증 인식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다만, 면담자 중에서 재일제주인 1세(2명)와 면담 내용이 부실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에 면담 조사 분석에서는 마을 주민(70명)을 대상으로 당시 기증 상황 및 분위기, 기증 관련 의사 결정 및 모니터링, 과거 기증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마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간소하게 개최하거나 행사를 마련하지 못하는 마을이 많았다. 1960~80년대에만 해도 마을 다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재일제주인이 기증한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 것과 별개로, 특별한 기증 행사를 치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마을의 경우는 기증한 재일제주인이 직접 마을 잔치를 열어 주기도 했다.

당시 기증 행사를 개최한 경우가 절반 이상(38명, 54.3%)을 차지했던 반면 지역적 상황으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가 15명(21.4%), 일부 개최가 9명(12.9%), 식사 초대가 7명(10.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이는 당시 마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주민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별히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정성 어린 편지와 개인적인 식사 초대 등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물론 감사패를 전달하고 잔치를 개최한 마을도 있다. 기증자의 자녀들 역시 부모가 고향 마을에 희사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는 상황도 있었다.

현재 마을마다 재일제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간직하고 있다. 마을을 위한 기부 행위가 애향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마을과 주민들은 그 덕분에 마을이 발전한 것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표 2-2> 기증 행사 개최 여부²

항목	개최	일부 개최	식사 초대	미개최	잘 모름	전체
수(명)	38	9	7	15	1	70
비율(%)	54.3	12.9	10.0	21.4	1.4	100.0

기증 관련 의사 결정 및 모니터링

기증에 대한 의사 결정은 마을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을 사람과 학교 관계자는 마을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여 큰 갈등이나 불만 없이 잘 이루어졌다. <표 2-3>은 마을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하여(42명, 60.0%) 의사 결정을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마을 임원들에게 위임(9명, 12.9%)이나 친인척 부탁(3명, 4.3%), 기부처와 상의(3명, 4.3%)하여 추진했음을 보여 준다.

계다가 마을 주민이 친척인 재일제주인들에게 직접 부탁해서 회사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증자가 마을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방식의 자발적 회사가 이루어진 마을에서는 더더욱 불만이 있을 수 없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의 기부는 마을과 마을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견을 수렴했거나 마을 임원들에게 위임하여 자발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앞의 <표 2-1>과 동일.

<표 2-3> 기증에 대한 의사결정³

항목	의견 수렴	임원 위임	친인척 부탁	기부처 상의	자금 관리인	미반영	무응답	전체
수(명)	42	9	3	3	1	4	8	70
비율(%)	60.0	12.9	4.3	4.3	1.4	5.7	11.4	100.0

재일제주인의 기증 활동은 마을을 발전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에 편리성을 선사해 주었다. 마을은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기록해 왔을까. 물론 당시 기증 상황을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으나,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지 않은 마을도 있다. 또 마을 회관이나 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증축, 이사를 하면서 기록물이 소실된 마을도 있다. 기증에 대한 기록 여부에 대해, 마을에서 기증자 명부를 기록하고 관리·운영했다고 27명(38.6%)이 응답한 반면에 18명(25.7%)이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으며, 태풍·화재·이사 등으로 소실하거나 문서 보존 연한으로 소멸(폐기)했다고 각각 7명(10.0%)이 응답했다(<표 2-4>).

마을이 어려운 시절에는 이분들의 기증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또한 당시에는 기증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기록이 전혀 없거나 소실되었어도, 현재는 과거 재일제주인의 기증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을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기증 활동은 기록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3 앞의 <표 2-1>과 동일.

<표 2-4> 기증 기록 여부⁴

항목	명부 관리	기록 없음	소실	소멸(폐기)	기타	전체
수(명)	27	18	7	7	11	70
비율(%)	38.6	25.7	10.0	10.0	15.7	100.0

과거 기증에 대한 인식

재일제주인 1세들은 마을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이 강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고향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을 친목회(향우회, 동창회 등)를 구성하여 고향에 아낌없이 기부하며 공헌(contribution)해 왔다. 그 덕에 마을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 사람들은 당시 기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과거 기증에 대한 인식으로는 고향애(애향심)라고 표현한 응답자가 36명(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외에도 고마운 마음(15명, 21.4%)이나 자긍심(5명, 7.1%), 후학 양성(4명, 5.7%), 마을에 도움(3명, 4.3%), 추억 회상과 기부 요청(2명, 2.9%) 등으로 기증했다는 표현이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2-5>).

이렇게 재일제주인은 끊임없이 마을을 찾았고, 마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이 깊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의 기부가 마을 발전의 초석이 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게다가 기부자들에 대한 고마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공헌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4 앞의 <표 2-1>과 동일.

있다.

<표 2-5> 과거 기증에 대한 인식⁵

항목	고향애 (애향심)	고마운 마음	자금심	후학 양성	마을 도움	추억 회상	기부 요청	기타	전체
수(명)	36	15	5	4	3	2	2	3	70
비율(%)	51.4	21.4	7.1	5.7	4.3	2.9	2.9	4.3	100.0

고향 발전에 공헌한 단체와 조직

공헌자별 기증 특성

개인이나 단체의 기증 활동은 제주도에서의 지역사회 공헌 현상과 더불어 재일제주인 네트워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지역사회 공헌은 도민회, 향우회, 동창회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마을 단위의 노력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⁶

공헌자별 유형은 기증자 명부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공헌자를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개인(기업가 포함)과 단체(2명 이상), 조직(친목회 등의 각종 단체), 민단, 기타(익명 등)로 구분했다. 공헌자별 건수(7,959건)는 개인(6,983건)이 단체(349건), 조직(599건),

5 앞의 <표 2-1>과 동일.

6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22, 韓國日本近代學會, 187~210쪽.

민단⁷(20건), 기타(8건)보다 많게 나타났다. 기부 금액(총 420억 329만 원)은 개인(396억 1707만 원)이 단체(11억 1467만 원)와 조직(11억 6742만 원), 민단(9906만 원), 기타(508만 원)보다 많게 나타났다(<표 2-6>). 이는 단체나 조직(친목회) 단위로 기증하는 경우보다 개인 단위 기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나 조직인 경우도 수증 기관과 관계없이 대부분 친목회나 향우회, 동창회, 후원회 등을 통해 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제주도 관련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실제 친목회 회원으로 참가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친목회 등과 같은 단체명으로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편의상 몇 명 이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측한다.

최근에는 제주도가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도민들이 먹고사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분들의 기증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향후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물품보다는 제주도의 길흉사에 내는 의연금이나 대학에 기부하는 발전 기금과 장학금, 마을에 희사하는 성금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⁸

7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은 1946년 재일조선인으로 구성된 민족 단체로, 재일본 조선인거류민단(在日本朝鮮人居留民團)이 창립된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월 주일한국대표부가 설치됨에 따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이 되었다. 1994년 그 명칭에서 ‘거류’라는 두 글자가 빠져 ‘재일본대한민국민단(在日本大韓民國民團)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는 한국 국적으로 제한했던 단원을 한반도에 뿐 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www.mindan.org);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8 재일동포국공적조사위원회(2008),『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145쪽.

<표 2-6> 공현자별 기증 현황⁹

(단위 : 천 원, 건)

구분	개인	단체	조직	민단	기타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26,281,099	118,744	344,217	3,000		26,747,060
	492	8	205	4		709
제주시	137,660	12,500	18,501			168,661
	41	1	13			55
제주시(읍면동)	8,341,747	591,163	436,051	4,090	1,843	9,374,894
	3,421	224	244	6	2	3,897
서귀포시	360,876		18,196	73,600		452,672
	115		8	4		127
서귀포시(읍면동)	4,495,684	392,265	350,450	18,370	3,234	5,260,003
	2,914	116	129	6	6	3,171
합계	39,617,066	1,114,672	1,167,415	99,060	5,077	42,003,290
	6,983	349	599	20	8	7,959

9 제1장 <표 1-1>과 동일.

재일제주도민협회¹⁰ 기증

재일제주인들은 1962년부터 최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대학교, 제주체육회 등의 여러 기관에 현금을 비롯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도서 등을 기부해 온 것으로 보인다.

기증 단체나 조직으로는 총 267건 중에서 제주도친목회(도쿄, 오사카, 센다이 등)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년회가 68건, 재일본제주개발협회(약칭 ‘제주개발협회’)가 36건, 부인회가 29건, 경제인협회가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7>). 청년회가 제주도친목회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것은 1971년부터 최근까지 제주대학교에 도서를 기증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제주개발협회는 1961년 제주시 건설 기금, 1962년 개발 기금, 의료 기구, 현미경 등, 1963년 벚꽃 및 감귤 묘목 1만 7000그루, 제주대학교에 도서(118권), 1964년 BBS 운동 제주연맹에 현금(3만 6000엔), 초등학교 교육용 도서(4권), 1967년부터 1970년까지 감귤 묘목 81만 4000그루 기증 및 알선 송부, 1967년 제주도청에 마이크로버스, 1969년 제주도청에

10 재일제주인 사회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 도 단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동지역은 1960년대 이후 재일본제주개발협회(濟州開發協會, 1961년)를 비롯한 몇 개의 도 단위 친목회를 결성하였다.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는 1961년 관동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자를 대상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반면 관서지역은 재일제주경제인협회(在日濟州經濟人協會, 1961년) 설립을 계기로 삼아, 이후 재일제주도민회(在日濟州道民會, 1963년), 재일제주도친목회(在日濟州道親睦會, 1965년), 재일제주청년회(在日濟州青年會, 1967년)가 창립되었으며, 1994년에 들어 이들 4개 단체를 통합하여 관서제주도민협회(關西濟州道民協會)를 결성하였다. 재일센다이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1975년 미야기현(宮城県) 센다이시(仙台市)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나 최근 고령화와 회원 수 감소에 따라 해체될 예정이다. 고광명(2013),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06쪽.

버스(44인승), 1970년 풍수해 의연금(161만 원), 1972년 농기구 기증
알선 전달,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 모금(2억 5100만 원),
1986년 화훼 단지 조성 기금(1300만 원) 등을 제주도에 기증했다.¹¹



제주개발협회 방문단



재일제주경제인협회 모국산업시찰단 환영식

在日本 濟州開發協會 鄉土事業委員會			
年 度	品 名	金 額	寄贈處 (備註)
1972年	精工座製造所	4,500,000	千葉市 (日資企業)
1973年	精工座 901室	3,000,000	千葉市 (精工座製造所)
1973年	電器具 47箱	9,500,000	千葉市
9	セガタ電機製造所	1,000,000	〃
1974年	精工座製造所	1,000,000	千葉市 (精工座製造所)
10	精工座製造所 16,800,000	千葉市 (精工座製造所) (7,200,000)	
1975年	精工座 13號	2,000,000	千葉市 (千葉市)
1976年	精工座製造所	1,000,000	千葉市

재일본제주개발협회 향토기증실적 메모 기록

在日本 濟州開發協會 鄉土事業委員會	
<現金 >	
再建基金	中: 1,000,000
聖母院教堂地盤基金會	1,000,000
新田市事業基金	1,000,000
瑞穂企管 建立地盤	1,000,000
清潔水井地盤	1,000,000
防災團體基金	1,000,000
國立農政調查會費 6回	2,000,000
第12回 全田少年隊營隊 捐贈地盤費 2,000,000	
	計 13,000,000
<物品 >	
大正10年 朝鮮便士 (造幣局)	1 대
大正10年 5 원 (〃)	1 대
大正10年 1 원 (造幣局)	1 대
大正10年 1 원 (造幣局) 2 대	1 대
大正10年 1 원 (造幣局) 1 대	1 대
大正10年 1 원 (造幣局) 1 대	1 대

또한 재일 제주도민협회에서는 제주도청(90건)을 비롯하여
제주대학교(47건), 한국예총 제주지부(27건), 제주도체육회(12건),

11 在日本濟州開發協會(1991), 『愛鄉無限-在日本濟州開發協會 30年史』, 296-315쪽.

교육위원회(5건) 등의 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와 관서제주도민협회는 제주도가 어려웠던 1960~70년대에 밀감 묘목을 보내 주었으며, 제주도청을 비롯하여 제주대학교, 제주도체육회, 한국예총 제주지부, 읍면동 각 마을과 학교에 현금과 현물 등을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였다. 특히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는 수십 년간 해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등 고향과의 유대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고 있다. 재일센다이제주도민회는 1978년 제주시에 가로수 묘목(6000그루) 식수(490만 엔 상당), 1980년 예초기(10대)와 날(齒), 1982년 제주대학교에 도서(100만 엔 상당), 198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100만 엔), 1988년 신산공원에 성화 기념 식수와 사업비(1500만 원) 등을 회사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었다.¹²

이들 단체는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제주도 출신들로 구성되어,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역 경제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였다. 결국, 도 단위 친목회는 제주도 지원을 목적으로 삼아 결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¹³

12 在日仙台済友会(1999), 『在日仙台済友会 会員名簿』.

13 고광명(2013), 앞의 책, 106쪽.

<표 2-7> 재일제주도민협회 기증 현황¹⁴

(단위 : 건)

구분	제주개발협회	제주도친목회			부인회	청년회	경제인 협회	계
		도쿄	오사카	센다이				
제주특별자치도	34	5	58	5	15	55	21	193
제주시			2	1	5	1	1	10
제주시(읍면동)	2	7	21		8	6	1	45
서귀포시			1		1	1		3
서귀포시(읍면동)		4	6			5	1	16
전체	36	16	88	6	29	68	24	267

재일제주인 단체 기증

지역 조직에 기증한 경우는 전체 332건 중에서 제주시 서부(102건)가 제주시 동부(97건)와 서귀포시 동·서부(41건, 72건)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자연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연으로 구성된 단체가 33건, 후원회가 26건, 기증위원회가 8건, 모국방문단이 2건으로 나타났다(<표 2-8>). 기증 단체는 주로 자연 단위의 친목 단체로 구성되어 있거나 학연 단위로 형성된 동창회 등이다. 그 가운데 자연 네트워크가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단위의 대표적인 것은 산지(山地)친목회, 오라(吾羅)친영회, 고내리(高內里)친목회, 납읍리(納邑里)친목회, 이호동(梨湖洞)친목회, 법환(法環)친목회, 제법(濟法)건친회, 월평동(月坪洞)친목회,

14 제1장 <표 1-1>과 동일.

위미리(爲美里)친목회, 김녕(金寧)친목회, 신촌(新村)친목회, 조천리(朝天里)친목회, 함덕인(咸德人)친목회 등이다. 친목회들은 고향에 전화와 전기 가설, 수도 가설, 동사무소 건립, 마을 도로 포장, 경로 잔치, 학교 건설 기금 전달, 마을 창고 건립, 마을 진입로 공사, 마을 회관 건립, 감귤 묘목과 소나무밭 증여, 공원에 의자 설치 등 마을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비롯한 고향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일산지친목회



재일대판제법건친회

학연 단위의 동창회로는 기증 시점을 기준으로 1964년 오현고, 1967년 수원초, 위미초, 신촌초, 제주북초, 1971년 대평초, 1974년 화북초, 1979년 제일중, 1982년 조천초, 함덕초, 1990년 법환초, 1991년 김녕중, 1998년 제주상고 등이 있다. 동창회는 악기, 아동 문고, 피아노, 방송 시설, 모사(模寫) 전송기, 연필, 앰프 시설, 카메라, 과학 기구, 동상, 노트, 대형 시계, 풍금, 학습 자료, 식당(급식실), 교육 기자재, 건축 기금, 야구공, 전자시계, 기둥 시계, 시계탑, 도서관 시설, VTR, 도서 등 현금과 현물을 기증하여 공헌하였다.



재일본제주북초등학교총동창회



재동경·대판오현고총동창회

이들 외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기증위원회나 후원회 등의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증위원회로는 1968년 재릉지구 악기 기증위원회와 1965년 증축 위원회, 1973년 가로 포장 추진위원회, 1973년 악기 기증회 등이 결성되어 악기(풍금)를 비롯하여 고산중 신축, 조천리 가로 포장, 화북초 체육 시설(시소와 국민교육 현장탑) 지원을 위해 활동했다. 후원회로는 1966년 저청 교육후원회, 1975년 신엄중 후원회, 1940년 학교 설립후원회, 1956년 중문 교육후원회, 1946년과 1960~63년

만들어진 강정 교육후원회, 1977년 시흥초 후원회, 1961년 수산초 후원회, 1963~64년·1972~73년 태흥인 교육후원회, 1968년 표선고 후원회, 1960년과 1972년 효돈중 후원회 등이 결성되어 악기류와 교육 시설, 건축, 비품, 운영비, 설립 기금, 의연금, 관사 건축, 시설비, 악기 용품 기증을 위해 활동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 친목회의 기증은 지연과 학연 관련 네트워크가 대부분이고 혈연 단위 네트워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에서는 혈연 단위로 기증한 기록이 없으나 혈연 관련 자료에는 종친회나 친족회에서 묘제 등의 종친 행사를 지원하거나 장학금 기금을 기부한 기록이 있다.

<표 2-8> 재일제주인 단체 기증 현황¹⁵

(단위 : 건)

구분	지연	학연	후원회	기증 위원회	모국 방문단	기타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3			2		7	12
제주시	1				1	1	3
제주시 서부	84	6	8	2	1	1	102
제주시 동부	64	24		4		5	97
서귀포시	4					1	5
서귀포시 서부	60	2	9			1	72
서귀포시 동부	31	1	9				41
합계	247	33	26	8	2	16	332

15 제1장 <표 1-1>과 동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증

민단의 제주 지역에 대한 기증은 제주특별자치도 3건, 제주대학교 1건, 제주시 읍면동 6건, 서귀포시 4건, 서귀포시 읍면동 6건 등 총 20건(금액 9906만 원, 수량 3920개)으로 나타났다. 민단 중앙본부 및 지방본부, 지부별로는 대한부인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사카(大阪)부 4건, 아키타(秋田)현 3건, 간토(関東) 지방 2건, 후쿠시마(福島)현, 야마가다(山形)현, 가나가와(神奈川)현, 시즈오카(靜岡)현 순으로 기증하였다(<표 2-9>). 종류별로는 현금이 8257만 원, 현물이 1649만 원 상당을 제주도청과 각 읍면동에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민단은 시기적으로 1962년부터 1998년까지 기증하였는데 대부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나타났다. 이는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 사업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목적별로는 1962년 용수초등학교 비품(앰프)과 음악용품을 비롯하여 1973년 새마을 사업 기금, 1978년 후생 시설용이나 방위 성금, 1980년 제주국제공항 비품(벽시계), 1988년 보육원과 양로원 비품(놀이 기구, 앰프, 냉장고 등), 일과1리 부녀회관 건립, 화장실 신축 지원금, 1989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비롯하여 일과1리 새마을복지회관 건립, 1993년 제주양로원 의류와 약천사 조경(벗나무), 1998년 제주대학교 실습선 아라호(현금) 등 다양한 부문에 거쳐 기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증 현황¹⁶

읍면동별	년도	거주지	기증자	품명	종류	금액(천원)	수량	기증목적
한경면	1962	関東	民団 関東本部	앰프	현물	144	17	용수초등학교 비품
한경면	1962	関東	民団 関東本部	악기	현물	31	57	용수초등학교 음악용품
대정읍	1973	秋田県	民団秋田県 地方本部		현금	2,990		대정읍 새마을사업 기금
성산읍	1973	福島県	民団福島県 地方本部		현금	2,020		신양리 새마을사업기금
표선면	1973	靜岡県	民団靜岡県 地方本部		현금	3,120		세화리 새마을사업기금
동홍동	1973	山形県	民団山形県 地方本部		현금	2,240		동홍리 새마을사업기금
제주도청	1978	大阪市	民団大阪府 東城支部		현금	500	500	후생 시설용
제주도청	1978	大阪市	民団大阪府 生野支部		현금	500	500	방위성금
용담동	1980	大阪市	새마을婦人會 大阪府本部一同	벽시계	현물	115	2	제주국제공항 비품
삼양동	1988	日本	在日大韓婦人會	놀이터기구	현물	1,500	7점	홍익보육원 비품
외도동	1988	日本	在日大韓婦人會	앰프	현물	1,500	1세트	제주보육원 비품
아라동	1988	日本	在日大韓婦人會	냉장고	현물	800	1台	양로원 비품
대정읍	1988	秋田県	秋田県居留民団		현금	3,000		일과1리 청·부녀회관

16 제1장 <표 1-1>과 동일.

서귀포시	1988	日本	在日大韓婦人會	놀이 기구	현물	1,200		제남보육원 어린이 놀이 기구
서귀포시	1988	日本	在日大韓婦人會		현금	61,200		천지연 화장실 신축 지원금
제주도청	1989	大阪市	民団大阪府 八尾支部		현금	1,000	1,000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정읍	1989	秋田県	民団秋田県 地方本部		현금	5,000		일과1리 새마을복지회관 건립
서귀포시	1993	日本	在日大韓婦人會	의류(상자)	현물	3,000	15	제주양로원 원생복
서귀포시	1993	日本	在日大韓婦人會	벚나무	현물	8,200	820	약천사 조경
제주대	1998	奈川県	民団神奈川県 地方本부		현금	1,000	1,000	제주대학교 실습선 아라호

고향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¹⁷

이 절에서는 고향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인물 중에서 공헌 분야별로 구분해서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기술했다. 고향 발전에 공헌한 인물 선정 기준은 ①기증 건수와 금액이 일정 이상 ②마을을 비롯한 교육과 산업 경제, 문화·예술·체육, 교육·학술 연구 등의 분야에 기증한 자 ③마을이나 학교에서 동상, 흉상, 동판, 애향탑

17 공헌 인물은 古堂 安在祐(1976), 金府煥編(1977), 康龜範(1987), 강충남(1994), 濟州商工會議所(1995), 김봉옥(2000), 한라일보사(2001), 濟民日報社(2004), 濟州特別自治道(1983·2007),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小熊英二·姜尚中編(2008), 永野慎一郎編(2010), 고광명(2013),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5), 黃昌柱(2015),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6·2017·2018) 등의 자서전, 인명사전, 기증 실적, 저서, 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건립 ④기념비와 공덕비, 송덕비 등의 비석 건립 ⑤제주도문화상, 제주상공대상(특별대상) 등 각종 수상 경력 ⑥대한민국 정부 서훈(훈장, 포장 등) ⑦국내외를 비롯한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나 민단, 재일제주도민협회, 재일제주친목회 등의 재일사회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위의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인물을 중심으로 본적지, 출생 연도, 이주 시기, 경력, 공헌도 등을 작성하였다. 다만, 본문에서 일부 마을이나 학교 등에 공헌하며 관련 내용이 중복된 인물인 경우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공헌자들은 일본에서의 힘든 여건과 역압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고향을 향한 환원과 기부 활동을 펼쳐 진정한 선한 영향력(positive influence)¹⁸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마을 전기와 수도, 전화 가설을 비롯하여 마을 회관과 학교 건립, 감귤 묘목 기증을 통하여 고향 발전의 바탕을 마련해 주었으며, 많은 기증과 투자 활동으로 교육, 산업 경제, 문화예술, 체육 등이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를 조성해 주었다. 지면 관계상 기록과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제2장과 부록에서 다루지 못한 공헌자들이 많다. 제2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제주 사회 발전을 위해 마을과 학교, 관광, 문화예술, 체육 등의 분야별로 공헌한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다만 일부 공헌 인물에 한정하여 이 장에서

18 선한 영향력(善한 影響力)은 ‘선하다’와 ‘영향력(影響力)’의 합성어로,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좋은 영감을 받는 것으로, 강요가 아닌 공감과 감동에서 시작되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표현이다. 그저 내 생각과 행동을 드러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할 행동은 끝이다.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닿아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러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pro.makeit27.com

다루지 못하고 부록으로 작성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제주시 서부 지역

한림읍 김창인(金昌仁)

김창인은 1929년 귀덕리에서 태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 16살 나이에 일본으로 도항했다. 친척 집에 봄을 의탁하면서도 자전거 수리, 통제품(統制品) 판매, 수제 구두 제조 등을 거쳐 (주)남해회관[南海會館]과 서점 등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였다.

그는 1976년 귀덕초 비품(10만 원)과 한림읍 문화 시설(50만 원), 새마을 사업 기금(190만 원), 1977년 새마을 회관 건립(100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2000만 원), 1988년 귀덕리 복지회관 건립 기금(250만 원)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고향에 힘을 보탰다. 특히 2008년부터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총 213억 8000만 원을 출연했다.¹⁹ 이는 제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센터 설립 취지를 이해하여 건립 기금 전액(36억 5000만 원)과 운영 기금 등을 기부한 것이다.

한경면 이시향(李時香)

이시향은 1937년 두모리에서 태어나 일본에 먼저 가 있던 형의 권유로 17세 때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도쿄에서 (주)월드상사와

19 제주대학교 측에서 제공한 자료로 추측한 결과, 김창인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71억 2111만여 원을 기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 명예의 전당에는 213억 8천만 원이고, 신문기사에는 270억 원을 쾌척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미공개된 자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2023년 10월 11일

(주)다카라홍업[宝興業]을 설립하여 남다른 집념과 근면,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그는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500만 원)을 시작으로 1986년 신창초 시청각 교재(290만 원), 자신의 고향인 두모리 장학 기금(500만 원), 노인회 운영 기금(200만 원) 및 노인 회관 신축 기금(1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1년에는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300만 원)을 기부하였다. 그 밖에도 한경면 사무소 건립(5000만 원)과 도내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1000만 원)을 희사하였다. 2010년부터는 과거의 자신처럼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시향 장학기금’ 등 제주대학교에 총 20억 1000만 원의 발전 기금을 쾌척하였다.

한경면 이왈옥(李曰玉)

이왈옥은 1925년 판포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돈을 벌기 위해 16세에 혼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수차례 실패를 겪으면서도 산신흥업[山新興業](주) 등을 경영하여 명망 있는 사업가로 인정을 받았다.

그는 1983년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와 1986년 제주팔레스개발(주)을 설립한 후 1988년 제주팔레스관광호텔을 건립하고 1990년 제주하와이관광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1990년 면사무소 준공 기념으로 돌하르방, 판포리 지역개발 사업비(1000만 원), 리사무소 비품(TV), 2003년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6억 원), 한경면 내 마을 회관 커피 자판기(800만 원) 등을 기증하였다. 일본에서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재일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장학 사업을 펼쳤고, 생전에

제주대학교 대학생과 판포초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고향 사랑을 실천하였다.

한경면 이일옥(李日玉)

이일옥은 1929년 판포리에서 태어나 12세 나이에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극복하며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으로 경영하는 사업마다 대성공하며 자수성가한 기업가이다.

그는 2012년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고향 판포리에 ‘이일옥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판포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식사 대접 및 도시락 배달, 재가 방문 봉사, 이동 세탁 봉사, 차량 지원 봉사, 목욕 봉사, 도내 관광 지원, 화장실 개량 봉사, 집 보수공사 등)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 및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저온 저장고 시설, 노인 회관 화장실 및 마당 배수구 시설, 차량 구입 등)을 펼쳤다. 재단 기금(운영자금)으로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고, 불우 청소년을 위한 장학 사업을 펼쳤으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윤리관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이다.

연동 김치부(金致富)

김치부(金致富)는 1921년 제주시 연동에서 태어나 13세 때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갔다. 성실함으로 온갖 고생을 겪더니며 불굴의 의지로 백조[白鳥](주), 호시다[星田]골프(주), 북육갑[北六甲]컨트리(주) 등을 설립해 사업가로 성공하였다.

그는 1966년 연동 전화 개발 사업비(100만 원), 1968년 연동 전기

가설 기금(150만 원), 1972년 연동 도로포장 기금(100만 원), 1975년 연동회관 신축비(360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2억 원), 1989년 연동 경로 회관 건립 기금(2500만 원) 등을 기증했다. 이국의 험난한 삶 속에서도 가난한 고향을 생각하여 마을 숙원인 전화 사업과 새마을 회관 신축, 정구장 시설을 진행하는 데 거액의 찬조금을 마련해주었다.

도평동 이근식(李根植)

이근식은 1930년 제주시 도평동에서 태어나 3세 때 도일하였다. 이후 한국인에 대한 정서적 차별을 감내하며 불굴의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빌딩, 물류, 유락, 휴양 시설 등 10여 개의 사업장을 아우르는 그랜드 도쿄[東京](주) 그룹을 경영하여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78년 제주신문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시작으로 1996~97년 신산마을 발전 기금(1억 1000만 원), 1997~98년 신산마을 장학 기금(1억 원), 1997년 도평동 발전 기금(2000만 원) 등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고향 제주의 미래를 이끌 후학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제주대학교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발전 기금(청봉학술 연구 기금과 청봉 장학 기금)을 쾌척하였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3000만 원)과 노인 장수 위로금(200만 원)을 회사하였다.

제주시 동부 지역

구좌읍 백이남(白二南)

백이남은 1916년 김녕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한문을 수학했다. 청소년기에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1947년 32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남아가 뜻을 세워 고향을 떠나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도 돌아오지 않겠다(男兒立志出鄉關, 學若無成死不還)”라는 결심을 거듭 다짐하며 인내의 삶을 살았다.

그는 1958년 김녕중 비품(의자) 기증을 시작으로 1973년 서김녕리 새마을 사업 기금, 1984년 남녕고 부지($33,015\text{m}^2$, 4억 653만 원)와 수익용 기본재산(3000만 원),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2000만 원), 1985년 남녕고 교실 신축 및 운영비(37억 9600만 원), 1988년 김녕초 강당 건축 기금, 1991년 남녕고 운영비(2억 6725만 원) 등에 많은 공헌을 했다.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수돗물이 없던 마을에 우물을 조성하도록 일체 경비를 부담하였고, 노후화된 초·중학교 교실의 신축과 개축 등에 소요되는 많은 금액을 희사하였다.

이도동 김영수(金榮洙)

김영수는 1924년 제주시에서 태어나 제주북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오사카에서 산일화성산업[山一化成産業](주)과 삼공금속공업[三共金屬工業](주)을 창업하여 성공한 기업가이다.

그는 1964년 모교 피아노 기증을 시작으로 1967년 제주북초 도서관 시설(240만 원), 1968년 제주북초 도서관 건립(120만 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후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도서를 비롯하여 비품(도서함), 1991년 급식용 식기 기구(356만여 원), 1995년 역사관 자료(390만여 원), 1997년 도서(218만여 원), 2004년 발전 기금(1억 29만 원) 등을 희사하였다. 1968년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 기증한 이후 8년 뒤 증축하여 도서와 비품을 추가로 희사했다.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일구며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조성한 배움의 터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게 하였다.

봉개동 김평진(金坪珍)

김평진은 1926년 제주시 회천마을에서 태어나 14세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도쿄에서 1967년 (주)김해상사[金海商事]를 시작으로 7개 회사를 창업하여 호텔업과 유기업(遊技業) 경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이다.

그는 1962년부터 회천분교에 학교 비품 기증을 시작으로 1963년 삼양초 설립과 비품 기증, 1965년 제주도청에 전화 시설(교환대, 전화기), 1966년 회천분교 신축 등 다양한 부문에 거쳐 현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에도 1972년 새마을 사업 성금, 1978년 이도동사무소 비품,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2000만 원)을 조성하여 애향운동장 건설 지원, 2001년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300만 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 외에도 1963년 제주관광호텔 건립과 1966년 제주여자학원 인수, 1977년 신문사 경영 등으로 관광산업과 교육, 언론 발전 등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서귀포시 서부 지역

법환동 강구범(康龜範)

강구범은 1909년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태어나 19세 때 청운의 뜻을 품고 혼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갖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도쿄에서 정직과 창의력으로 1933년 일본을 대표하는 화학공업 회사인 신천호모공업소[信川護謨工業所]를 창업하여 기업가로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1985~86년 법환 마을 공동묘지 조성 사업(9000만 원)에 기부하고 1985년 서귀포시에 기당미술관(3억 2000만 원)을 건립하여 기증하였다. 1986년 기당복지회를 설립한 후 노인 및 불우한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1993년 운영 자금(1000만 원)을 회사하였다. 1986년 14억 3000여만 원 기금으로 조천읍 함덕리에 해양연구소(부지 1만 4,895㎡)를 완공하여 기증하였다. 이 외에도 1985년 서귀포시 청사 건축비(2000만 원), 제주도청 방위 성금(3000만 원), 1993년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3000만 원)을 회사하였다.

중문동 이순천(李順千)

이순천은 1916년 회수마을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청운의 꿈을 품고 현해탄(玄海灘)을 건너갔다.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대영화학공업[大營化學工業](주)을 설립하고 그 성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

그는 1956년 중문초 화재복구의연금(30만 원), 1963년 회수창고 건축비(55만 원), 1965년 중문중 비품(풍금), 1971년 대정향교 관리비, 1973년 중문원예고 체육관 건립 기금(200만 원), 1974년 중문중 학생

통학용(마이크로버스) 차량, 1980년과 1984년 새마을 사업 기금(500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1000만 원), 1986년 서귀포시 문예회관 건립비(700만 원), 1990년 노인회관 건립 기금(4990만 원) 등을 희사하였다. 이 밖에도 1987년 일본의 선진 시설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대영농장을 경영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에 보탬을 주었다.

서귀포시 동부 지역

성산읍 이두후(李斗厚)

이두후는 1927년 성산읍 온평리에서 태어나 17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시모노세키(下関)에서 거주하였다. 온갖 역경을 겪디며 대박상사[大博商事](주)와 일광상사[日光商事](주)를 경영해 사업가로서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는 1946년과 1966년, 1980년 온평초 부지(현금 500만 원, 현물 2,380.5m²), 1956년부터 1980년까지 악기류(악기, 풍금 등), 라디오, TV, 카메라, 체육용품(미끄럼틀), 도서, 비품(노트, 책상, 의자, 탁자 등), 1973년과 1980년 공원묘지 부지와 조성(245만 원), 1976~77년 새마을 회관 건립(3900만 원), 1980년 온평리 도로포장(640만 원), 1980년 리사무소 건립과 부지(800만 원) 등을 기증하였다. 이 외에도 감귤 농원(4000평) 조성으로 육영사업을 운영하며 후배 양성에 남다른 정열을 쏟았다.

표선면 안재호(安在祜)

안재호는 1915년 표선면 가시리에서 태어나서 13살 때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낯선 일본 땅에서 근면과 성실, 신용으로 일본유기화학공업[日本有機化學工業](주) 등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한국에 투자하고 제주도 지역 발전에 공헌한 기업가이다.

그는 가시초 교실 신축을 비롯하여 시설 확충, 주민 회관 신축, 전기 가설, 도로포장 등 가시리 지역에 1956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현금 7000여만 원을 지원했고, 그 외 학습 용구와 같은 현물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출생지인 가시리가 아니어도 제주도의 어떤 지역에서든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나 흔쾌히 응했다. 그리고 제주도립병원에 의학 서적, 제주도 교육위원회에 학교 시설, 제주대학교에 비품 구입 성금 및 도서관 비품 비용을 기부하였다. 1967년 제주도청에 고성능 쾌속정을 회사했고, 한국예총 제주도지부에 한라문화제 성금을 지원했다. 1984년 제주도체육회에 전국소년체전 성금(7000만 원)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기부했고, 제주도 각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육 사업도 지원했다. 뜨거운 민족애와 고향애로 한국 경제와 제주도 발전에 헌신한 인물이다.

표선면 강충남(康忠男)

강충남은 1926년 세화리에서 태어나서 14세 때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 오사카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불굴의 의지로 1955년 재일한국인 최초로 전선 제조 회사인 후지전선공업[富士電線工業](주)을 창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1964~65년 화산초에 비품 및 시설비, 1973년 마을에 전기 가설, 1980년 새마을 사업 기금(300만 원),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표선상고 이전비(1억 원)를 지원하였다. 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5000만 원), 1989년

세화1리 사무소 건축비(4200만 원), 1993~94년 화산초 급식소 신축 및 시설비(6500만 원), 1996년 표선면 생활체육관 건립 기금(2500만 원), 1998년 세화1리 복지회관 신축비(2000만 원) 등을 희사했다. 그 밖에 1999년과 2000년 제주대학교 의대와 이공계, 언론홍보학과 학술 연구 기금 및 장학금(10억 원), 2000년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1014만여 원), 2006년 마을회 운영 기금(1000만 원) 등을 희사했다.

표선면 오찬익(吳贊益)

오찬익은 표선리가 고향으로 1946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제주인 2세이다. 1984년 부동산 임대업인 미하마[美浜](주)를 설립하여 40개 이상 중형 건물을 보유한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업가이다.

그는 2001년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300만 원), 2003년 제주시에 도서 구입 기금(500만 원), 2006년 제주대학교에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기금(855만여 원) 등을 희사하였다. 그리고 2002년 흥여표와 김성일 등과 함께 제주시에 도서 구입 기금(1250만 원)을 쾌척했다. 2014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진양 현석관(인문대학 2호관) 관리 기금과 발전 기금(1억 원)을 희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밖에 고향인 표선면의 생활체육관 건립에 기금을 보탰고, 김만덕기념사업회에도 1억 원을 쾌척했다.

제3장

지역사회와 마을 발전

지역사회와 마을 발전

제주도 발전상 비교와 마을 변화상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현을 조사하는 데에는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주도 간의 사회적 결합 강도를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거의 모두 이들의 공현을 경험해 보았다.

제주도는 1946년부터 제주도 전체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출신 재일동포의 재산으로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도는 도제(道制)가 실시된 1946년과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다.¹

총인구는 1946년 26만 6000명에서 2024년 69만 8000명(2.6배), 관광객은 1970년 24만 5000명에서 2024년 1376만 7000명(56.2배), 감귤 생산량은 1970년 5만 톤에서 2024년 57만 9000톤(11.6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70년 1340대에서 2024년 71만 5445대(534배),

제3장은 필자가 2018년 발표한 논문에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새롭게 정리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고광명(2018),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고찰」, 『日本文化研究』66, 동아시아일본학회, 5~28쪽.

1 제주도(1986), 『寫眞으로 본 道政 40年 제주도: 別冊 附錄』, 통권 제80호, 40쪽.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946년 23억 원에서 2023년 26조 133억 원(1만 1310배)으로 급성장하면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소득도 8만 8000원에서 3845만 원(4,369배)으로 크게 상승했다(<표 3-1>).

이러한 배경에는 재일제주인들이 새마을 사업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을 비롯하여 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열악한 기반 시설을 고치거나 보완하여 마을 발전을 도모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활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표 3-1> 도제(道制) 실시 이후 제주도 발전상(1946~2024)²

(단위 : 천 명, 억 원, 천 원, 천 톤, 대)

구분	1946	1970	1980	1990	2000	2020	2024	신장
인구	266	366	463	515	577	697	698	2.6배
지역내총생산	23	240	3,492	19,237	55,824	216,687	260,133	11,310
1인당 GRDP	8.8	66	743	3,781	10,650	32,404	38,450	4,369
관광객	-	245	260	2,992	4,110	10,236	13,767	56.2
감귤 생산	0.01	50	188	493	563	654	579	57,900
자동차 등록	113	1,340	5,925	43,185	164,360	615,342	715,445	6,331

주) 지역내총생산(GRDP)과 1인당 GRDP 통계는 2023년 잠정 기준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기부로 각 마을에 회관이나 경로당을 설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마을 변화상으로는 마을과 학교 인프라 구축(29명, 41.4%)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환경 개선(18명, 25.7%), 교육적 발전(10명, 14.3%),

2 <http://www.jeju.go.kr>

심리적 위상 상승(5명, 7.1%), 음악교육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각 3명, 4.3%), 감귤 농원 조성(1명,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3-2> 마을 변화상³

항목	인프라 구축	생활환경 개선	교육적 발전	심리적 위상 상승	음악교육 활성화	삶의 질 향상	감귤 농원 조성	기타	전체
수(명)	29	18	10	5	3	3	1	1	70
비율(%)	41.4	25.7	14.3	7.1	4.3	4.3	1.4	1.4	100.0

기관별·마을별 기증 현황

기관별 기증

재일제주인의 기부는 제주 지역(읍·면·동) 소재 마을을 비롯하여 각 기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마을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수증 기관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267억 4706만 원, 709건)가 제주시(1억 6866만 원, 55건)와 서귀포시(4억 5267만 원, 127건)에 비해 건수나 금액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총 273억 6839만 원(891건) 중에서 현금이 254억 1320만 원(673건)으로 현물 19억 5520만 원 상당(218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수증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한 금액이나 건수가 많은 것은

3 제2장 <표 2-1>과 동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주도청이나 제주대학교, 제주도체육회 등과 같은 기관에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주도에 기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3> 기관별 기증 현황⁴

(단위 : 천 원, 건)

구분	현금		현물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제주특별자치도	24,879,293	519	1,867,768	190	26,747,060	709
제주시	140,961	39	27,700	16	168,661	55
서귀포시	392,942	115	59,730	12	452,672	127
합계	25,413,196	673	1,955,198	218	27,368,393	891

목적별로는 교육·연구 및 장학 기금이 241억 144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육 기금이 14억 7933만 원, 발전 기금(성금)이 7억 7052만 원, 도서가 2억 3358만 원, 물품 지원이 1억 9495만 원, 기자재가 1억 427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4>).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공보실 비품, 한라문화제 성금, 수해 의연금, 새마을 사업 성금, 방위성금, 심장병 환자 수술 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제주대학교 도서관 비품이나 발전 기금, 학술 연구 기금,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기금,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 농기계 보내기 성금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에 맞추어 다양하게 기증하였다.

제주시에는 시민 회관 무대장치, 고아원 시설비, 비품, 통신 시설

4 제1장 <표 1-1>과 동일.

기금, 체육 시설 기금, 새마을 사업 성금, 식수 현금, 삼무공원 팔각정 건립 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라봉 시계탑 설치, 도서 구입, 장학 기금, 우당도서관 도서 기증 등으로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비품, 환경 정비 사업 지원금, 시립도서관 건립 기금, 문예회관 건립 기금, 새마을 사업 기금, 천지연 화장실 신축 지원금, 도서 구입, 기당복지회 운영자금, 약천사 조경,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 등으로 기반 시설과 관련되거나 체육 시설에 기증한 건수가 많았다.

<표 3-4> 행정기관별 기증 목적 현황⁵

(단위 : 천 원)

구분	시설 및 건립비	새마을 사업	도서	기자재	물품 지원	비품	악기류
제주도	56,537	51,278	142,376	141,777	182,554	30,336	13,770
제주시	2,822	3,301	39,700	340	11,200	1,660	200
서귀포시		500	51,500	600	1,200	1,730	7,000
합계	59,359	55,079	233,576	142,717	194,954	33,726	20,970
구분	문화시설	체육 기금	복지시설	교육·연구 및 장학기금	발전 기금 (성금)	환경 조성	기타
제주도	19,620	1,281,087	1,500	24,099,401	695,585	31,238	
제주시	15,000	10,600	1,008	15,000	64,930	2,900	168,661
서귀포시	64,500	187,642	55,600		10,000	72,400	
합계	99,120	1,479,329	58,108	24,114,401	770,515	106,538	168,661

5 제1장 <표 1-1>과 동일.

지역별(읍면동) 기증

지역별 기증에는 총 71억 5887만 원 중에서 서귀포시 서부가 20억 389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시 동부가 18억 1959만 원, 서귀포시 동부가 17억 4222만 원, 제주시 서부가 15억 580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3-5>). 종류별로는 현물(5억 3694만 원 상당)보다 현금(66억 2193만 원)이 많게 나타나 현금이 필요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표 3-5> 지역별 기증 현황⁶

(단위 : 천 원, 건)

지역별	현금		현물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수량
제주시 서부	1,390,681	1,046	167,393	283	1,558,075	1,329	14,994
제주시 동부	1,676,097	690	143,495	273	1,819,592	963	11,507
서귀포시 서부	1,917,774	856	121,203	153	2,038,977	1,009	1,918
서귀포시 동부	1,637,374	553	104,849	198	1,742,223	751	2,522
합계	6,621,926	3,145	536,940	907	7,158,867	4,052	30,941

기증 품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마을에는 감귤원 조성, 경로당 건립, 공동묘지 부지 및 시설, 공원 부지, 교량 가설, 도로포장 및 확장, 등대 시설, 리사무소 부지(건립), 마을 운동장, 마을 창고 건립, 마을 안길 포장, 마을 회관 건립 및 증축, 노인 회관 건립, 경로당 부지(건립),

6 제1장 <표 1-1>과 동일.

방앗간 시설, 본향당 지원, 부지 제공, 사무실 비품, 상·하수도 개설, 상수도와 전기·전화 가설, 새마을 사업, 전기·전화 가설, 정미소 시설, 학교 건물과 부지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희사하였다.

예를 들면, 와흘리 출신 재일제주인은 본향당 부지 확장, 미화 작업, 전기 가설, 마을금고 운영, 이발소 운영 등에 기증하여 마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북촌리에서는 마을 안길 포장, 도로포장, 초가 개량 등으로 마을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낚시터 휴게소(식당 등)를 만들어 마을 자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마을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던 당시에 재일제주인은 기부를 통해 전기·수도·도로를 가설하여 주민 생활에 편리함을 선사하는 등 마을 발전을 이끌었다.

마을 기증 현황

읍면동별 마을 기증은 건물이 30억 3154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반 시설이 11억 203만 원, 기금(성금)이 6억 5503만 원, 문화시설이 4억 9581만 원, 체육 진흥이 4억 7315만 원, 부지가 3억 1156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6>).

재일제주인을 다수 배출한 마을의 사람들은 일본으로 갈 기회가 많았다.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친인척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면서 고향 가정의 생계에 보태고 그들의 생활을 이끈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물심양면 기부는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형성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다. 비록 고향을 떠나 살았지만, 마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향심이 가득하여 마을의 발전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과의 단결을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읍면동 마을 기증 현황⁷

항목	부지	건물	기반 시설	새마을 사업	생활 시설	비품
금액(천 원)	311,562	3,031,537	1,102,034	264,491	215,998	188,088
항목	문화시설	체육 진흥	장학금	기금(성금)	기타	계
금액(천 원)	495,810	473,152	233,830	655,030	187,330	7,158,863

지역별 생활 시설 기증

지역별 생활 시설 기증은 서귀포시 서부가 1억 1139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귀포시 동부가 7298만 원, 제주시 서부가 2360만 원, 제주시 동부가 803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의례(공동묘지)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교(신앙)나 창고 건립, 정미소 등에 기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 인연이 깊은 고향 교회에 풍금, 종탑 등 필요한 물품을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 기부하기도 했다. 기타 시설로는 조회대, 분수대, 교문 시설, 후문 시설, 운동장 관람석, 야외 학습장, 숙직실, 관사, 구령대 시설, 음수대, 온실 시설 등이 있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은 어려웠던 시절에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7 제1장 <표 1-1>과 동일.

생활을 향상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 도움으로 마을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마을 사람들은 생활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표 3-7> 지역별 생활 시설 기증 현황⁸

(단위 : 천 원)

지역별	창고	정미소	의례	종교(신앙)	기타 시설	계
제주시 서부	3,030	404	12,550	6,200	1,418	23,602
제주시 동부	1,250				6,781	8,031
서귀포시 서부	9,097	600	95,000	300	6,393	111,390
서귀포시 동부	90		19,650	28,800	24,435	72,975
전체	13,467	1,004	127,200	35,300	39,027	215,998

재일교포 성금으로 마을 공동 창고 건립

제주 지역에는 과거 마을마다 수확한 작물들을 수매하고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필요하였다. 재일제주인들은 주민들의 농작물 보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림읍(귀덕2리, 대림리, 옹포리), 애월읍(중엄리, 하가리), 한경면(신창리, 저지리, 한원리), 이호동, 조천읍(신촌리), 삼양동, 대정읍(무릉1리, 보성리, 일과1리), 안덕면(덕수리, 사계리), 서홍동, 중문동(하원, 회수마을), 대천동(월평마을), 신흥리, 세화리 등 읍면동 여러 곳에 공동 창고를 건립하였다. 창고 건립을 위해

8 제1장 <표 1-1>과 동일.

개인(43명)과 친목회(재일 옹포리 출신 청년회, 중엄리 친목회, 신촌리 친목회) 등이 기금을 조성하여 도움을 주었다.

일과1리는 대통령 표창 및 지원금으로 1973년 대한민국 거류민단 아키타(秋田)현 지방본부와 뜻깊은 자매결연 맺고 지원 성금 1500만 원과 주민 부담금 640만 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2140만 원으로 공동 창고(‘교포창고’ 40평)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새마을 복지회관(경로당) 신축에는 아키타(秋田)현 지방본부에서 500만 원의 성금을 비롯하여 강수일(조홍산업 대표)과 이영옥(한라산업 사장) 등이 700만 원을 쾌척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재일일과리친목회는 고향 마을에 애향의 꽃동산을 조성하고자 정성을 모아 42만 5000엔을 보내 주었다. 또 마을 어린이들의 학비에 보태고 마을 발전 기금을 희사하는 등 교류를 통해 고향과 애향의 단성(丹誠)으로 연결되었다.⁹ 이처럼 마을 출신들의 성금은 지역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기틀이 되었다.



일과1리 마을 공동 창고



저지리 새마을 창고

⁹ “당시 일과리 마을 복지 회관은 슬래브 건물로 건립했으며, 새마을 사업 성금으로 지은 창고는 현재도 ‘교포창고’라고 불리고 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원진(60대, 일과리) 2024년 10월 인터뷰

성금으로 세운 마을 공동정미소

재일제주인들은 개인과 친목회의 성금으로 옹포리와 꽈지리, 외도2동, 가파리 등에 주민의 곡물 도정을 위한 정미소와 도정(搗精)공장을 건립하였다.

옹포리 마을 정미소(당시 공장장 고성봉)는 1971년 재일제주인 한동구(韓東龜) 외 69명(시설 자금 333만 엔)이 시설하여 기증한 마을 자산이다. 이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옹포리 220-1번지(대지 169평)에 정미소(건물 29평), 정미소 창고(건물 15평) 등을 지어 기증하였다. 당시 정미소는 제주도청의 도움을 받아 설비 기계화를 진행하였으며, 벼·보리·조·콩 등을 도정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1년 총수입 약 7100만 원에 총지출 5000만 원으로 연간 약 2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¹⁰ 옹포리는 재일제주인 덕분에 마을이 많이 발전한 데다, 재일제주인이 방앗간(옹포마을 정미소)까지 기부함으로써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정미소는 2023년 문을 닫았으나, 그 역사적 공간에 옹포정미소 카페가 들어서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꽈지리에는 1964년 재일제주인들의 힘을 모아 세운 도정공장이 있는데, 오사카 향우회(재일꽈지리친목회)에서 건립 비용(20만 4000원)을 보내 도움을 주었다. 1965년에는 정부 보조금(700만 원)과 재일제주인 희사금(1070만 원)에 주민들의 힘(200만 원)을 합하여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마을 사정이 어려울 때 재일제주인과 마을

10 “옹포 정미소가 수익을 낸 덕분에 옹포리 주민들은 리세(里稅)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재일 교포들의 기부가 마을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박한철(80대, 옹포리) 2021년 8월 인터뷰

주민이 힘을 모아 세웠다. 건물 벽면에는 회사자 명부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1967년 외도2동 농협정미소(20만 원)와 1971년 가파리 정미소(60만 원) 등이 있다.

당시 방앗간은 피의 순환을 위한 심장 박동 같은 마을의 고동(鼓動)이며, 늘 뛰는 삶의 맥박이라 할 수 있는데 주민의 성의와 교포의 애향심을 합하여 세운 시설로서 마을 주민의 생활에 많은 편리성을 가져다주었다.



옹포리 새마을 정미소



깍지리 도정공장

마을 공동묘지 조성 및 부지 기증

읍면동 일부 마을에는 재일제주인들이 마을 공동묘지 조성을 위해 토지와 현금 등을 기부한 사례가 있다.

일례로 법환동은 법환공동묘지 확장 사업 계획에 따라 기당 강구범 선생이 1985년과 1986년 사이에 기부한 8000만 원과 1986년 법환동 마을회 공동묘지 기금 1200만 원으로 1986년 서귀포시 강정동 1604번지 2,222평, 1833번지 1,963평, 1834번지 2,041평 등 3필지 6,226평을 취득하였다. 1986년 6월 기당법환복지회를 설립하고

1986년 7월 기당법환복지회로 소유권을 이전 관리하던 중 기존 법환 공동묘지의 매장이 완료된 후 2022년 10월 위 3필지 6226평을 법환공동묘지로 법환동 마을회에 증여하였다.

이 외에도 재일제주인들은 옹포리를 비롯하여 광지리, 금성리, 월평마을, 온평리, 하천리, 성읍리 등에 장례 기구, 공동묘지 조성 및 관리, 묘지 토지 매입, 묘지 창고 건립과 묘지 식탁, 묘지 계단 시설, 화장실 시설, 안치소 시설에 기금을 조성하여 힘을 보탰다.

최근 어느 마을에는 일본에서 사망한 동향인들을 도내 마을 공동묘지에 매장하거나 그들의 유골을 가져오면 제를 지내고 위패를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있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방문 초청 사업이나 공동묘지 이용(배려)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법환마을 공동묘지



하천리 공동묘지

공동 우물물 관련 시설 기여

물이 귀했던 옛날 제주 사람들은 마을에 우물을 파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그래서 재일제주인들은 옹포리, 고내리, 광령리,

동김녕리, 동복리, 대포리, 세화리 등에 공동 우물물 시설을 건립하거나 보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들은 상수 탱크 시설, 목욕탕 시설, 양수 시설, 급수장 부지 조성, 관정 부지 조성, 배수지 시설, 급수 시설, 농업용 관정 시설, 심정 굴착 등 지역인의 생활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성금과 기금을 기부했다.

옹포리 중화동 공동 우물은 도로 옆에 놓여 있었다. 재일동포 옹포리 출신이 자신의 땅과 자금을 기부하자 마을 사람들은 땅을 파서 공동 우물을 만들어 생활했다. 주민들은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식수를 용천수나 봉천수에 의존했다. 용천수는 땅에서 솟아나는 귀중한 식수원이었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졌다. 용천수가 솟아나는 지점은 돌담으로 올타리를 만들어 우마의 진입을 막았으며, 용천수는 식수용과 빨래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사용했다. 옹포리에는 용천수가 전부 7개 있었는데, 지금은 ‘마른 물’만 남아 있고 모두 멸실되었다.¹¹ 리사무소 옆에는 중화동에 음료수 2개소 및 기타 건설 사업 성금(13만 5000원)을 희사하여 향토 개발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찬양하고자 1964년 건립한 공적비가 있다.

동복리는 재일교포 독지가 고병언(高柄彦) 씨가 고향 동복리에 우물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1939년 거금으로 우물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였던 마을이다.¹²

11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276쪽. 사진은 인류학자 이토아비토(伊藤亜人) 명예교수(前)가 1971년 8~9월에 촬영한 것으로 〈1971년 제주도〉 사진집에 수록되어 있다.

12 1972년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사용하지 않다가 1985년 위험 요인이 있어 복개(覆蓋)했다. 2013년 주민들 요청에 이은 제주시의 협조를 통해 복원했다. 마을 우물물 동판에는 “1939년 무정유정(無井有井) 정신으로 거금 천원지연(天圓之捐)”이란 내용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한편 저지리는 물(우물물)이 워낙 귀했던 곳으로 식수 문제가 해결된 뒤 삶의 질이 현저히 달라졌다. 그 당시 우물물을 길어 생활해야 하는 불편한 환경에서 벗어난 일은 마을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큼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것이다.



옹포리 우물물(1971년 8~9월)



동복리 우물

마을 포제(酺祭) 제단 건립 성금 기증

포제는 매해 정월 첫 정일(丁日)에 마을 공동체 남성들이 참여하는 제의로서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례이다. 제주의 포제는 단순한 농업 의식을 넘어 마을 공동체 결속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중요한 행사였다. 지금도 때마다 포제와 마을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당굿 등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 있다.¹³

오사카에 살던 꽈지리 출신 박순길(朴順吉)은 제단 복원 소식을 듣고 재단 터를 마을에 회사하였다. 도두1동 출신 재일제주인들은

13 dreamway.co.kr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향리 출신 11명이 마을 포제 기금(550만 원)을 조성하여 회사하였다. 오도(吾道)마을 출신 여성들은 1987년 일본에 거주하는 마을 출신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 친목회를 이어가기 곤란하게 되자 모임을 해체하면서 남은 기금 60만 원과 개인(김정옥) 10만 원을 이 마을에 회사하니 그 자금으로 동쪽 빙터에 제단을 만들어 봉헌하게 되었다.¹⁴

와산리는 오랜 전설을 간직한 당집(본향 당오름 불듯당, 할망당)이 파손되어 재건을 고민하던 중, 와산리 출신 고군호(高君虎) 씨가 건립비 전체를 부담하여 완공하게 되었다. 와흘리에도 재일제주인들이 지역 특성상 본향당 조성을 위해 성금을 회사한 마을이다.

이처럼 1990년대 제주 지역 일부 마을에서 마을 포제 기금(성금) 등을 조성하여 회사하거나 제단 터를 기부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포제단 건립과 보수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곽지리 포제단

14 梨湖洞誌編纂委員會(2007), 『梨湖洞誌』, 429쪽.



와산리 불듯당(활망당)과 와흘리 본향당

푸른 바다를 품은 등대 시설

하예포구에는 1993년 하예동 출신 강진황(姜進璜)이 기증해 건립한 하얀색 진황(進璜)등대가 있다. 이곳은 바다 경관이 좋으며 하예포구가 내려다보이는 장소이다. 그는 1990년 아들 둘과 함께 예래동 5통 회관 건립 기금으로 350만 원을 기증했다. 이후 하예동 어부의 안전 운항을 기원하기 위해 1993년 하예 진황등대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진황등대 옆에는 표지석이 놓여 있으며, 강진황의 형 묘소와 그의 아들이 기증한 대리석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그의 부인인 김춘지(金春志)는 1995년 산방산을 끼고 있는 사계항에 빨간색 춘지(春志)등대를 건립했다. 그는 1966년 예래초등학교 교사 증축 보조비(1만 원)와 1975년 체육 시설비(5만 원)를 시작으로 1995년 동방파제 및 등대 건립비와 시설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기증하였다.

이렇게 하예동과 사계리에는 각각의 등대가 멀리에서 마주 보고 서 있다. 이 등대들은 지역 어민 선박을 비롯하여 인근을 항해하는 각종 선박의 해상 안전을 목적으로 재일제주인 강진황과 김춘지 부부가 고향 하예동과 사계리 각각에 등대를 건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예 진황등대와 사계항 춘지등대

자매결연 및 성금 전달

1970년대 재일 한국인이 고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새마을운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는 종합 계획을 작성하고 모금 활동을 펼쳤다. 민단은 전 조직을 동원하여 새마을운동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해 성금 4억 2000여만 엔을 모았으며, 이를 전국 자매결연 새마을 부락에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재일한국인이 모국에 보낸 각종 성금은 9100만 엔과 29억 8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재일거류민단의 지부들과 자매결연한 고국의 농촌은 경기 20곳(6066만 원), 강원 17곳(5939만 원), 충청

29곳(1억 1084만 원), 경상 47곳(1억 5742만 원), 전라 26곳(8950만 원), 제주 9곳(2463만 원) 등 모두 148곳(지원 성금 총 5억 244만 원)에 달했다.¹⁵ 새마을 자매결연 및 성금 전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표 3-8> 전국 새마을 자매결연 및 성금 전달 현황¹⁶

(단위 : 곳, 천 원)

지역별	자매결연	성금 지원액	지역별	자매결연	성금 지원액
경기	20	60,660	전남	13	52,090
강원	17	59,390	경북	21	85,080
충북	11	44,680	경남	26	72,340
충남	18	66,160	제주	9	24,630
전북	13	37,410	합계	148	502,440

제주도의 경우 남제주군(4곳)과 북제주군(5곳)을 중심으로 마을 9곳과 자매결연을 하고 총 2463만 원을 전달해 지역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표 3-9>). 이들 마을에는 고향 출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민단 지부를 중심으로 성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경면 청수리 마을에는 1973년 31만 4000원을 지원하였다. 도쿄지방본부 분쿄(文京)지부는 1975년 애월읍 용흥리·조천면 북촌리와 자매결연을 하고 마을 발전 기금으로 각각 250만 원과 이에 더해 추가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들 마을에서는 마을 창고(용흥리)와 낚시터

1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169-171.

16 위의 자료와 동일.

휴게소(복촌리)를 건립하였다.¹⁷ 이 외에도 오사카의 재일동포 유지인 안재호[日本有機化學工業(주)]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표선면 세화1리와 자매 결연을 해 전화 시설이나 학교 시설, 경로당 시설 등을 위한 새마을 성금(300만 엔)을 보냈다.¹⁸

또한 재일거류민단 본국사무소는 새마을 성금과 별도로 1981년까지 1억 3365만 원을 전달하였고, 1970년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를 구입(4만 8500엔)하여 기증하였다. 이 밖에도 재일한국인들은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과 양잠업 장려, 농지 정리, 도로 및 가교건설, 주택 개량, 4H 운동, 새마을 회관 및 공장 건립 성금 등을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1리 새마을 자매결연파(1973년)

새마을 姉妹結緣牌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秋田縣地方本部 大韓民國
濟州道 南濟州郡 大靜邑 日果一里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秋田縣地方本部

17 김봉옥(2000), 앞의 책, 406쪽.

18 在日本大韓民國大阪府地方本部(2006),『大阪韓国人百年史-民國大阪60年の歩み』,174頁。

<표 3-9> 제주도 새마을 자매결연 및 성금 전달 현황¹⁹

(단위 : 천 원)

지역별	민단 지방본부 및 지부	성금 지원액	지원 년도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静岡県県地方	312	1973년
북제주군 한림면 금릉리	宮城県地方本部	418	1973년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東京地方本部 荒川支部	314	1973년
남제주군 대정면 일과리	秋田県地方本部	299	1973년
남제주군 성산면 신양리	福島県地方本部	202	1973년
북제주군 조천면 신흥리	岩手県地方本部	194	1973년
남제주군 서귀면 서홍리	山形県地方本部	224	1973년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東京県地方本部	250	1975년
북제주군 애월면 용흥리	東京県地方本部	250	1975년

기증자 문서 기록부

마을과 학교 기증자 문서 기록

일부 읍면은 리사무소에서 희사자 명부를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한경면 한원리는 1963년 9월 농협 창고 건축 기금을 희사한 향리 출신 제주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적은 서신과 답신을 소장하고 있다. 그것에는 “감사의 마음, 희사 금액, 희사자 명부, 환전 금액, 영수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추가 서신에는 “이천 원 김정숙 합계 구만 오천 원이 되오며 수원리 사람에게 환전했사오니 받는 즉시 영수증이며

19 재일동포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해답을 바라옵니다.” 그리고 “현 한화 삼만 이천 원을 놔두고 오기로 약속했사오니 그런 줄 알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한원리는 마을과 기증자들이 주고받은 서신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즉 ‘본리 출신 재동경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부락민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 1938년 이후 한원리 회사자 기록부’ 등이다.²⁰

서신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리 출신 재동경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요즈음 천고마비 계절에 객지에 있는 동안 자고 먹는 데
여하하오며 사업 번영에 건투하심을 축원 하나이다.

부민 일동은 여러분들의 사업 번영과 만복을 주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준공일은 다음과 같이 9월 초순이며,
보내 준 편지를 받고 부민 일동에게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성의와 노력에 용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단한 거액의 협조를 받고 고향에서 아무런 탈 없이 지내는
우리들은 한층 향리 발전에 노력하여 여러분들이 성의를
굳게 하자는 결의가 떠올렸으며, 감사의 뜻을 드리지 못함에
지난날 7일 한원리 출신분들에게 모두가 여러분의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에서 일상생활에 바쁘신 와중에도 향리 발전을

20 “기증자들과 마을 간에 서신이 오고 갔고, 그 편지가 현재 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회사자 기부 명부를 기록으로 남겨 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 강승일 (70대, 한원리) 2021년 9월 인터뷰

위하여 납부하여 주신 거액의 금액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가한 일금 삼만 이천 원을 영수하고 창고의 완공을 알리고자 하오며 다음으로 고향에 엠프 시설과 관정호 시설 계획을 건립하고자 하는 중이오며, 이 중 일금 삼만 이천 원을 영수하였으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발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끝이고 모두가 객지에서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락민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

요즈음 천고마비 계절에 농가 재건 사업에 건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축원하면서 농촌 생활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동경 한원리 출신 저희는 여러분들의 만복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이국에 계시는 저희는 부락민 일동 여러분들의 주야로 항시 염려해 주시는 덕택으로 고향 아닌 이국 생활이며, 사업에 노력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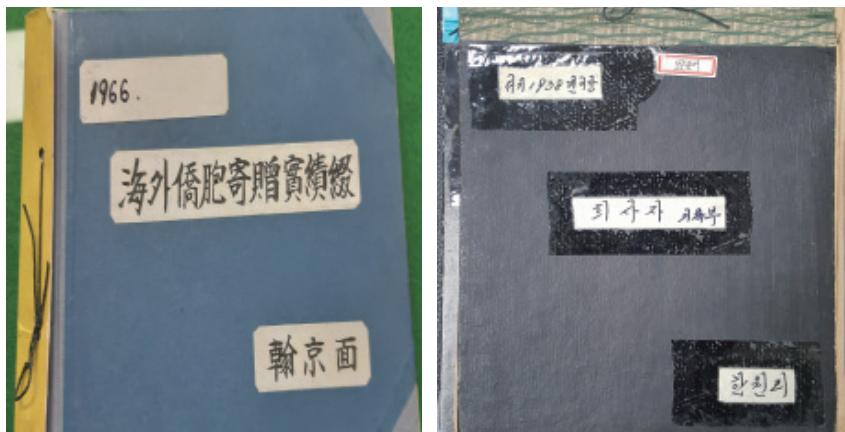
동경 한원친목회에서는 몇 번이나 모여 앉아 고향을 잊지 말자 고향을 위해서 하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부락민 일동의 보내 주신 편지를 받고 부락의 발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때 재일 한원 출신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사오며 감개무량(感慨無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산 자원에 농업협동조합 창고 건축에
준공을 못 보시겠다고 하시어서 이국에 계시는 저희도
통탄할 일이어서 서신을 가지고 즉시 최지화, 김상홍 님을
위원회로 세워 동경 한원 출신 가족에게 일일이 찾아뵙고
성의로 모이는 것이 다음 금액이 되었사오니 여러분들은
이국에 계시는 이국의 생활 경제면은 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작은(소액) 금액이지만 몇 백만 원 받은 셈 하여 주시고
기금 해 주신 사람에게 각 집으로 고맙다는 서신을 보내
주십시오. 주소를 한 봉투로 보내 주시면 전화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국에서 주야를 무릅쓰고 부락민 일동의 건투를
빌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빌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고 다음 연락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63년 9월 1일

동경 한원 대표 김 상 홍 올림



1966년도 한경면 해외교포 기증 실적철과 한원리 희사자 기록부

<표 3-10> 한원리 기증자 문서 기록부 현황²¹

시기	기증자	종류	금액	내용
1938년	姜應斌 외 7명			'남동 봉천수' 수전
1963년	東京漢源出身(金相洪 외 8명)	현금	95,000	농업협동조합창고건축기금
1964년	金永湖	현금	5,000	향토발전기금
1964년	金基先	현금	10,000	향토발전기금
1965년	在日僑胞各自名單 別添	현금	61,600	향토발전기금
1965년	漢源里老人青年會一同	현금	10,000	향토발전기금
1965년	在日漢源親睦會一同	현금	35,000	향토발전기금
1965년	在日僑胞漢源里親睦會寄附金 (會員一同)	현금	50,000(일화) 35,000(한화)	향토발전기금
1965년	在日僑胞漢源里出身個人寄附金 (金奉仁 외 19명)	현금	88,000(일화) 61,600(한화)	향토발전기금

21 한원리사무소 내부 자료(희사자 문서 기록부)

1966년	高女奎	현물	50,000 (165켤레)	호당 백고무신(여자 신발) 한 콜레씩 배부
1967년	在日僑胞 金基先	현물		향리가설(스피커, 병해충약, 마이크, 빗데리, 전축판)
1970년	在日僑胞 金奉文	현물		캐비넷 1개, 의자(철제) 3개
1971년	東京在日僑胞(7명)	현금	1,000,000(한화)	향리 전화가설기금
1971년	同郷 출신 각 지역(29명)	현금	960,000	향리 전화가설기금
1972년	崔智化	물품	35,000	천막 1개, 휘장 2개
1972년	金奉文	물품		교제 식탁 4개, 장의자, 의자 20개(철제의자)
1982년	在日僑胞 2명	현금	230,000	부의금
1983년	高女奎 외 6명	현금	1,700,000	새마을회관 건축기금
1983년	在日僑胞大販親睦會	현금	1,000,000	새마을회관 건축기금
1983년	在日僑胞 양운교	물품		캐비넷 2점(1점 청년회)
1985년	在日僑胞 梁太腸	현금	200,000	
1987년	在日僑胞 金泰行	현금	200,000	부의금
1990년	在日僑胞 김행오	현금	200,000	부의금

또한 한림읍 한수리는 기증 명부를 작성해서(翰洙里敬老堂建築 及
敷地買入基金 芳名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한 정황이 있다. 건축 당시 경로당건축추진위원회가 모든 내부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평중학교(1999), 『演坪中便覽-開校 45周年 記念』에는 기증자들과
학교 간에 오간 서신의 기록(在日本演坪里出身者寄附金醸出名簿)이
있다. 재일본 연평중학교 증축 기성회 도쿄(東京) 대표 정찬흡 씨와

오사카(大阪) 대표 김덕구 씨가 연평중학교 교장 앞으로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은 도쿄와 오사카 거주 향리 출신들이 1961년 부락민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謹賀新年)로, 수금한 후에 여러 가지 증축 사업에 대한 소식을 종종 기성 회원을 통해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기증 관련 문서들은 마을의 소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기록물들은 추후 마을의 발전을 돌아보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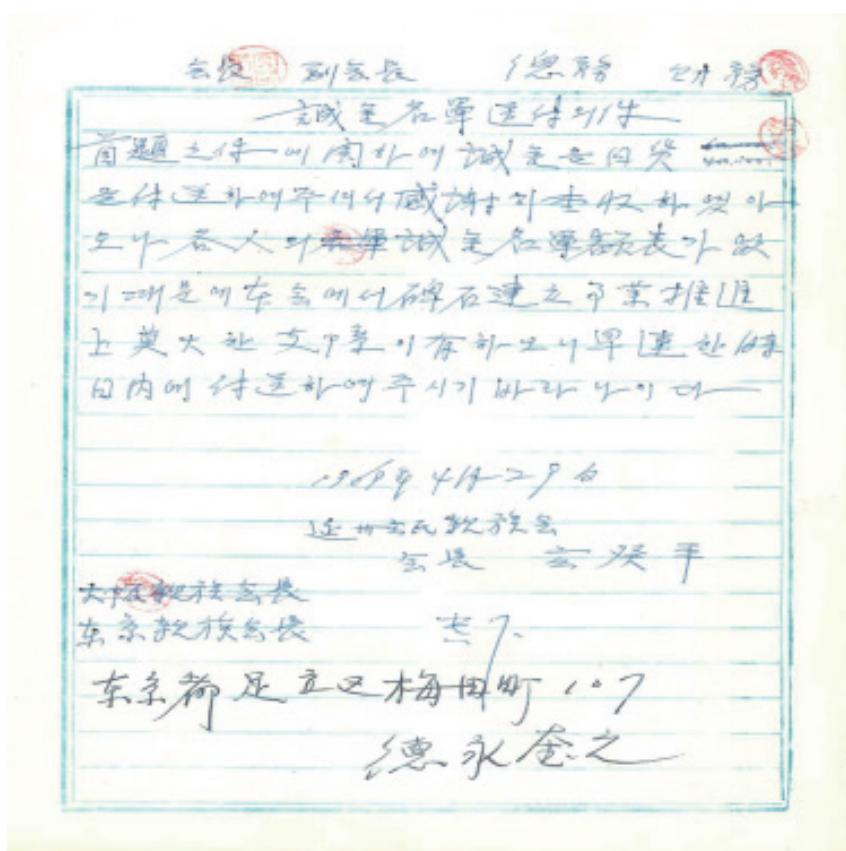
친족회 기증자 문서 기록²²

친족회 기증자 문서²³는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와 재일본 친척이 나눈 서한문으로 성금 명단 송부의 건과 성금 후원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성묘 성금자 명단에는 회원 35명(거로-11명, 신산-12명, 양의막-12명)으로 64만 1000원을 모금했으며, 4만 1000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2 연주현씨제주도친족회(2025), 『친족회관건립백서』, 179-187쪽.

23 현행복(玄行福) 2025년 9월 16일 친족회 관련 자료 제공.

제주도 친족회장이 동경친족회에 보낸 서한



성금(誠金) 명단(名單) 송부(送付)의 건(件) 판독 풀이

머리 제목의 건(件)에 관하여 성금(誠金)으로 일화(日貨) 400,000(엔)을 부쳐 보내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금을 내신 여러 사람의 명단과 액수를 적은 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친족회에서 비석건립사업(碑石建立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사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내용이 담긴 명단표를 부쳐주시길 바랍니다.

1969年4月29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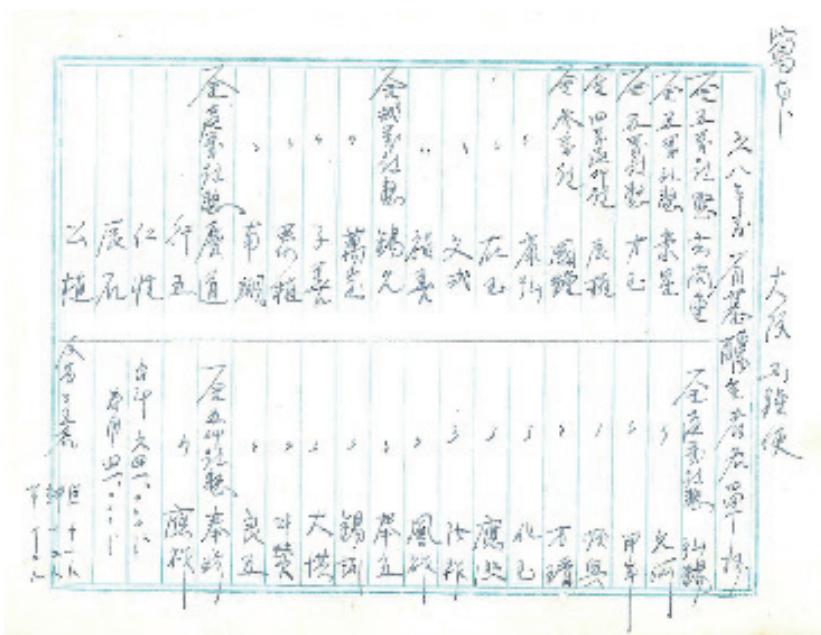
연주현씨친족회(延州玄氏親族會)

회장(會長) 현계평(玄癸平)

동경 친족회장(東京親族會長) 귀하(貴下)

1968년도 성묘(省墓) 각금자(釀金者) 명단(名單)

-대판(大阪) 혼국종(玄國鍾) 편(便)



제4장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

지역별 기증 현황

제주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지역 변화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8·15광복, 제주4·3, 한국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배고픔에 시달릴수록 민족과 제주에 발판이 되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한몫을 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억압적인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과 제주인이 가슴속에 굳건하게 품은 저력과 열정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기에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재일제주인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힘들게 모은 돈을 기꺼이 고향으로 보내는 등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

학교 발전에 공헌한 기증 실적은 총 74억 7603만 원(3,016건) 중에서 제주시 서부가 50억 3784만 원(6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시 동부가 9억 5939만 원(949건), 서귀포시 동부가 9억 550만 원(711건), 서귀포시 서부가 5억 7330만 원(700건)이다. 이처럼 제주시 서부가 다른 지역보다 기증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는 현금(61억 3936만 원, 1,532건)이 현물(13억 3667만 원

상당, 1,484건)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1>). 이는 1945년 전후에 일본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마을(학교) 단위 친목회(향우회, 동창회 등)가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증 금액이나 건수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이나 교육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은 마을에는 기증 금액과 건수가 다른 마을보다 많았으며 재일제주인이 고향을 방문한 횟수도 여럿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재일제주인이 기증한 내용은 학교 설립과 부지 조성, 교육 시설 및 장학 지원, 도서(함), 학교 교구 지원, 교육 기자재 지원, 장학금 지원, 급식소 시설, 부대시설(과학관·도서관·체육관 등) 건립, 학교 비품 지원, 음악 용품(악기 등) 지원, 체육 용품(철봉 등) 지원, 발전 기금 전달, 감귤원 조성(감귤 묘목), 환경 조성 및 정비 등으로, 기증의 종류와 품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¹

따라서 제주도는 재일제주인의 기증 활동 덕분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학생들은 학용품(노트, 공책, 연필) 등을 사용하게 되어 면학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로써 재일제주인은 고향의 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은 필자가 2017년 발표한 논문에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새롭게 정리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고광명(2017),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 교육·문화 발전에 대한 고찰」, 『日本近代學研究』57, 韓國日本近代學會, 267~288쪽.

1 “지난해에 노인회 회장이 찾아와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도로포장 기금으로 거액을 희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1978년 5월 법환리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970년대 법환초등학교에 학용품 등을 기증했는데, 학생으로부터 고맙다는 감사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김정화(100대, 법환마을) 2023년 11월 인터뷰

<표 4-1> 지역별 학교 기증 현황²

(단위 : 천 원, 건)

지역별	현금		현물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수량
제주시 서부	4,410,873	235	626,968	421	5,037,842	656	12,942
제주시 동부	718,128	502	241,260	447	959,388	949	14,952
서귀포시 서부	433,306	475	139,997	225	573,303	700	7,598
서귀포시 동부	577,051	320	328,448	391	905,499	711	9,885
합계	6,139,359	1,532	1,336,673	1,484	7,476,033	3,016	45,377

학교 설립³과 운영에 공헌

재일제주인의 기증 활동은 마을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기증 품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학교 건물과 부지, 도서, 교구, 비품 등을 다양한 형태로 희사하였다. 열악한 기반 시설의 개설과 보충은 학교 발전을 도모했고, 마을의 교육 환경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당시 학교 설립은 개발위원회, 설립기성회, 설립발기회, 학교육성회, 증축기성회, 증축위원회, 추진위원회, 건축기성회, 교육후원회, 학교 살리기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2 제주특별자치도(2007), 『愛鄉의 보람-在日同胞寄贈實績』과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외교과, 제주대학교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재정리하여 기술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2024),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활동 기초 조사』.

기증이 저청초, 신촌초, 조천초 신흥분교, 보성초 구억분교·신평분교, 영락초, 안덕초 대평분교, 서귀초 서홍분교, 하원초, 동남초, 온평초, 태홍초, 신엄중, 조천중, 연평중, 신산중, 한림고 등이 있는 마을에 학교를 설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 설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 현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었다. 개인이나 독지가, 단체 등도 복구 기금 및 설립 기금, 학교 건물과 부지 회사 등으로 학교 설립에 참여했다. 더욱이 독지가들은 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금전적으로 크게 공헌함으로써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기증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1960년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복구 기금이나 시설비를 포함한 설립 기금을 회사하고 비품, 도서, 기자재, 교구를 기부함으로써 교육 발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는 학교 설립 유형을 복구 기금과 설립 기금, 인수와 경영, 설립과 운영 등 3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 복구 기금이나 설립을 위해 성금을 조성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천중은 1950년 김정성(金正成) 씨가 조천면 신촌리에 교지(1,380평)를 기증하게 되어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⁴

중문초는 1956년에 개인(52명)을 비롯하여 재일동포 중문면 교육후원회, 부인회, 친목회(중문, 하원, 대평, 회수마을 출신) 등이 화재복구의연금(134만여 원)을 조성하여 복구하였다. 신흥초는 1964년

4 “조천중학교 건립 당시 일본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목재를 제재하여 배로 이동하고, 큰 화물 선이 조천포구에 들어올 수 없어서 물에 떨어뜨린 후 끌고 왔으나 그 나무들을 보관할 장소를 못 찾아 어려워하다가 현 조천중학교 위치에 신촌리 주민들이 토지를 내어 주었다.” 고구봉(60대, 조천리) 2021년 6월 인터뷰

향리 출신(39명)이 1인당 5천 원에서 170만 원까지 십시일반 참여해서 720만 원을 조성하여 부지를 사들이고 설립했다.⁵ 구억분교장은 당시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교육청에 분교장 설립을 건의하고, 1966년 재일교포(41명)가 모은 기금(2만 8200엔, 11만 2000원)으로 설립했다. 학교가 없었던 신엄리에는 재일제주인 백정혁(白丁赫)⁶ 씨의 주도로 마을에 학교 부지를 기부하는 등 마을 주민들이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면서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경우이다.



구억분교장 배움의 옛터

또한 고내리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사이 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애월고 설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옹포리는 한림고 부지(5,000평)를 구매하여 제주도교육청에 기부함으로써 인근 마을보다 빠르게 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우도면은 고등공민학교 인가를 받은 후 재일제주인들이 연평중학교 부지를 기부하게 되어 설립한 것이 지금에 이른다.⁷ 하원마을은 마을 이장 등 유지들을 중심으로 기성회를

5 《한라일보》2011년 10월 11일(www.ihalla.com)

6 “백정혁(白丁赫) 선생 장례식 때 마을에서 몇 사람이 대표해서 행사를 진행했다. 영결식 때 학생들도 참석하고 운구 차량이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했다. 마을 차원에서 기증자를 위한 장례식을 치렀다.” 정재훈(60대, 신엄리) 2021년 11월 인터뷰

7 “도쿄(東京) 정찬흡(鄭贊治)과 오사카(大阪) 김덕구 등 마을 출신들이 돈을 보내니 부산에서

결성하여 일본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 돈이 있는 재일제주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조직적 차원에서 학교 설립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대평 마을은 재일제주인들이 안덕초 대평분교장 부지를 회사하여 설립함으로써 교육 시설이 조성되고 학생 등교가 수월해지는 등 교육 환경이 개선된 마을이다. 효돈동은 중학교 건립 당시 마을 사람들의 기부금이 많지 않았으나, 고향 출신 재일제주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 덕분에 상급 학교에 진학한 사람이 많았다. 이처럼 재일제주인들은 학교를 건립할 때 기부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헌신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 대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게다가 각 마을은 학교 설립 후 교육에 대한 열정이 커지고 자신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동천(東泉) 김평진(金坪珍)은 1966년 운영난에 허덕이던 제주여자학원(濟州女子學園)을 인수하여 여성 교육의 요람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간 인물이다. 제주여자학원은 1946년 제주고등여학교로 개교하고, 1947년 제주여자초급중학교 인가와 함께 재단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51년 8월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6학급 인가를 받고, 동년 9월 제주 최초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김평진 이사장은 1966년 취임사에서 전직 이사장들의 공적을 이어받아 학교를 선구적인 위치로 올리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공언한 대로 학교는 1972년 아라동 현재 부지($49,587\text{m}^2$)로 이전하여 당시 최고 시설 수준을

자재(건축자재, 목재 등)를 가져오라고 학교에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 당시 돈만 외환은행으로 보내면 부산에 가서 학교를 건립할 목재 등을 사서 왔으며, 돌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학교를 건립했다.” 고광환(60대, 우도면) 2022년 7월 인터뷰

자랑하는 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는 장남 김화남(金和男)이 이사장(1995.11~현재)으로서 새로운 발전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⁸

마지막으로 송제(松濟) 백이남(白二南)은 1980년 10월 도쿄 마치다(町田)시에 성남(城南)병원을 설립한 이후 교육 시설이 부족해 배우려 해도 배울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고향에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 주자는 일념을 가지게 되었다. 1985년 2월 학교법인 남녕학원(南寧學園)을 설립하여 1986년 3월 남녕고등학교(대지 1만 1,000평, 총 건평 3,300평)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학교가 계속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수익 사업체로 남녕개발(南寧開發)을 설립하여 학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나아가 평상시 학생들에게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그 배움을 나라를 위해 베풀어야 한다고 천명하여, 이를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철학으로 삼게 했다. 현재는 백동홍(白東弘) 이사장(2014.6~현재)이 설립 당시 초심을 되새기며 재창학(再創學)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⁹

이렇게 재일제주인들은 향토교육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였으며, 고향에 교육기관을 건립·육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가난한 고향을 떠나서 가진 것 없이 타국에서 갖은 고생을 한 제주도 출신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뜨거웠다고 볼 수 있다.

8 school.jje.go.kr/jeju-g

9 school.jje.go.kr/namnyeong

교육 시설 지원에 공헌

교육 시설 지원

1950년대를 전후하여 최근까지 제주도 교육 시설에 지원한 실적은 전체 74억 7603만 원 중에서 건물(39억 5402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대시설(9억 4428만 원), 발전 기금(9억 3281만 원), 부지(6억 4155만 원), 학교 교구(4억 749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2>). 이러한 교육 지원은 각 지역 또는 마을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거의 모든 마을에 초등학교가 생겼고, 읍·면까지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지원 내용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학교 부지 매입을 비롯하여 교사 신축 및 교실 증축, 도서(관) 시설, 시청각 기자재, 악기, 동상과 탑 건립, 체육 용품 및 시설, 과학 기구, 학교 일반 비품, 울타리 축조, 도로 정비, 학습지, 교문, 교사 및 숙직실, 급수 시설, 국기 게양대, 온실, 부속 건물, 스쿨버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 지원 활동이 이루어졌다. 기증 분야를 지원 내용이 많은 순으로 나열해 보면 교사 신축 및 교실 증축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이 부대시설, 발전 기금, 학교 부지, 학교 교구(시청각 기자재, 악기 등), 일반 비품, 장학금, 도서, 학교 구조물 순으로, 교육 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일제주인들은 배우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한(恨)을 고향 후배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교육 시설 등의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표 4-2> 교육 시설 지원 현황¹⁰

항목	부지	건물	부대시설	일반 비품	도서	학교 교구
금액(천 원)	641,552	3,954,020	944,276	196,389	85,477	407,491
항목	학교 구조물	장학금	발전기금	환경조성 및 정비	기타	전체
금액(천 원)	81,425	120,092	932,813	88,121	24,375	7,476,033

지역별 학교 교구 지원

학교 교구 기증 실적은 총 4억 749만 원 중에서 제주시 서부가 1억 3512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시 동부가 1억 1911만 원, 서귀포시 서부가 9166만 원, 서귀포시 동부가 6160만 원 순이다. 지역별로 제주시 서부가 다른 지역보다 기증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는 시청각 기자재(1억 7578만 원)를 비롯하여 악기 및 음악 용품(1억 5465만 원), 체육 용품 및 시설(3396만 원), 교구 및 학습 자료(2339만 원), 과학 기구(1972만 원) 등의 분야에 기증이 이루어졌다(<표 4-3>).

이들은 충무공 탑을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당시 토지를 매입해 기증하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당시는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학교 시설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교육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일제주인들은 귀감(龜鑑)이 될 수 있는 인물의 동상이나 강당,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상 등을 만들 수 있도록

10 앞의 <표 4-1>과 동일.

지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 비품(연필깎이, 시계 등)이 미비할 때 재일제주인이 많은 도움을 준 덕분에 학교가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들의 기증은 학생들의 자긍심을 일깨운 것은 물론이고,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지역별 학교 교구 지원 현황¹¹

(단위 : 천 원)

항목	악기 및 음악 용품	체육 용품 및 시설	과학 기구	시청각 기자재	교구 및 학습 자료	전체
제주시 서부	31,874	4,788	15,334	72,033	11,087	135,116
제주시 동부	37,174	14,230	1,474	63,158	3,077	119,113
서귀포시 서부	53,597	3,901	1,647	23,884	8,632	91,661
서귀포시 남부	32,004	11,043	1,262	16,702	590	61,601
전체	154,649	33,962	19,717	175,777	23,386	407,491

음악 용품 및 악기 기증

재일제주인들은 한림읍(7개교), 애월읍(10개교), 구좌읍(10개교), 조천읍(6개교), 대정읍(7개교), 성산읍(7개교), 남원읍(6개교), 한경면(8개교), 추자면(1개교), 우도면(1개교), 안덕면(5개교), 표선면(6개교), 제주시 동 지역(12개교), 서귀포시 동 지역(12개교) 등 읍면동 소재 학교에 음악 용품이나 악기 등을 기증하였다. 학교급별로는

11 앞의 <표 4-1>과 동일.

총 98개교 중에서 초등학교 77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으로 주로 초등학교에 도움을 주었다. 공현자(257건)들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개인(185명)을 비롯하여 각 마을 친목회와 학교 동창회, 제주도친목회, 악기 기증위원회, 교육후원회, 제주도사친회, 공진회, 민단 중앙본부 등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희사하였다. 이들이 기증하는 데에는 개인과 함께 친목회 등과 같은 단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수혜를 받은 학교로는 중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 기증한 경우가 많았다.

기증 품목으로는 풍금, 오르간, 리듬악기, 피아노, 멜로디언, 아코디언, 큰북, 색소폰, 전자오르간, 피아노 박자기, 호른, 트럼펫, 현악기, 고전 악기, 금관악기, 악대 의복, 악기 보관함 등이 있다. 이처럼 학교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품목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한경교회 풍금



화북초 악대반(1978년)

심지어 제주에서 구할 수 없는 악기(풍금, 피아노, 오르간 등)나 음악용품을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회수마을에서는 악기 합주부 설치와 통학 차량 제공 등에 대해 학생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며, 법환마을에서는 풍금 등의 악기 기부로 음악교육 활성화에 공헌

했다. 재일제주도민협회는 초등학교에 풍금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음악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밖에도 한동리에는 청년 활동을 위해 악기가 필요하다는 마을의 요청이 있어 1924년 오사카와 고베 지역에 거주하는 한동리 출신(70여 명)이 각각 5원에서 20원까지 모은 돈으로 북(대·소), 나팔 등 5종 20점을 구입해 기증한 사례도 있다.¹²

이렇게 재일제주인들은 음악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대단해 음악용품을 비롯하여 각종 악기에 이르기까지 희사했고, 음악교육의 밀거름이 되는 데 공헌했다. 일부 학교는 음악 계통에 큰 혜택을 받았다거나 내부 시설이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악기류 등의 기증으로 마을(개관식 등)이나 학교(운동회 등) 행사 때 이용함으로써 마을 간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릉초 합창단(1968년 12월)



운동회 끝난 후 모습(1970년대 초반)

체육 용품 및 체육 시설 기증

재일제주인들은 한림읍(6개교), 애월읍(4개교), 구좌읍(7개교),

12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7), 『둔지오름 漢東里誌』, 26쪽.

조천읍(3개교), 대정읍(2개교), 성산읍(6개교), 남원읍(4개교), 한경면(4개교), 우도면(1개교), 안덕면(5개교), 표선면(5개교), 제주시 동 지역(7개교), 서귀포시 동 지역(8개교) 등 읍면동 소재 학교에 체육용품을 기증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총 62개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46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으로 주로 초등학교에 기금을 조성하여 도움을 주었다. 공현자별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개인을 비롯하여 각 마을 친목회와 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현금과 현물로 희사하였다.

기증 품목으로는 미끄럼틀, 유니폼, 축구공, 배구공, 그네, 시소, 야구공, 야구 글러브, 야구 마스크, 정구 라켓, 운동기구, 사이렌, 구름사다리, 철봉, 농구대, 탁구 라켓, 신호총, 핸드볼 점수판, 운동복, 초시계, 탁구대, 탁구 용품, 운동 용구, 체육 공구, 평행봉, 야구용품, 줄넘기, 뛴틀, 핸드볼 공, 라켓 점수판, 회전 그네, 정글짐, 야구 배트, 놀이기구, 테니스 라켓, 정구 교육 도서 등으로 구기 종목 용품을 비롯하여 체육과 관련한 많은 용품을 기증해 학교 체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가시리 한 어르신은 재일제주인들이 학교에 학용품과 체육용품을 기증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신촌리에서는 야구 배트, 야구공, 유니폼, 악기 일체 등을 지원해 주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제주에서 구할 수 없는 체육 용품(옹포리 게이트볼 용구 등)을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 기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도움으로 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장학 지원에 공헌

제주도 장학 지원 활동은 1945년을 전후하여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독지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에 재일제주인들은 학교 건립, 학교 시설, 교재·교구 등의 물질적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 발전에 공헌하였다. 장학 지원에 대한 공헌 내용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0~70년대 장학 지원은 이두후(李斗厚), 재단법인 제주장학재단, 안명규(安明奎), 김정광(金正廣), 김영조(金永祚) 등이 중심이 되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뜻을 두고 공헌했다.

- ① 이두후(성산면 온평리)는 이두후(李斗厚)장학회를 조직하여 1962년부터 1976년까지 성산수산고 재학생에게 학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1973년부터 대학 진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 ② 제주장학재단은 제주도 출신 국내외 독지가(75명)가 재산을 출연해 1969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다. 재일제주인들은 도쿄에서 31명, 오사카에서 35명이 출연하였으며, 제주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¹³
- ③ 안명규(조천면 신흥리)는 1976년 춘원(春園)장학회를 설립해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200만 원씩 3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 ④ 김정광(구좌면 김녕리)은 1978년 삼려(三麗)장학회를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장학금(기금 1억 원, 연간 지급액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3 재단법인 제주장학재단(2022), 『장학반세기(1969-2022)』, 28-29, 39-43.

⑤ 김영조(제주시 도평동)는 1978년 영도복지회를 창립하여 제주중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었다.

다음으로 1980~90년대 장학 지원은 고매화(高梅化), 한재용(韓在龍), 임원순·강기교(任元淳·姜己橋), 고길웅 등, 김중림(金仲林), 백창호(白昌鎬), 김순자(金順子), 김유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① 고매화(한경면 낙선리)는 1987년 청운(靑雲)장학회를 설립하여 조수초 학생들에게 매년 학비를 지급하였다. ② 한재용(조천면 함덕리)은 1988년 고향 출신(5명)으로부터 기금 5천만 원을 거출하여 함덕(咸德)장학회를 설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③ 임원순·강기교(한림읍 옹포리)는 1988년 장학금 2000만 원을 내놓아 만대(萬代)장학회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지원했다. ④ 고길웅 등(구좌읍 김녕리)은 도일하여 모금한 장학금과 동창회 기금으로 1992년 만장(萬丈)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⑤ 김중림(한림면 옹포리)은 1993년 1억 원을 쾌척해 중림(中林)장학회를 설립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⑥ 백창호(제주시 건입동)는 1986년 제주컨트리클럽을 설립하여 고향 발전에 이바지했고, 1994년 기독교 법인 단체인 운산(雲山)장학회를 설립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⑦ 김순자는 남편 좌수반(애월읍 금성리)의 유지에 따라 1994년 10억 원을 출자해 좌수반(左銖盤)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70여 명)에게 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육영사업에 공헌하고 있다. ⑧ 김유비(남원읍 하례리)는 일본에서 어렵게 모은 재산 6억 원으로 1995년 김유비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비롯하여 직업교육, 체육 진흥, 과학 기술 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에 들어 장학 지원은 이시향(李時香), 고태숙(高泰淑), 이왈옥(李曰玉) 등을 중심으로 육영사업에 공헌하고 있다.

① 이시향(한경면 두모리)은 2010년부터 이시향 장학 기금, 인재 양성관 건립 기금 등 총 20억 1000만 원을 제주대학교에 쾌척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② 고태숙(한경면 금등리)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가정이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매년 1천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¹⁴ ③ 이왈옥(한경면 판포리)은 2003년 제주대학교에 발전 기금 6억 원을 기탁했으며, 매년 삼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강충남과 이근식 등은 2000년과 2002년 제주대학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과 연구 기금으로 거액을 희사하였다. 한경면 두모리 출신인 이시향, 서상만(徐尙萬)·이순원(李淳元) 등은 1986년 두모리 학생들에게 장학 기금(1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고인수(高寅秀, 한경면 산양리)는 1986년 산양초에 장학 기금(50만 원)을 지원하여 고향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일본 센다이(仙台) 거주 김순금(안덕면 사계리)은 지금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명목으로 제주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이 외에도 상모3리 대동경로당에 기증한 재일제주인 1세대는 대정고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학교에 비석을 세운 사례가 있다. 온평리는 재일제주인이 과수원 조성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14 www.jemin.com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회수마을은 재일제주인이 대영장학회(설립자 이순천)를 설립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이 극빈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최근 용호(用皓)장학회(설립자 김재형)는 2024년부터 고향 사랑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재일제주인 자녀 중 제주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들(2024년 2명, 2025년 4명 예정)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들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담보할 초중고·대학 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에 기금을 쾌척하였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들뿐만이 아니라,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재일제주인들은 인재 육성이야말로 제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재일제주인의 주요 장학 지원 현황¹⁵

장학 지원 설립자	출신 지역	연도	장학회 명칭	지원 대상	지원 형태
이두후	성산면 온평리	1962	이두후장학회	고등학생	장학금·학비
재일제주인 등	제주도	1969	제주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안명규	조천면 신흥리	1976	춘원장학회	고등·대학생	장학금
김정광	구좌면 김녕리	1978	삼려장학회	도내 학생	장학금
김영조	제주시 도평동	1978	영도복지회	중학생	장학금

15 제주도교육청(1979), 『濟州教育史』, 661-662, 671-672; 제주도교육청(1999), 『濟州教育史』, 1017-1025; 제주대학교, 신문 기사 등 각종 자료에서 조사 작성.

고매화	한경면 낙선리	1987	청운장학회	초등학생	학비
한재용	조천면 함덕리	1988	함덕장학회	청소년	장학금
임원순·강기교	한림읍 옹포리	1988	만대장학회	학생	장학금
고길웅 등	구좌읍 김녕리	1992	만장장학회	중학생	장학금
김중립	한림읍 옹포리	1993	중림장학회	학생	장학금
백창호	제주시 건입동	1994	운산장학회	도내 학생	경제적 지원
김순자	애월읍 금성리	1994	좌수반문화재단	도내 학생	장학금
김유비	남원읍 하례리	1995	김유비장학회	고교생·대학생	장학금·연구비
이시향	한경면 두모리	2000	이시향장학금	제주대학교 학생	장학금
고태숙	한경면 금등리	2000	고태숙장학기금	고교생·대학생	장학금
이왈옥	한경면 판포리	2003	삼정장학금	제주대학교 학생	장학금
김재형	제주시 회천동	2016	용호장학회	재일제주인 자녀	장학금

부대시설 지원에 공헌

재일제주인들은 학교 건물이나 교구 외에도 도서관, 과학관, 체육관, 급식실 등과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제주도 출신들은 귀덕초, 고산초, 조수초, 판포초, 구좌중앙초, 김녕초, 보성초, 대평초, 동남초, 제주북초, 오현고 등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함덕리는 지식의 전당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후진 양성에 기여하였다. 월정리에서는 고향 마을에 왔다가 구좌중앙초에 도서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도서관을 건립해 준 재일제주인에 대해 주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조천리 출신들은 고향에 올 때마다 각자 학교(함덕고 등)에 도서를

기증해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학교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발전에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산초 도서관



제주북초 도서관

성산읍 오조리 출신 강도훈(康道勳)과 강창구(康昌九) 부자는 동남초에 1983년 2200만 원과 1987년 2000만 원을 희사하여 과학관과 도서관 건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양희진은 1990년 향후 세대들에게 첨단 과학 분야 개척이 필연적임을 절감하고 내 땅의 자랑스럽게 성장할 어린이들을 위하여 하례초 과학관(72평) 신축기금과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희사하였다.



동남초 과학관



하례초 과학관

대정읍 하모리 임수근은 1971년 대정여고 체육관 건립에 200만 원을 희사했으며, 김화수·김홍수·김인수는 효돈초 체육관 건립에 1억 원을 희사하였다. 회수마을 출신 이순천은 중문원예고 체육관 내부 시설비로 200만 원을 희사했다. 체육관 준공식 당시 이순천은 축사에서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옛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다.¹⁶



고산중 체육관



대정여고 체육관

학교에 급식실이 들어서기 시작한 1990년대 재일제주인들은 주원초, 도리초, 김녕초, 평대초, 함덕초, 신도초, 서호초, 법환초, 동남초, 태흥초, 화산초 등에 급식소 건립을 위한 성금을 조성하여 도움을 주었다. 수산초의 경우 1970년대 급식실 건립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녕리는 다른 지역 학교보다 먼저 급식소(보람의 집)를 건립하여 인근 마을의 부러움을 샀다.

이렇듯 재일제주인들의 마음과 손길은 마을에 있는 학교에도 닿았다. 당시 학교는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시설 운영이 수월하지 않을 정도로 여건이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학생들이 면학에 정진할

16 이창진(80대, 회수동) 2024년 11월 인터뷰

수 있도록 교육 시설 등을 지원해 주고 교육 발전에 보람 있는 일을 해주어서 재일제주인들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화산초 급식소 시설과 희사자 표지판

교육·연구 지원에 공헌

재일제주인 개인과 단체(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제주도친목회, 관서제주도민협회, 재일제주경제인협회, 재일제주청년회, 탐라연구회, 도서기증위원회 등)는 1957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대학교에 241억 3089만여 원(128건)¹⁷을 기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용은 도서, 현미경, 트랙터, 경운기, 학술 잡지,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악기(피아노, 탬버린, 북 등), 부동산, 유가증권, 대형 시계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는 2011년 재일제주인이 고향 제주에 보여 준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한편, 재일제주인을 비롯한 재외

17 1957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대학교에 기증한 자료는 濟州特別自治道(2007),『愛鄉의 보람-在日同胞寄贈實績』과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외교과 등의 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단, 2007년 4월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제주대학교에 기증한 금액은 309억 9390만여 원으로 확인되었다. 기증 내용은 부동산을 비롯하여 물품, 도서 등으로 대부분 발전기금이나 연구 기금, 장학기금 등에 현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 기부 내역 자료》 2025년 10월 14일

한국인을 연구하고자 설립되었다. 센터 설립 취지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널리 알리고, 재일제주인과 제주도민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있다.¹⁸

재일제주인 김창인은 제주대학교의 재일제주인센터 설립 취지를 이해하여 2008년부터 대학 발전 기금(건립 기금과 운영 기금)으로 총 213억 8천만 원을 출연했다.¹⁹ 문화교류관(재일제주인센터 및 박물관) 건립 기금 36억 5000만 원, 생명자원과학대학 본관동 건립금 44억 3000만 원, 재일제주인센터 및 실천철학연구소 기금 100억 원, 재일제주인 연구 사업비 25억 원, 실천철학 연구 사업비 8억 원 등의 거금을 쾌척하여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이왈옥은 2003년 교수 연구비 및 학생 장학금 6억 원을 기부했으며, 강충남은 언론홍보학과 행사 운영 지원금과 연구비 및 학술 행사 지원금으로 1억 원을 희사했다. 이근식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대학교에 모두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발전기금을 쾌척하였으며, 강구범은 해양연구소 기금으로 1억 3041만여 원을 기증했다. 또 이시향은 2010년부터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20억 1000만 원을 후원했다.

18 zainichijeju.jejunu.ac.kr

19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에는 213억 8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문 기사에는 270억 원을 쾌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2023년 10월 11일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전경

제5장

산업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

산업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

재일제주인의 송금

도일(渡日) 노동자의 송금

한일합병(韓日合併) 조약 이후 일본의 제주도 침탈이 본격화하면서 일본으로 이주하는 제주인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농어촌이 피폐화되면서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과 일본의 공업화로 인한 대량 노동력의 필요성, 일본과의 정기항로 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제주도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항한자의 수는 192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23년 오사카 직항 항로 개설로 1924년 도항한자의 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초에 이르러 정체하게 되었다. 일본 경제가 회복한 193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33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193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표에서 보면 총 송금액과 1인당 송금액은 1928년과 1929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1930년부터 줄어들었지만 1938년에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¹ 이것은 일본 경제가 1933년부터 다시 살아났으며, 이로 인한 경제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29년까지 총 송금액은 도항한 자의 증가와 함께 늘어났는데, 이후 일본 내 경제 사정의 악화로 총 송금액과 1인당 송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1933년의 경우를 보면 도항한 자가 늘어나면서 총 송금액은 증가하여 1인당 송금액도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더욱이 1인당 송금액은 1938년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도일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표 5-1〉).²

당시 도일한 제주도민이 제주도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 만큼, 그들이 송금한 금액은 당시 제주도 통화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직접 가져온 액수까지 합치면 제주도로 유입된 현금은 훨씬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도일 노동자들이 송금한 현금은 제주지역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다주었다.³

제5장은 필자가 2015년 발표한 논문에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재정리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고광명(2015),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日本近代學研究』50, 韓國日本近代學會, 479~499쪽.

1 1927년에 일본으로 도항한 일본 거주 제주도민들이 매년 100만 원을 고향에 송금했다는 기록이 있다(『매일신보』 1927년 1월 18일). 같은 해 일본에 건너가 각지에서 노동했던 제주인은 3만 명 이상으로 그중 3000명 정도는 매년 100만 원 이상을 고향에 보내는 송금 현상이 이어졌다(『동아일보』 1927년 1월 19일).

2 진관훈(2004),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27(1), 한국 학중앙연구원, 150-151쪽.

3 濟州島廳(1937), 『濟州島勢要覽』, 24-25쪽.

<표 5-1>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송금 현황⁴

(단위 : 명, 원)

연도	도항한 자	귀환자	총 송금액	1인당 송금액
1926	15,862	13,500	774,784	27.06
1927	19,224	16,863	956,571	31.36
1928	16,762	14,703	1,289,714	35.54
1929	20,418	17,660	1,243,714	35.20
1930	17,890	21,416	799,180	25.14
1931	18,922	17,685	715,012	21.65
1932	21,409	18,307	685,155	18.96
1933	29,208	18,062	857,919	29.39
1934	16,904	14,130	1,053,940	21.05
1935	9,486	11,161	1,006,985	20.88
1936	9,190	11,095	1,087,518	23.40
1937	7,484	8,004	1,073,870	23.37
1938	8,979	8,972	1,470,730	52.01



第二君が代丸 갑판 위의 출가 노동자와 선상의 조선인 실업가(杉原 達, 1998)

4 濟州島廳(1937·1939), 『濟州島勢要覽』.

출가(出稼) 해녀의 송금

해녀의 일본 진출은 1903년경부터 규슈(九州)와 태평양(太平洋)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미야케지마(三宅島)에서 시작되어 이후 오사카를 기점으로 태평양 연안의 각지로 확대되어 갔다. 제주도 출신들은 1923년 2월 제주도와 오사카를 직항하는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⁵가 취항하면서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매년 1,500명 정도의 제주도 해녀가 고용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해녀 노동에 임했다. 표에서 보면 1930년대 제주도 어업 등록 수는 4,723명에 달했는데, 출가 해녀가 나간 지역은 경상남도 34.7%, 쓰시마 14.9%, 전라남도 12.5%, 경상북도 7.1%, 그 밖에는 태평양 연안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출가 해녀의 분포를 보면 국내와 일본 거의 모든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5-2>).⁶

<표 5-2> 제주도 해녀의 출가(出稼) 현황(1930년대)⁷

(단위 : 명, %)

일본	인원	비율	국내	인원	비율
千葉県	66	1.40	합경북도	8	0.12

5 이 배는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연락선으로 1922년에 처음으로 취항했다. 이듬해 1923년 2월까지는 부정기 노선으로 취항했으나,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정기항로로 개설되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빈곤에 허덕이던 제주도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란 기대감으로 떠를 지어 연락선에 봄을 실었다.

6 長嶋俊介(2008), 「世界遺産登録に向けての文化の掘り起こしと交流」, 『제주해녀와 일본아마(海女)의 무형유산』, 제3회 한·일 해녀(海女)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53-54쪽.

7 濟州島廳(1937), 『濟州島勢要覽』; 樺田一二(1976), 『樺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神奈川県	228	4.82	합경남도	44	0.93
静岡県	233	4.93	황해도	48	1.02
三重県	60	1.30	강원도	212	4.49
徳島県	105	2.22	충청남도	76	1.61
高知県	180	3.81	전라북도	38	0.80
愛媛県	5	0.10	전라남도	592	12.53
鹿児島県	83	1.80	경상북도	337	7.14
長崎県	63	1.33	경상남도	1,640	34.72
対島	705	14.93	합계	4,723	100.0



1930년대 제주도 출가 해녀 상황(2025년 9월 재작성)

1929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 해녀(7,300명)는 도내 연안에서의 생산 활동으로 약 25만 엔, 일본으로 이주한 출가

해녀(3,500명)는 40만 엔 정도를 벌어들였다.⁸

이렇듯 제주도 해녀가 출가하면서 제주도 농가에서 해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졌고, 이에 따라 해안 지역에서는 해녀의 경제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표에서 송금 액수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출가 해녀 대부분이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기(漁期)가 끝나 돌아오면서 현금을 직접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⁹ 출가 해녀의 송금은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과 함께 제주도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나아가 제주도 경제가 윤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표 5-3>).

<표 5-3> 제주도 출가 해녀의 송금 현황¹⁰

(단위 : 엔, 명)

연도	출가 해녀 수	총 송금액	1인당 송금액	비고
1929	4,310			
1930	3,860	908,000	235	
1931	3,950	687,350	174	
1932	5,078	1,100,000	217	일본 1,600명, 국내 3,478명
1936	3,360	770,000	229	
1937	4,402			일본 1,601명, 국내 2,801명
1939	4,132			일본 1,548명, 국내 2,584명

8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변동』, 각, 266쪽.

9 진관훈(2004), 앞의 논문, 149-178쪽.

10 濟州島廳(1939), 『濟州島勢要覽』.



장흥원(長興院)¹¹ 제주 해녀 묘비(2023년 9월 필자 촬영)

본국 투자의 발자취

재일한국인¹² 기업가들은 1965년 한일협정(韓日協定) 이후 일본의 앞선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선진 공업화를 이룩하는 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공식 통계로 확인된 1964년까지 재산 반입 명목의 재일한국인 자금만 해도 2569만 달러였다. 특히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재일한국인이 본국에 투자한 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액 9억 달러를 상회했다.¹³

11 장흥원(長興院)에는 지바(千葉)현 아와(安房)군 와다마치(和田町)로 이주하여 정착한 제주도 출신 해녀들의 묘비(20여 명)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제주 해녀 가족 중에서 진기립(秦琪立, 1918~1989)은 한경면 두모리 출신으로 1974년 두모리 새마을사업 기금(2만 원)과 1989년 두모리 장학 기금(27만 원)을 회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濟州特別自治道(2007),『愛鄉의 보람-在日同胞寄贈實績』.

12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은 재일코리안, 재일한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교포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3 재일한국인의 전체 투자 액수는 정확한 수치로 산출하기 어렵다. 다만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을 통한 투자 액수만 해도 대략 3조 2,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1965년부터 시작된 40년 동안의 재일한국인의 본국 투자 형태는 친척방문 투자(1965~80년), 제조업 투자(1965~88년), 서비스업 투자(1988~88년), 첨단산업 투자(2000년 이후) 등 네 가

재일한국인 기업가들의 국내 진출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선진 기술이 도입되고, 공장 설비가 구축되는 등 산업 전반에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이는 재일한국인 1세들의 애국심에서 비롯한 투자란 측면도 있지만,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 한국 노동시장 자체의 매력도 영향을 주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방식, 즉 한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표에서 보면 모국에 진출한 재일한국인 기업가들은 섬유, 기계, 전기·전자, 금속 등의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금융, 관광·레저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모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본국 전기·전자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한국마벨(金容太), 싸니전기(郭泰石), YC안테나(許弼奭) 등을 비롯해 롯데제과(辛格浩), 방림방적(徐甲虎)¹⁴, 삼화제관(姜炳浚), 대한합성화학공업(安在祐), 신한은행(李熙健)¹⁵ 등의 본국 투자 활동은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밀거름이 되었다(<표 5-4>).

제주도 출신으로 제조업에 공헌한 대표 기업가인 안재호(安在祐)¹⁶는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4 서갑호(徐甲虎)는 일본에서 사카모토방적(坂本紡績)을 운영하면서 1963년 100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방림방적(邦林紡績)을 창립하고 구미공업 단지에 대규모 방직공장을 세웠다.

15 이희건(李熙健)은 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1977년 납입자본금 30억 원(설립등기 납입자본금 5억 원)으로 第一綜合金融을 설립하였다. 이어 1982년에 설립된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재일한국인들의 순수한 민간자본(납입자본금 25억 원)으로 탄생되어 일본에서 축적한 경영노하우를 도입하여 한국의 금융계에 신바람을 불게 하였다.

16 재일기업가 안재호(安在祐)는 日本有機化學工業(주)을 경영하면서 자본을 형성하여 1990년 142백만 엔, 1991년 148백만 엔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33,461 순위를

일본에서 유기화학공업(주) 등 5개 기업을 운영했다. 1967년에는 국내에 대한합성화학공업(주)을 설립하여 한국 화학공업의 기초를 다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일본에서 화학 회사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마케팅 기법, 기술을 이전했으며 일본인 직원을 데리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종업원들을 일본에 파견해 기술 연수를 받도록 했다.

<표 5-4> 재일한국인의 업종별 투자 현황¹⁷

(단위 : 사)

업종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기·전자	30	30	28	28	28	30	28	22	22	22	
금속	12	13	13	13	13	13	13	4	4	4	
화공	16	20	20	20	20	20	20	10	10	10	
기계	10	12	10	10	10	10	10	11	11	7	
식품	13	13	13	14	14	14	14	4	4	4	
섬유·의복	4	5	4	4	4	4	4	2	2	2	
기타 제조	12	6	5	5	5	5	5				
무역	6	12	13	13	13	13	13	10	10	10	
숙박	25	27	28	28	28	28	28	15	13	13	
금융	10	12	9	9	9	9	9	11	11	12	

차지하였다.

17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30年史』. (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는 재일동포 기업인들이 1974년 설립한 단체로 국내 투자 촉진과 한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제주은행, OK금융그룹 등 68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

건설	7	7	7	8	8	8	8	4	4	3
콜프	14	13	13	13	13	13	13	11	11	10
운수	4	4	4	4	4	4	4	2	2	2
건물임대관리	9	13	13	13	13	13	13	9	9	9
기타 서비스	29	21	21	21	55	22	22	16	15	13
합계	201	208	201	203	204	204	204	131	128	120

표에서 보면 1967년 9월 대한합성화학공업(大韓合成化學工業)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요소 수지 및 멜라민 수지, 칠기 및 멜라민 식기류를 생산했다(<표 5-5>). 동사에서 생산한 멜라민 및 유리 식기는 서울의 일류 백화점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의 백화점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표 5-5> 대한합성화학공업(주) 현황¹⁸

기업명	大韓合成化學工業(주)	기업 공개 분류	외감
대표자 명	安光伸	기업 규모	소기업
사업자 번호	109-81-00000	법인/주민번호	110111-0000000
주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업종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설립 일자	1967년 9월 8일

이 회사는 1967년 창업하여 1973년 일본유기화학공업(주)과 51% 대 49% 비율로 외자 도입법에 의해 세워진 합작투자 회사로서 1975년부터

18 현재 대한합성화학공업(주)은 인터넷 자료상에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등록 게재되어 있다. www.dnbreport.co.kr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일본에 판매함으로써 수출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1994년 안재호가 타계한 이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4남(安悅司)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0년부터는 5남(安光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동사는 1967년 설립 이후 300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가운데 연간 2만 4000톤의 생산 설비를 가져 공업용 호루마린을 생산한 바 있다.¹⁹ 한때 한국 합성수지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²⁰

또한 고운종(高雲鍾)은 전선제조업인 (주)아사히(旭)비닐을 경영하면서 모국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1979년 경기도에 한일 합작으로 중장비용 유압 컨트롤 밸브 전문 업체 (주)한일유압을 설립했다.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건설 중장비 및 산업용 기계의 모든 제어의 핵심기기 메인 컨트롤 밸브는 2004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면서도 ‘ISO9001’과 R마크를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10%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 방식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 내 인건비가 급등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일한국인들의 본국 투자도 제조업을 탈피해 호텔·골프장 운영, 빌딩 임대 등으로 업종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IT²¹ 업종의 한국 진출이 시작되며, 한 번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제주도 출신

19 姜龍三·李京洙編(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泰光文化社, 1342쪽.

20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75-76쪽.

21 손정의(孫正義, 소프트뱅크) 회장은 소프트뱅크 코리아를 설립하여 IT 관련 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가네다 세이히(金田聖彬, 아인소프트)은 2009년 광주 지역의 온라인게임 개발·유통 사업 전문 회사에 향후 7년간 총 1억 달러(당시 환율로 1200억 원)를 투자했다.

표에서 보면 1977년 74사가 본국에 진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1995년 201사로 늘어났으며, 투자액은 3260억 엔에 달했다(<표 5-6>). 1997년 본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2004년에는 120사로 감소하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3년 시점에서 90사가 활동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거품경제의 붕괴와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단이 규약에서 일본 ‘거류(居留)’를 삭제하고 ‘정주(定住)’를 지향하게 되면서 본국에 대한 투자 이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 출신 1세의 사망과 고령화로 재일제주인 사회가 변화하면서 본국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희박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애향심이 아닌 채산성을 중시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표 5-6> 재일한국인의 지역별 투자 현황²²

(단위 : 사)

연도 지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	119	121	124	120	121	122	122	73	63	56
부산	12	12	14	14	14	14	14	8	8	8
대구	5	4	5	5	5	5	5	1	1	1

22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30年史』.

인천	6	6						2	2	2
경기	26	16	19	19	20	20	20	20	20	20
경남	16	16	17	16	16	16	16	15	15	14
경북	12	12	12	10	10	10	10	11	11	11
충남	3	3	4	4	4	4	4	3	3	3
충북		3	4	4	4	4	4	2	2	2
전남	1	1								
광주	1	1								
제주	8	8	6	6	6	6	6	1	1	1
기타			3	3	3	3	3	2	2	2
합계	201	203	208	201	203	204	204	138	128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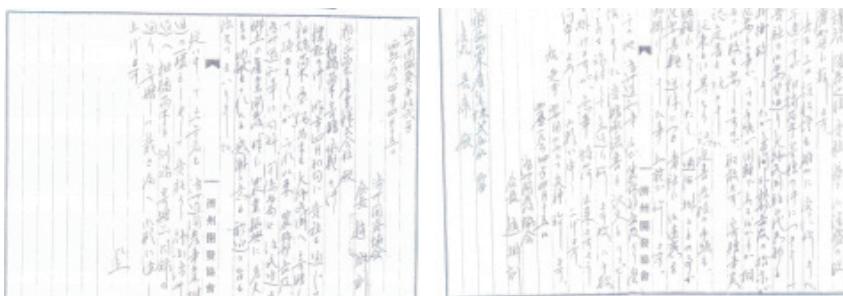
감귤 농업 진흥에 공헌

감귤 농업 기증

제주지역의 감귤²³은 1950년대까지 서귀포지역 일부 농가만이 감귤을 재배했기 때문에 총 재배 면적(생산량)이 1953년 17ha(6톤), 1960년대 64ha(190톤)에 불과하여 농가 소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에서 고향으로 감귤 묘목을 기증하면서, 이 흐름은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하게

23 1970대 무렵에는 감귤이 '대학나무'로 불릴 정도로 제주 경제에 크게 공헌했다. 당시에는 감귤의 가격(1968년 2,398원/10kg)이 좋아 감귤나무(생산량 60~70kg/성목 1주) 두어 그루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등록금 1970년 14,050~30,350원)에 충분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좋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2021), 『대학나무 감귤』, 13쪽.

되었다. 게다가 1960년 말에 정부가 감귤 생산 발전을 위한 시책을 내놓은 이후 온주 감귤 재배가 서귀포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확장됐고, 이를 계기로 제주도에서는 1965년부터 감귤 재배 붐이 일었다.²⁴ 이 무렵 재일제주인들은 재일제주인 관련 단체와 마을 단위 친목회를 통해 고향에 감귤 묘목을 기증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개발협회는 양질의 묘목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1967년 2만 9000그루의 묘목을 기증 알선했다.



감귤 묘목 기증 관련 서류(1964년)

표에서 보면 1965년부터 1969년까지 기증 묘목 및 수입 묘목과 재산 반입으로 들여온 묘목 수는 총 173만 3711그루로 나타났는데, 이듬해인 1970년에는 재일제주인 단체 등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기증하는 묘목이 급진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에 151만 9300그루를 들여와 식재하면서 오히려 수입 묘목은 감소하게 되었다(〈표 5-7〉). 당시 제주도는 1년에 100만 그루 이상의 묘목이 기증, 수입, 재산 반입 등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고, 이로 인해 기증 묘목에 대한 수입 지침을 강화하는 등 수입을 제한하게 되었다. 당시 감귤 묘목의 기증은 단순히 묘목의 수요와

2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2016), 『제주농촌진흥 60년사』, 128쪽.

공급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 제주도의 경제발전 방향과 재일제주인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0년 봄에 기증 및 수입 묘목으로 제주도에 공급할 묘목을 60만 그루으로 정했으나 실제는 160만 4300그루가 들어와 100만 그루 이상 초과된 묘목이 공급되기도 했다. 이후 기증되는 감귤 묘목은 양이 점차 감소하여 1979년을 끝으로 매듭을 짓게 되었다.

<표 5-7> 제주도 감귤 묘목 기증 및 수입 현황(1965~85년)²⁵

(단위 :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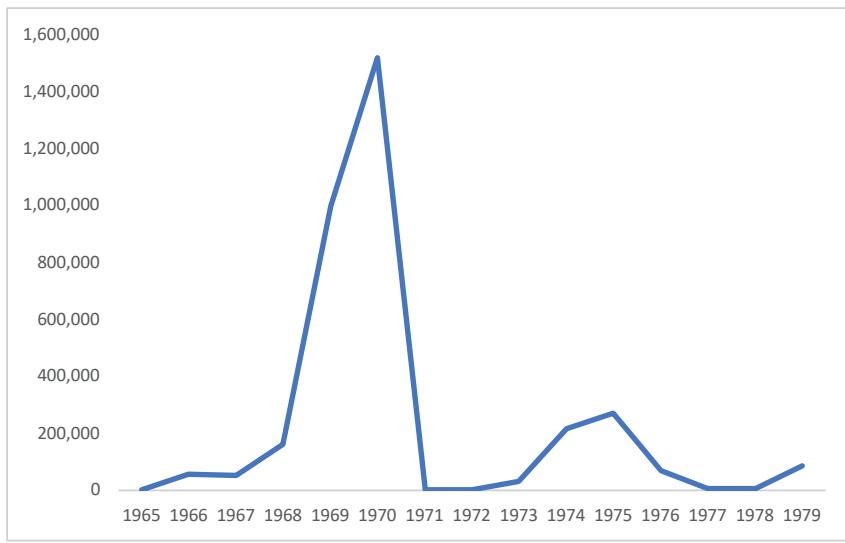
감귤 묘목 연도	기증 묘목	수입 묘목	재산 반입	합계
1965	1,000	25,349		26,349
1966	54,700	61,052		115,752
1967	52,100	250,205	1,675	303,980
1968	161,500	114,545	13,215	289,260
1969	998,370			998,370
1970	1,519,300	77,000	8,000	1,604,300
1971	1,000		1,000	2,000
1972				
1973	30,270			30,270
1974	215,450	33,283		248,733
1975	270,384			270,384
1976	66,402			66,402

25 제주도(2006), 『濟州道誌 第4卷』;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1977	2,684			2,684
1978	4,630			4,630
1979	85,934	200,000		285,934
1980				
1981		600		600
1982		4,866		4,866
1983		5,712		5,712
1984		1,500		1,500
1985		1,500		1,500
합계	3,470,254(81.3%)	774,112(18.1%)	23,890(0.6%)	4,268,256

〈표 5-7〉에 보면 재일제주인들은 고향 발전을 위해 감귤 묘목 보급을 추진했는데 이들이 보내온 감귤 묘목은 1965년부터 1985년까지 426만 8256그루에 달한다. 이 중에서 재일제주인들이 직접 기증한 묘목은 1965년부터 1979년까지 347만 254그루로 전체의 81.3%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에서 제주개발협회를 비롯하여 재일본제주도민회, 제주도친목회 등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²⁶

26 “‘사람’의 네트워크는 감귤 묘목 기증 이후에도 제주도에 감귤 신품종이 들어오고 방풍림이 조성되는 과정 등에서도 활용되었다. 그것은 재일제주인이 중심이 되어 바다를 가로질러 만든 감귤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다.” 최민경(2024), 『재일한인의 해역인문학』, 해피북미디어, 184쪽.



감귤 기증묘목 추이(1965-79년)

재일제주인의 감귤 묘목 기증은 1970년대 보리밭을 감귤원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결국에는 제주도 생업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감귤이 제주 마을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또 감귤 농장²⁷을 조성함으로써 노동력 창출(돈벌이)에도 공헌했음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경우는 마을과 학교에 감귤원을 조성하기 위해 감귤 묘목을 기증한 기록이 있으며, 이를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감귤 묘목 기증 외에도 재일제주인들은 기술 연수생을 선발해 일본에서 감귤 재배 기술을 배워오게 하는가 하면, 일본의 감귤 재배

27 “마을에 감귤 농장(대영농장)을 만들면서 묘목 분양, 기술 전수 등 감귤 농업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마을에 비해 빠르게 감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주민의 소득 창출에 공헌했다.” 이창진(80대, 회수마을) 2024년 11월 인터뷰

전문가를 제주도에 파견해 현지 지도에 나서는 등 감귤 농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²⁸

제주도 감귤 재배면적은 2020년 이후 감소하면서 생산 농가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량은 1980년 18만 7천톤에서 2000년 56만 3천톤, 2010년 56만 9천톤, 2020년 65만 5천톤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수입은 2000년 3708억 원, 2010년 6685억 원, 2020년 9500억 원, 2024년 1조 313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제주도민의 농가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표 5-8〉).

〈표 5-8〉 감귤 재배 현황²⁹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4년
재배면적(ha)	14,095	19,414	25,796	20,747	23,800	19,625
생산량(천톤)	187	493	563	569	655	541
농가수(호)	14,094	25,616	36,590	30,905	30,843	19,428
조수입(억원)	545	3151	3708	6685	9500	13,130



일본에서 들여온 감귤 묘목 검수와 수송 장면(1960년대)

28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2001), 『제주감귤농협 40년사』, 서울문화사, 514쪽.

29 농축산식품국(<http://www.jeju.go.kr>)

마을과 학교에 감귤 묘목 기증

재일제주인들은 1960년대 굴나무 식재 붐이 일면서 마을과 학교에 감귤 묘목을 기부했다. 재일제주인의 기증 실적 기록³⁰에 따르면 시기적으로는 1963년부터 1980년까지 기증하였는데 대부분 1970년대에 많이 나타났다. 마을과 학교별로는 마을(납읍리, 신엄리, 조천면, 성읍리, 세화2리, 성산리, 온평리)이 7건, 학교(위미초, 화산초, 안덕초, 하원초, 성산초, 예래초, 태흥초, 장전초, 남원중, 효돈초, 신흥초)가 20건이다. 종류별로는 총 956만여 원 중에서 현금이 694만여 원(10건), 현물이 262만여 원(17건)으로 개인이 25명, 단체와 친목회가 기증했다. 특히 관서예래친목회에서는 예래초에 감귤원 매입 기금으로 160여만 원을 회사했다. 기증 목적으로는 감귤 묘목(5,780그루)을 비롯하여 감귤원 조성 매입 기금, 감귤 관련 서적, 분무기 등으로 감귤 묘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5-9〉). 마을과 학교에서는 감귤원을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학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감귤원은 큰 역할을 했다. 일부 마을에서는 새마을 운동 사업용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거나 개인에게 기증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도가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감귤 농업이라 할 수 있다.

30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鄉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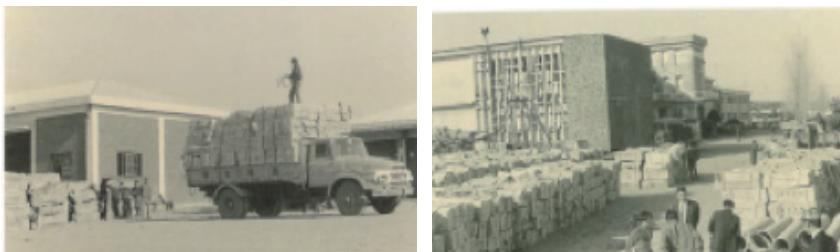
<표 5-9> 감귤 묘목 기증 현황³¹

(단위: 천 원, 그루, 권, 대)

연도	거주지	기증자	품목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1963	大坂市	진중팔	감귤 묘목	현물	300	2,000	납읍리민 배부
1966	東京都	정진량	감귤 묘목	현물	75	500	신엄리 호당 2그루씩 배부
1967	東京都	吳行鍾	감귤 묘목	현물	100	100	위미초등학교 묘목
1967	兵庫県	김계생	밀감 묘목	현물	2	50	위미초등학교 감귤원 조성
1969	大坂市	李炯伯	감귤 관계 서적	현물		1	조천면사무소 비품
1969	北海道	정찬기	도서	현물		1	화산초등학교 감귤 재배 도서
1969	日本	강문진	감귤 묘목	현물	60	200	안덕초등학교 감귤원 조성
1969	大坂市	高榮奉	감귤 묘목	현물	300	300	하원초등학교 감귤원 조성
1970	大坂市	고영봉	감귤 묘목	현물		300	하원초등학교 비품
1970	大坂市	김홍두	감귤 묘목	현물	60	300	성산초등학교 시설
1972	東大阪市	康泰重	200평	현금	4000		성읍리 공동 감귤원 조성
1973	大坂市	李昌允		현금	100		예내초등학교 감귤원 매입 기금
1973	関西地域	關西貌來親睦會		현금	1604		예래초등학교 감귤원 매입 기금
1973	大坂市	成南夏		현금	10		예래초등학교 감귤원 매입 기금
1973	大坂市	姜允中		현금	20		예내초등학교 감귤원 매입 기금
1973	大坂市	姜斗辰		현금	50		예래초등학교 감귤원 매입 기금

31 제1장 <표 1-1>과 동일.

1973	大坂市	高昇近		현금	20		예내초등학교 감귤원 매입 기금
1973	大坂市	鄭在雲		현금	384		예래초등학교 감귤원 매입 기금
1973	大坂市	鄭在雲		현금	500		예래초등학교 감귤원 매입 기금
1974	靜岡県	康民善外 11名	감귤 묘목/ 분무기	현금	250	620	세화2리 새마을사업용
1974	大坂市	高斗憲	감귤 묘목	현물	20	100	태흥초등학교 과수원 조성
1975	日本	강재휴	감귤 묘목	현물	10	10	장전초등학교 감귤원 조성
1975	東大坂市	康泰重	감귤 묘목	현물	100	500	성산리 공동 감귤원 조성
1975	大坂市	高斗憲	감귤 묘목	현물	30	100	남원중학교 자활용
1975	日本	고두현	감귤 묘목	현물	36	100	효돈초등학교 감귤원 조성
1975	大坂市	高文官	감귤 묘목	현물	30	100	신흥초등학교 자활용
1980	大坂市	金瑞鳳	감귤 묘목	현물	1500	500	온평리(강도생) 기증



방풍림과 밀감 신품종 기증, 도청 앞에 늘어선 밀감 묘목(1960년대)

도내 산업경제에 공헌

선일홍업(주) 제주공장

제주도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제조업 육성 시책에 힘 입어 유창산업, 선일(鮮一)홍업, 해태농수산, 한국해조분 등 비교적 큰 공장들이 세워졌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1964년 재일 제주도민단체(재일본제주도민회, 제주개발협회)의 초청으로 일본의 감귤 묘목 재배장, 햄 공장 겸 양돈장, 포도당 제조 공장 등을 답사하게 되었다. 그중 포도당 공장을 선택한 배경에는 쌀 대신 먹는 대체식량으로 취급받는 고구마를 포도당으로 가공하면 원재료보다 훨씬 비싸게 되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답사단은 고구마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현장을 목격하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한다. 4년 후인 1968년 11월 제주도에는 고구마를 주원료로 한 포도당 생산 공장이 들어섰다.³²

선일홍업(주)³³ 제주공장(대표자 박상만)은 1968년 서귀포에 8억 6000만 원을 들여 설립한 공장이다. 생고구마 10만 2천톤을 처리하고, 포도당 1만 1500톤을 생산함으로써 외화 110만 달러를 절약하여 연간 5만 2,800여 명의 고용 증대 효과와 농가 소득이 5억 4000만 원이 늘어난다고 했다. 1972년에는 고구마 전문업으로 종업원 13명이

32 부만근(2012), 『제주지역개발사』, 제주발전연구원, 171-172쪽.

33 이 공장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4년 4월 대한합성당공업(주) 설립, 1964년 11월 대한당업(주) 상호변경, 1965년 3월 선일홍업(주) 상호변경, 1968년 11월 제주공장 준공, 1969년 8월 선일포도당공업(주) 상호변경, 1969년 10월 선일포도당(주) 상호변경, 1976년 1월 인천공장 준공, 1985년 1월 삼양사 인수, 1995년 8월 삼양제넥스로 상호 변경하였다.

종사하였다. 한때 이 공장은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관점에 역점을 두어 제주도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제주도산 고구마 처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가동된 지 얼마 안 되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공장은 고구마가 아니라 옥수수나 밀가루를 주원료로 사용했고, 더욱이 제주도에 제분 공장이 없어 부산에서 밀가루를 조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동률과 수익성이 크게 부진하여 1974년 휴업하게 되면서 1975년 선일 포도당 공장을 인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는 서귀포시가 옛 선일 포도당 공장 및 천지연 인근 지역을 친환경 생태 공원(걸매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주정(酒精)공장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지사는 고구마를 원료 삼아 주정을 생산하고자 고구마가 많이 나는 제주도에 주정 공장을 설립하기로 확정하여, 1940년부터 시설을 건립했다. 제주주정공장(Jeju Plant of Absolute Alcohol)³⁴은 1940년 제주항 근처 약 4만 3,685m² 부지에 약 7,580m² 규모로 착공하여 1943년 완공한 주정 제조 공장이다. 이 공장은 1943년 말부터 항공기 연료인 아세톤·부탄을 발효(acetone-butanol

34 고봉만은 이 공장이 남한에서 제일가는 주정 공장이며 굴뚝이 50m나 되어 한라산에 올라 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주정 공장 굴뚝이었다고 한다. 건입동 작은 마을 속 여기저기 공장이 많아 그런대로 벌어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일손이 모자라서 거기 가서 일하면 일당을 주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고구마, 감자를 수확하면 주정 공장의 주원료인 고구마를 공출한 뒤에 자기 먹을 것 버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회고하였다. <http://blog.daum.net/2009.1.19>.

fermentation) 등 화학 원료를 생산하여 일본군 병참 본부에 항공 원료로 납품했다. 1944년 말에는 주정(94%)을 생산하여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의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였다. 결국, 제주지사에서는 일본 전역에 주정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동양 제일 규모의 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공장은 공장 부지 1만 4,000여 평, 주정 생산 능력 1494만L, 고구마 5000만관(절간 환산 1500만관), 보일러 3대, 무연탄 연간 4만 2,000톤, 매일 1,400kw 전력을 생산하여 제주시 내에 공급하였다.³⁵ 또 이 공장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제주도민들에게 고구마 절간(切干)을 공출하여 농민들을 힘들게 했다. 이 공장에서는 종업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산지 항구를 통하여 화물의 약 80%(7만여 톤)을 입·출하였는데 하역비, 선박운임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제주주정공장(1951년 10월)³⁶

1945년 해방 이후 제주주정공장은 군정청(軍政廳)에서 신한공사(新韓公社)를 발족하여 관리하다가 1946년 3월 신한공사가

35 건입동마을회(2008), 『健入洞誌』, 150-152쪽.

36 이 사진은 김민호(60대,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다.

해체된 이후 미군정 상공부로 이관되었다. 1951년 1월 동 공장은 이종열(李鍾烈)에게 불하된 이후 동년 제주주정공업회사로 창립하여 가동되었으나 운영 부실로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다. 1970년 은행 부채와 사채로 인해 공장을 재일제주인 기업가(백창호)에게 4억 3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백창호는 절간 고구마와 당밀로 주정을 생산하기도 하였는데, 원료 구입에 차질이 빚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1972년에는 자금난에 봉착하여 은행 부채(2억 2000만 원)와 사채(2억 1000만 원) 상환이 힘들게 되었다.

당시 자본금은 주당 500원(12만 3,400주)으로 6170만 원이었고, 부동산 자산은 5억 5400만 원에 달했다. 1973년 제주주정공장은 경매 끝에 2억 5150만 원에 천마물산(天馬物產) 김봉근(金鳳根)에게 넘어갔다. 천마물산은 1973년 10월 주정 공장을 서울에 있는 진로주조에 3년간 임대하였지만, 오페수 처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 및 원료 구입 문제로 인해 조업이 자주 중단되었다. 결국, 천마물산은 1983년 조업이 완전 중단됨에 따라 1989년 공장의 상징인 굴뚝이 해체되었고 1993년 공장 대지에 3,293㎡ 규모의 창고를 건립했으며, 고구마 저장 창고 부지에는 아파트를 건립하였다.³⁷



해체 전후 제주주정공장 모습(1943년과 1989년)

37 <http://news.jeju.go.kr>

금융업에 공헌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 제주도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지역 자본 동원과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9년 제주은행이 설립되었다.

김봉학(金鳳鶴, 天馬合成樹脂)³⁸은 1969년 자본금 2억 원 규모로 (주)제주은행을 창립하고, 이후 1974년 제주상호신용금고³⁹를 설립하는 등 제주지역 서민 금융기관의 베풀목 역할을 했다. 1972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으며, 1973년에는 제일은행 서귀포지점을 인수했고, 1983년 일본 천마합성수지(주)와 합작 투자(joint venture)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은행은 지방 은행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1997년 말 46개 지점을 두었다. 같은 해 총 자본금이 500억 원, 총 예금이 1조 2641억 원, 총 대출은 1조 21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 위기에 따른 IMF 체제 이후 은행권 구조 조정과 함께 부실 여신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된다.⁴⁰

38 재일기업가 김봉학(金鳳鶴)은 도쿄에서 天馬合成樹脂(주)를 경영하면서 자본을 형성하여 1990년 4,228백만 엔, 1991년 4,462백만 엔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1,121 순위를 차지하였다.

39 (주)제주상호신용금고는 1968년 3도 2동에 설립된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제2금융기관이다. 1972년 8·3 사채동결 조치 후 사설 금융기관의 정비로 도내 인가업체는 한때 14개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소수의 상호신용금고만 존속하고 있다.

40 제주은행은 구조 조정 노력이 가속화되어 1997년 말 기준으로 정규직 인원을 감원했으며, 영업점 축소(46개에서 34개로), 임직원의 임금 동결 및 삭감 조치가 뒤따랐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에 힘입어 도민주(株)(420억 원)를 포함하여 1·2차 유상증자를 통해 950억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1200억 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도민주 공모의 경우 재외 도민 50명을 포함하여 9220명으로부터 420억 원(주당 5000원)

정부의 금융 구조 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미흡하여 2000년 12월 신한은행이 제주은행을 위탁 경영한 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 자금을 제주은행에 투입하였으나 2002년 5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제주 지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은행으로서 이미지를 지켜나가고 있다.

제주도 내 금융업은 1997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도내 토착 자본으로 설립된 제주은행은 지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게다가 김봉학은 천마물산(金鳳根)⁴¹, 천마목장, 천마학원, 퍼시픽랜드 등을 운영하여 제주 경제와 교육,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주)제주은행 개점 기념식 장면 (주)제주상호신용금고 초창기 사옥 모습

을 유치하게 되었다.

41 천마물산(주)은 1996년 설립된 제주도의 토착기업으로서 LPG, 유류 판매업을 하며, 연간 4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도내 최고의 에너지 기업이다. 제주도내 LPG 시장 점유율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최근 LPG 물류센터 및 충전소를 추가로 개점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관광업에 공헌

지금까지 공식·비공식 자료를 통해 파악된 재일제주인의 관광업⁴²에 대한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³

우선, 김평진(金坪珍, 金海商社)⁴⁴은 1963년 제주도에 외국인이 투숙할 만한 호텔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약 3000만 원으로 현대식 시설(건평 2,890m²)을 갖춘 제주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관광호텔)을 지었다. 이후 1964년 서귀포에 허니문하우스(현 파라다이스호텔)와 서귀포관광호텔을 연이어 건립해 제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투자는 재일교포 재산 반입의 동기가 되었으며 제주 출신 한인들에게 애향심을 불어넣는 가교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이왈옥(李曰玉, 東京協和고무工場·東京山新興業)은 1979년 10월 고향으로 돌아와 제주팔레스개발(주) 설립, 1988년 관광1급 호텔인 제주팔레스관광호텔 건립에 이어 1999년 제주하와이관광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백창호(白昌鎬, 愛三産業·白河産業)⁴⁵는 1986년

42 현재 제주지역 관광산업은 1970년대 연평균 9.8%, 1980년대 연평균 16.5%로 성장한 후 2000년대 후반 빠르게 증가하다 2017년 사드 사태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환경 악화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광 수입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4319 억 원, 2000년대 1조 4975억 원, 2013년 6조 546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6조 3402억 원에 이르렀다.

43 재일제주인들이 제주지역에 투자한 호텔로는 1988년 오리엔탈호텔, 1991년 금자탑라곤 다호텔, 1982년 로얄호텔, 1969년 서귀포한라호텔(이후 서귀포라이온스호텔) 등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료 확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라일보사 (2004), 『濟州觀光半世紀』, 288, 292.

44 재일기업가 김평진(金坪珍)은 도쿄에서 金海商社(주)를 경영하여 자본을 형성하여, 1990년 1억 7100만 엔, 1991년 3억 6100만 엔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13,842 순위를 차지하였다.

45 재일기업가 백창호(白昌鎬)는 도쿄에서 愛三産業(주)을 경영하면서 자본을 형성하여 1990

제주컨트리클럽을 설립하여 고향 발전에 이바지했고, 김홍주(金弘周, 本家かまどや)는 1999년 안덕면 상천리에 29홀 규모 펍크스 CC(골프클럽)를 개장하여 세계 100대 골프 코스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투자 성공은 이전까지 고향 제주에 투자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상당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재일한국인 사회가 고향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자본 조성을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제주인 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주도는 1997년 8월 160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컨벤션센터(ICC Jeju)를 건립하였다. 총 출자액 1600억 원에 주주가 4129명인 1CC의 주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57.02%, 한국관광공사가 17.42%, 그리고 도민과 기업체 등 민간 주주가 25.56%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재일제주인 주주 55명이 77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컨벤션센터 설립에 기여하는 등 제주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제주컨벤션센터는 2004년 결산 결과 71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매출액도 당초 목표액의 54% 수준인 9억 7300여만 원에 머물면서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⁴⁶

이 현상은 제주컨벤션센터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민과의 혼선

년 94백만 엔, 1991년 64백만 엔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74,089 순위를 차지하였다.

46 2012년 제주컨벤션센터 부지에 호텔을 지은 부영주택이 57억 원을 들여 재일동포 200명의 주식을 대신 사들였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2020년 ICC-JEJU의 개인 주주 3841명이 보유한 136만 2369주를 액면가 5000원에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3년까지 37억여 원을 들여 주주 1254명으로부터 76만 8000주를 매입했다. 제주도는 2024년 1만 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3350주를 사들였다. 《뉴스1》 2024년 4월 24일

등으로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 그리고 그동안 제주도가 재일제주인의 동정심과 애향심에서 비롯한 투자나 기증에만 의존했던 것이 얹힌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표지석

제6장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

지역별·기관별 기증

1970년대 이후 재일제주인들은 1977년 제주신문사에 기여하여 언론의 발전과 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1984년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애향운동장과 연정정구장을 건립하였다. 또 그림과 서예 작품 등의 전시와 예술 전문 공연 무대로 서귀포시에 1987년 기당미술관과 2004년 김정문화회관을 세워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에 대한 기증 실적은 총 27억 8039만 원(780건)으로 이중 제주특별자치도가 14억 4308만 원(322건), 제주시(읍면동)가 2억 639만 원(206건), 서귀포시(읍면동)가 11억 3092만 원(252건)으로 나타났다(<표 6-1>).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기증 금액과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귀포시도 제주시보다 금액(건수) 면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증 기관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도청, 제주대학교, 제주도체육회, 한국예총 제주도지부를 중심으로 많은 기증이 이루어졌다. 읍·면·동 중에서 제주시는 한림읍, 구좌읍, 서귀포시는

표선면, 성산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증 금액(건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인 친목회, 향우회 등이 다른 지역의 그것에 비해 활성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증 내용을 용도별로 보면 문화예술과 도서보다 체육 시설에 기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과 체육은 지역 주민의 지원과 더불어 재일제주인의 지원 등으로 그 기반을 이루었기에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이들이 지원한 내용으로는 문화시설(비품, 기념 식수, 문화회관 건립, 읍·면·동 문화시설 및 사업, 한라문화제 성금 등), 도서(도서 및 도서함, 감귤 서적 등), 언론사(도내 방송·신문사 비품 등), 체육시설(풀장 시설 기금, 체육진흥 기금, 체육회 성금, 체육 기구 구입,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 기념 식수 및 사업 성금, 격려금,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 및 찬조금, 체육관 신축 기금, 월드컵경기장 건립 성금 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제주도민의 문화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재일제주인의 뜨거운 애향심은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관심과 지원으로 전개되었다. 한라문화제, 전도 체육대회, 역전 경주대회 등에 참여하는 한편 모충사 건립과 삼무정 건립, 방위성금 모연 등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했다.

따라서 고향 마을 제주도를 정신적 지주로 여긴 재일제주인은 제주 지역의 문화(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 언론사 등)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표 6-1> 문화예술과 체육 기증 현황¹

(단위 : 천 원, 건)

구분	문화		도서		체육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제주특별자치도	19,620	47	142,376	53	1,281,087	222	1,443,083	322
제주시	15,000	1	39,700	17	10,600	3	65,300	21
제주시 서부	24,133	67	6,275	8	9,191	20	39,599	95
제주시 동부	29,901	51	56,170	29	15,415	10	101,486	90
서귀포시	64,500	24	51,500	7	187,642	77	303,642	108
서귀포시 서부	333,811	25	10,930	5	250	6	344,991	36
서귀포시 동부	22,525	45	12,065	5	447,696	58	482,286	108
합계	509,490	260	319,016	124	1,951,881	396	2,780,388	780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

제주의 문화예술은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성장하였다. 제주 문화는 척박한 환경과 싸우는 생활 속에서 해녀의 어로를 주축으로 하는 생업과 생활의 애환을 노래한 민요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²

문화 발전에 대한 기증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증 실적은 총 5억 949만 원(260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962만 원(47건), 제주시가

제6장은 필자가 2025년 발표한 논문에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재정리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고광명(2015),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日本近代學研究』50, 韓國日本近代學會, 479~499쪽.

1 제1장 <표 1-1>과 동일.

2 제주문화예술60년사 편찬위원회(2008), 『제주문화예술60년사·3』, 185쪽.

6903만 원(119건), 서귀포시가 4억 2084만 원(94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금(4억 4436만 원, 126건)이 현물(6513만 원 상당, 134건)보다 많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보다 금액 면에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6-2>).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개인 기부를 포함하여 현물(영사기, 대형 벽시계 등)보다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한라문화제 성금 등 인적 네트워크(친목회 등)를 통해 기증이 이루어졌다. 제주시는 현물(앰프, 스피커, 라디오, TV, 영사기, 녹음기 등)과 현금으로 문화 관련 용품 등에 기증하였다. 서귀포시는 현물(앰프, TV, 오르간, 스피커, 벽시계 등)보다 현금 기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1978년 법환리 문화시설(150만 원)과 기당미술관, 김정문화회관 등에 기증하였다. 이렇게 세 지역에서는 모두 현물보다 현금 지원이 많게 나타났다.

<표 6-2> 문화예술 기증 현황³

(단위 : 천 원, 건)

구분	현금		현물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수량
제주특별자치도	19,620	47			19,620	47	
제주시			15,000	1	15,000	1	1
제주시 서부	9,420	16	14,713	51	24,133	67	144
제주시 동부	16,286	15	13,615	36	29,901	51	115
서귀포시	64,500	24			64,500	24	

3 제1장 <표 1-1>과 동일.

서귀포시 서부	324,155	9	9,656	16	333,811	25	25
서귀포시 동부	10,380	15	12,145	30	22,525	45	35
합계	444,361	126	65,129	134	509,490	260	320



제주시민회관 무대 장치(1964년 김봉학 기증)

서귀포시립 기당미술관⁴

기당미술관은 기당(奇堂) 강구범(康龜範)이 고향인 서귀포시에서 1987년 7월 개관하여 기증했다. 이 미술관은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되어 개관한 시립미술관으로 대지 5,092m²와 면적 1,160m² 건물로 조성되어 있다.⁵ 서귀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오름과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기당미술관은 예술을 향유는 문화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⁴ culture.seogwipo.go.kr/gidang

⁵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2016), 『2016·서귀포시 문예연감』, 192쪽. 증여자 강구범은 1986년 10월 증여 공증, 1987년 7월 개관, 199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하였다.



기당미술관 기증자 흉상과 전경

김정문화회관⁶

김정문화회관은 서귀포시 토평동 출신 재일교포 김정(金貞) 여사가 서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003년 10월에 20억 원을 들여 건립하여 같은 해 12월 기부한 공연장(연면적 1,636m², 무대 면적 216m²)이다.⁷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김정문화회관은 서귀포 지역 최초의 전문 공연 시설로 지역 예술 공연의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정 여사는 1978년 성산읍 삼달리 새마을회관 건립비 200만 원과 삼달초 부지 500평을 기부한 공로까지 인정받아 2006년에 김만덕상 경제인상 부문을 수상했다.⁸

김정문화회관은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제주빌레양상블의 ‘재일제주인을 노래하다’ 공연을 개최했다.⁹ 또한 서귀포시는 2025년 기부자의 뜻을 다시 새기고 그에 대한 감사의

6 culture.seogwipo.go.kr/kimjeong

7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2016), 앞의 자료, 194쪽.

8 www.jejuinnews.co.kr

9 culture.seogwipo.go.kr/kimjeong

마음을 전하는 기부 예우 사업으로 서귀포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공연 시리즈를 기획하여 개최했다.



김정문화회관 기증자 흉상과 전경

도서 기증에 공헌

도서 기증 내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증 실적은 총 3억 1902만 원(124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억 4238만 원(53건), 제주시(읍면동)가 1억 215만 원(54건), 서귀포시(읍면동)가 7450만 원(17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물(1억 6672만 원 상당, 81건)이 현금(1억 5230만 원, 43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6-3>). 지역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 기증 금액 면에서 약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6-3> 도서 기증 현황¹⁰

(단위 : 천 원, 건)

구분	현금		현물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수량
제주특별자치도	23,300	4	119,076	49	142,376	53	8,957
제주시	39,700	17			39,700	17	
제주시 서부	5,265	6	1,010	2	6,275	8	1
제주시 동부	11,600	2	44,570	27	56,170	29	5,752
서귀포시	51,500	7			51,500	7	
서귀포시 서부	10,930	5			10,930	5	
서귀포시 동부	10,005	2	2,060	3	12,065	5	300
합계	152,300	43	166,716	81	319,016	124	15,010

도서 기증-우당도서관

오찬익은 1993년부터 고향에 책 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우당도서관에 3000여 권을 기증했다. 재일본한국조선인민주통일연맹은 1993년 일본 통일연맹 사무실에서 재일제주인들이 모은 성금을 우당도서관 김용식 관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¹¹

이 외에도 1988년 일본 고마츠시마(小松島)라이온즈클럽(회장 船越良一)이 도서비 10만 엔, 1989년 김재천이 도서 구입 700만 원, 1990년 재일제주도친목회가 도서 성금, 1991년 일본 고마츠시마라이온즈클럽이 10만 엔, 1991년 재일본탐라연구회가

10 제1장 <표 1-1>과 동일.

11 제주시우당도서관(2014), 『우당도서관 30년사』, 78쪽.

도서, 1992년 청구(青丘) 등이 도서 30권, 1993년 재일동포 이동훈이 도서 구입 1000만 원, 1993년 송재용이 도서 464권, 1993년 본도 출신 재일동포들이 고향에 책 보내기 운동 전개, 재일동포 송재용이 1993년과 1994년에 연이어 제주시에 도서 554권, 1994년 재일한라문화진흥회가 도서 881권, 2007년 강건영 박사 등 도서를 기증한 기록이 제주일보, 제주신문, 한라일보, 제민일보 등의 기사로 남아 있다(<표 6-4>).¹²

<표 6-4> 우당도서관 장서 기증자 명단¹³

기증 기간	횟수	기증 자료	기증자	거주지
1985-1986	6회	도서 783권 도서 성금 766,600엔	고창종	도쿄도
1988-2008	7회	도서 4,195권	김민석	가나가와현
1989	2회	도서 2,221권	김재천	오사카
1993	1회	도서 1,140권 (성금 1000만 원 상당)	이동훈	도쿄도
1993-1994	6회	도서 3,472권	송재용 (재일본한국조선인 민주통일연맹 의장)	
1993-1994	3회	도서 1,905권	김원봉 (재일본한국조선인 민주통일연맹 부의장)	
2001	1회	2,000권 일본 및 국내 자료 기증	김경호 등 34인	

12 제주시우당도서관(2014), 앞의 자료, 253-261쪽.

13 제주시우당도서관(2014), 앞의 자료, 77-79쪽.

2002-2003	2회	도서 성금 기탁 2회 (2002년 50만 엔, 2003년 50만 엔)	오찬익	도쿄도
2006-2007	4회	일본 및 국내 미술 자료 등 (일반도서, 풍속화, 기타)	강건영 (조천 출신 의학박사)	오사카



우당도서관 기증 도서 팻말 및 명판

도서 기증-제주대학교 도서관

제주대학교에 대한 도서 기증은 1971년 2월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가 139권을 기증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1974년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재일제주청년회 문고’를 설치했다.¹⁴ 지금까지 기증된 도서는 6,594권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640만 엔에 달한다. 그리고 도민협회의 OB 그룹(50명)과 현역 회원(14명)은 2012년 제주대학교 도서 기증 40주년을 기념하여 각각 76만 엔, 18만 3000엔, 도서 기금(60만엔)과 복지 기금(34만 3000엔)으로 94만 3000엔을 기부하였다(表 6-5).¹⁵ 최근 제주대학교

14 2025년 10월 24일 현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대학교 도서관에는 1974년 설치되었던 ‘재일제주청년회 문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関西濟州特別自治道民協会青年会(2012), 『濟州大学図書寄贈 40周年記念誌』, 28-29쪽.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명이 도서 명목으로 2억 932만 원을 기부하였는데 이 중에 2012년 재일제주인센터에 1억 5539만 원 상당을 기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⁶

이처럼 재일제주청년회¹⁷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제주도를 찾아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거나 취약 계층 단체와 제주도청에 비품과 복지 기금 등을 전달했다. 고향 출신들은 ‘모국은 한국, 고향은 제주도’라고 인식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도서 기증으로 제주도에 공헌했다.

<표 6-5> 제주대학교 도서 기증 기록¹⁸

(단위 : 권, 엔)

연도	권수	비고	연도	금액	비고
1971	139, 178		1993	1,011,888	
1974	204	제주양로원 컬러TV	1994	690,000	
1975	226		1995	560,000	
1976	252		1996	540,000	
1977	243	삼륜차·그네	1997	기록 없음	
1978	141		1998	기록 없음	
1979	275		1999	660,000	

16 2025년 제주대학교 도서 기증 내역(2025년 10월 14일)

17 도서 외에도 재일제주청년회는 1974년 제주양로원에 컬러TV, 1977년 제주고아원에 삼륜차·그네 등, 1981년 도청·군청·11개 읍·면에 냉온수기, 제주맹아학교에 타악기, 1982년 제주고아원에 컬러TV, 1983년 원딴섬(孤島) 학교 운동 기구, 1985년 태풍 위문금, 1986년 신체장애인 시설(희망원)에 컬러TV와 냉장고 등을 기증했으며, 2002년과 2003년 64만 엔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29만 3000엔을 제주도청 복지 기금으로 기증했다.

18 関西済州特別自治道民協会青年会(2012), 앞의 자료, 28-29쪽.

1980	269		2000	530,000	
1981	289	냉온수기, 타악기	2001	1,070,000	
1982	284	컬러TV	2002	320,000	복지 기금(30만 엔)
1983	325	학교 운동 기구	2003	344,000	복지 기금(34만 4천 엔)
1984	295		2004	720,000	
1985	326	태풍 위로금 전달	2005	655,000	
1986	246	컬러TV와 냉장고	2006	330,000	복지 기금(30만 엔)
1987	254		2007	325,000	복지 기금(32만 엔)
1988	183		2008	400,000	복지 기금(73만 엔)
1989	231		2009	415,000	복지 기금(30만 엔)
1990	191		2010	339,000	복지 기금(30만 엔)
1991	104		2011	600,000	복지 기금(34만 3000엔)
1992	197				

체육 발전에 공헌

체육 발전을 위한 기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증 실적은 총 19억 5188만 원(396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2억 8109만 원(222건), 제주시가 3521만 원(33건), 서귀포시가 6억 3559만 원(141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금(19억 621만 원, 384건)이 현물(4567만 원 상당, 12건)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 기증 금액(건수) 면에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개인 기부를 포함하여 현물(체육 용구 등)보다 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식수 등을 인적 네트워크(친목회 등)를 통해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체육회에 가장 많이 기부한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11억 8987만 원)을 비롯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관련 사업(3500만 원) 등에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는 현물(체육복, 축구공, 배구공 등)보다 현금 기부가 많았는데, 주로 체육 용품, 체육 진흥 등을 위해 기증하였다. 1978년 구좌읍 체육 향상 기금(1000만 원)을 비롯하여 1980년 연동 체육 진흥(300만 원), 1990년 제주시 체육회 기금(1000만 원) 등이다. 서귀포시에는 현물(체육 용품 등)보다 현금 기부가 많았는데, 주로 체육 시설, 체육 발전 등을 위해 기증하였다. 1982년 서귀포시 체육 기금(225만 원)을 시작으로 1996년 표선면 체육관 건립·신축 기금(4억 1363만 원)¹⁹, 1997년 성산읍 체육관 건립 기금(2150만 원), 1999~2002년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1억 9564만 원) 등이다.

체육 발전을 위한 기증 활동은 마을 단위 친목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 현상과 더불어 사회적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이후 모국 방문의 길이 열리면서 고향의 문화 발전에 대한 열의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 표선면 생활체육관 건립 시 송윤관 씨는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하천리 출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마을 발전에 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강덕립(80대, 하천리) 2023년 10월 인터뷰

<6-6> 체육 발전 기증 현황²⁰

(단위 : 천 원, 건)

구분	현금		현물		전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수량
제주특별자치도	1,240,870	220	40,217	2	1,281,087	222	2
제주시	10,500	2	100	1	10,600	3	20
제주시 서부	4,385	15	4,806	5	9,191	20	20
제주시 동부	15,195	8	220	2	15,415	10	5
서귀포시	187,642	77			187,642	77	
서귀포시 서부	250	6			250	6	
서귀포시 동부	447,371	56	325	2	447,696	58	6
합계	1,906,213	384	45,668	12	1,951,881	396	53

성금으로 지은 체육 시설

제주도 태권도회관 개관

재일한국인 사회에도 1963년 재일본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되어 같은 해 재일본 대한태권도협회 일본 지부를 설치하고 각 지방에 지방본부를 두었다. 1963년 9월에는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재일동포 태권도 선수단이 제주를 찾아 제주시민회관에서 제주도 대표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를 계기로 재일동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도 태권도 선수단 중 우수 선수를 일본으로

20 제1장 <표 1-1>과 동일.

초청해 기량을 키우도록 하였다.²¹

당시 제주도에는 체육 시설이 열악해 실외에서 훈련해야 하는 실정으로, 우천 시에는 훈련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²²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도 출신들은 1978년 5월 백위개(白衛介) 등 재일동포 100인의 도움으로 기금을 모아 제주시 용담동에 제주도태권도회관(대지 72평, 연건평 94평)을 지어 제주태권도협회에 기증함으로써 고향 제주의 태권도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²³ 제주도태권도회관에는 회관 건립에 도움을 준 홍성인(洪性仁)²⁴, 백위개(白衛介), 박영철(朴英哲) 등 100명의 이름을 기록한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제주도태권도회관 전경 및 내부 사무실(1978년)

21 洪性仁(2015), 『洪性仁 나의 투쟁 60년 재일 韓國民團 護衛武士, 태극 깃발을 일본 하늘에』, 디자인 오투출판, 36-40쪽.

22 재일동포 김봉조는 1971년 제주시 용담1동 서문 다리 북쪽에 현대식 체육관인 금산체육관을 준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2006), 『제주태권도 50년사』, 59쪽, 119쪽.

23 濟州道體育會(2001), 『濟州道體育會 五十年史』, 332쪽.

24 홍성인(전 재일대한태권도협회장)은 재일동포 기금을 모아 1978년 제주도 태권도회관을 건립하였으며,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제주도가 태권도 종합 2위를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濟州道體育會(1991), 『濟州道體育史』, 759쪽.

연정정구장 건립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제주 유치가 확정되면서 제주시 연동 출신 재일동포 연정(蓮淀) 김치부(金致富)가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조명 시설까지 갖춘 8면 코트의 연정정구장이 세워져 제주 정구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²⁵ 연정정구장 건립 이후 제주도정구연맹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연정기 정구대회를 추진하던 중 김치부가 다시 3000만 원을 연맹 육성 기금으로 기탁하였고, 그 덕분에 1990년부터 연정기 전도 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²⁶



연정정구장 기증자 흉상과 코트

전국소년체전 개최와 애향운동장 조성

제13회 전국소년체전은 1984년 5월 ‘푸른 꿈, 뻗는 힘, 빛나는 내일’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치러졌다. 당시

25 濟州道體育會(1991), 앞의 자료, 142쪽.

26 濟州道體育會(2001), 앞의 자료, 196쪽.

제주체육진흥회는 재정 마련을 위해 이사(30명, 1억 원), 도내 유수 기업체와 본도 출신 재일동포, 도민의 자발적인 성금 모연(募緣)을 이끌었다.

1983년 7월에는 제주종합경기장 기공식을 개최하고, 총 52억 원을 들여 이듬해 5월 완공했다. 제주종합경기장은 주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수영장, 한라체육관, 연정정구장과 애향운동장, 보조경기장 등을 체육 기금으로 조성하여 현대식 체육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²⁷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들은 재일제주개발협회가 3억 원, 재일제주도민 오사카지역후원회가 8억 2300만 원 등의 체육 성금을 모연하였다. 그리고 오사카에 있는 관서제주도민협회는 개인(84명)과 단체(7개)가 애향운동장 조성금으로 총 7억 8537만 원(개인 7억 5500만 원, 단체 3037만 원)을 모연하였다. 이 외에도 재일동포 출신들은 제주도체육회 발전을 위해 1981년 김창만((주)백로산업 회장) 200만 원, 1982년 김창만 500만 원, 고하윤(재일제주개발협회 이사) 50만 원, 1983년 김봉학(제주은행장) 1000만 원, 1984년 김봉학 2000만 원 등의 기금을 기탁했다.²⁸ 일부 선수는 1981년과 1990년 사이에 사격, 태권도, 육상, 수영, 근대5종 등의 종목에서 재일제주인이 설립한 춘원장학회(20명)와 삼려장학회(2명)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기도 했다.²⁹

당시 전국소년체육대회 후원회를 통해 조성된 체육 성금은 총 15억

27 濟州道體育會(2001), 앞의 자료, 75쪽.

28 濟州道體育會(2001), 앞의 자료, 322-323쪽.

29 濟州道體育會(1991), 앞의 자료, 753-754쪽.

2600여만 원(미수금 2억 3300만 원 포함)을 체육회에 전달됐다. 제주도 체육은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계기로 도약과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³⁰



전국소년체전 상징탑과 성금 기탁자

애향(愛鄉)운동장은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당시 재일제주인 1세대가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한 기금을 통해 조성했다. 1984년 당시 기탁자는 91건(개인 84명, 단체 7개)으로 성금은 총 8억 537만 원이다. 재일제주인 1세대는 타국에서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애향 정신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기여했는데, 이것이 고향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재일제주인들의 소중한 마음이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운동장 및 주변 공간을 도민의 상시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일제주인의 애향 정신을 접목한 새로운 체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모두가 향유할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30 濟州道體育會(2001), 앞의 자료, 116-117쪽.



애향운동장 표지석과 전경

애향의 불꽃,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FIFA 월드컵을 위해 서귀포시 법화동에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형상화해 만든 축구 전용 경기장(4만 2,256명 수용)이다.³¹ 건설 비용은 1125억 원으로 도비 345억, 체육 진흥기금 285억, 시비 495억 원이 투입되었다. 제주도민들은 2002년 FIFA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 조성 모금 운동을 추진하여 12억 1100만 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장을 조성하는 데 큰 용기와 힘을 얻어 역사적 대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³²

이처럼 제주월드컵경기장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져 세계인의 사랑과 찬사를 받게 된 것은 시민 정신과 애향심으로 영광의 새 역사를

3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202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70년사』, 195쪽.

32 나무위키(namu.wiki)

창조하려는 도민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신적 공헌은 참으로 값진 것이어서 제주월드컵경기장 개장에 즈음하여 그 송고한 뜻과 이름을 매표소 옆에 새겨 영원히 기리고 있다.

성금 기탁자 표지판에는 개인 303명과 단체 323개가 모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성금에 동참한 일본 거주 제주도 출신으로는 개인(74명)과 단체(3건) 77건으로 성금 총 12억 원 중 1억 9764만여 원을 조성하였다. 단체는 도쿄법환친목회(3건) 외에 재일제주부인회, 도쿄 카츠시카(葛飾)구 한일친선협회, 일본 카라츠(唐津)시 등이 각각 100만 원 이상을 기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³³



제주월드컵경기장 전경과 성금 기탁자

33 제주월드컵경기장 성금 기탁자 표지판에는 12억 원(개인 303명, 단체 323개)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귀포시의 기록에는 12억 1100만 원(개인 305명, 단체 322개)으로 파악되었다.

제7장

재일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

재일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

주일(駐日)한국공관과 민단(民團)에 공헌

주일대한민국공관 건립

일본에 대한민국 공관이 처음 생긴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다음 해인 1949년이다. 이 시기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쿄에 주일대표부를 설치하고, 오사카와 후쿠오카에 사무소를 발족했다. 그리고 1965년 한일수교 다음 해인 1966년 일본 각지에 본격적으로 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들어섰다.

현재 일본에는 도쿄의 주일대사관 외에 9개의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홋카이도, 도호쿠(東北), 간토(도쿄도 제외), 주부(中部) 지방에는 삿포로(札幌)총영사관, 센다이(仙台)총영사관, 니가타(新潟)총영사관, 요코하마(橫濱)총영사관, 나고야(名古屋)총영사관 등이 있다. 이어서 긴키(近畿), 주고쿠(中国), 시코쿠(四国), 규슈(九州) 지방에는 오사카(大阪)총영사관, 고베(神戶)총영사관, 히로시마(広島)총영사관, 후쿠오카(福岡)총영사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간토 지방에는 주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도쿄도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¹

이처럼 일본에 공관(총영사관) 수가 많은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여러 사정으로 일본에 이주하였고, 해방 후 그대로 정착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 여러 곳에 공관 터와 건물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재일한국인은 일본 사회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음에도 각지에서 돈을 모아 공관을 지어 대한민국 정부에 기부했다.

표는 재일한국인이 기증한 주일대한민국공관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일본 내에 있는 대사관과 총영사관 건물 10개 중 니가타총영사관을 제외한 9개를 민단 단원들의 모금으로 건설했다. 예를 들면, 도쿄에 있는 주일대사관은 일본에서 사카모토방적(坂本紡績) 등으로 성공한 기업가 서갑호(徐甲虎, 1915~1976)가 1962년 11월 현 대사관 토지 및 건물을 한국 정부에 기증한 것이다. 그리고 오사카총영사관은 1974년 9월 재일한국인들의 성금(약 16억 엔)으로 지었다. 이들은 초기 구상과 부지 매입(519m², 157평)을 비롯하여 설계 및 건설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충당했다. 특히 센다이총영사관은 1966년 창설 당시 센다이대한민국영사관 도호쿠지협(東北地協)후원회(宮城, 青森, 岩手, 秋田, 山形, 福島)가 조직되어, 약 250명이 성금을 모아 건립되었다(表 7-1)。

제주도 출신으로는 강운용(姜雲龍), 함창숙(咸昌淑), 강○○,

제7장은 필자가 2023년 발표한 논문에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재정리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고광명(2023), 「재일제주인의 재일(在日)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 『濟州島研究』60, 濟州學會, 211~239쪽.

1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編(1997), 『図表でみる韓国民團50年の歩み』, 五月書房, 24-25; 외교부(<http://overseas.mofa.go.kr>)

현봉현(玄奉現), 강관선(姜寬善), 이창림(李昌林), 함창준(咸昌準), 김창옥(金昌玉), 서창인(徐昌仁), 송갑득(宋甲得), 강태원(姜太元), 송석봉(宋石奉), 이백학(李白鶴), 양창호(梁昌豪), 김봉택(金奉沢) 등 15명이 기부에 동참하였다.² 이 외에도 제주도 출신 조규훈(曹圭訓)은 1948년 주일대사관 개설 초기, 건물도 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쿄 긴자(金座)에 대사관 건물과 관사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1300만 엔)을 쾌척하기도 했다.³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재일제주인을 포함한 재일한국인들이 개인 혹은 민단 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이면서 조직적인 공동 모금 활동으로 공관 신축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1> 재일한국인이 기증한 주일대한민국공관 현황⁴

공관명	창설	관할 지역	부지면적
주일(駐日)대사관	1949년	千葉, 茨城, 埼玉, 栃木, 群馬県	10,217m ² (3,086평)
삿포로(札幌)총영사관	1966년	北海道	978.51m ² (296.05평)
센다이(仙台)총영사관	1966년	宮城, 福島, 青森, 岩手, 山形, 秋田県	991.72m ² (300평)
니가타(新潟)총영사관	1978년	長野, 新潟, 富山, 石川県	임대

2 재일센다이제주도민협회 회장 송고사(宋高士) 2022년 8월 인터뷰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164-165쪽.

4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編(1997), 『図表でみる韓國民團50年の歩み』, 五月書房;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jpn-tokyo.mofa.go.kr)

요코하마(横浜)총영사관	1966년	神奈川, 静岡, 山梨県	1,797.37m ² (544평)
나고야(名古屋)총영사관	1966년	愛知, 三重, 福井県	403.08m ² (122평)
오사카(大阪)총영사관	1949년	大阪府, 京都, 奈良, 滋賀, 和歌山県	519.01m ² (157.08평)
고베(神戸)총영사관	1966년	兵庫, 鳥取, 岡山, 香川, 德島県	422.11m ² (127.76평)
시모노세키(下関)→ 히로시마(広島)총영사관	1966년 1999년	島根, 広島, 山口, 愛媛, 高知県	991m ² (300평)
후쿠오카(福岡)총영사관	1966년	福岡, 佐賀, 長崎, 大分, 熊本, 宮崎, 鹿児島, 沖縄県	318.01m ² (96.25평)

재일본(在日本)대한민국민단(지방본부·지부)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48개 지방본부, 258개 지부, 87개 분단, 78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제주도 출신 대부분은 미야기현 지방본부, 도쿄 지방본부의 아다치(足立), 아라카와(荒川), 문쿄(文京)지부, 교토 지방본부, 오사카 지방본부의 이쿠노주오(生野中央), 이쿠노미나미(生野南), 이쿠노니시(生野西), 히가시나리(東成), 니시나리(西成), 히라노·히가시·스미요시(平野·東·住吉), 후세(布施), 야오(八尾), 히가시오사카(東大阪) 등의 지부, 효고현 지방본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⁵ 재일본대한민국민단(www.mindan.org)

회관 건설 시 각 민단(지방본부와 지부)에 성금을 기부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미야기(宮城)현 지방본부는 1996년 민단회관 운영 기금으로 총 7573만 엔을 모금하였다. 개인 190명(6575만 엔), 단체 8개(998만 엔)가 참여하였는데, 제주도 출신 개인은 27명(1650만 엔)이다.⁶

② 도쿄 지방본부 아라카와(荒川)지부는 1983년 한국 회관 건설 기금으로 개인 284명(1억 6289만 엔), 단체 3개(2250만 엔), 기업 1개(1500만 엔) 등 2억 39만 엔을 모금하였다. 재일제주인은 개인 230명(1억 1310만 엔), 기업 1개(1500만 엔) 등 1억 2810만 엔을 기부하였다. 특히 이 지부에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200여 명)가 모여 상호 간에 세금 납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라카와한국인납세자축조합(세무담당은 일본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⁷

③ 오사카 지방본부는 1987년 한국인 회관 건설 성금으로 16억 3672만 엔을 모금하였다. 단체로는 유지 모금이 83명(12억 9000만 엔), 조직 모금이 36개 지부(2억 1800만 엔), 오사카한국청년회의소(1억 엔), 부인회오사카본부(1000만 엔), 긴키한국인여행협회(500만 엔), 오사카성화(成和)클럽(500만 엔) 등이 동참하였다. 이 중에서 재일제주인은 10명⁸으로 1억 3500만 엔을 기부하였다.⁹

6 앞의 주 2) 면담 대상자와 동일.

7 전 도쿄지방본부 단장 김수길(金秀吉) 2023년 5월 인터뷰

8 한국인 회관 건설 당시 제주도 출신으로 고액 현금자는 안재호(安在祜), 양희진(梁熙晉), 강충남(康忠男), 김인식(金仁植), 김치부(金致富), 이재방(李才方), 김성숙(金聖淑), 양두경(梁斗京), 이순안(李純安), 김양웅(金良雄) 등이 있다(大阪韓国人会館建設委員会, 1987: 110-114쪽).

9 大阪韓国人会館建設委員会(1987), 『大阪20万同胞の“民族殿堂” 大阪韓国人会館建設記念誌

④ 오사카 지방본부 이쿠노미나미(生野南)지부는 1985년 한국인 회관 건설에 156명(1599만 엔)이 참가하였는데, 이 중 제주도 출신은 98명(731만 엔)이었다.¹⁰

이 외에도 일본에서 기업가 활동을 영위하면서 민단에 공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¹¹ ① 신코우[伸興]화성(주) 오익종(吳益鐘)은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면서 성실과 근면, 신뢰를 바탕으로 재일한국인 사회뿐만 아니라 재일제주인 사회에 공헌했다.

② (주)이소고교엔[磯子御苑] 김홍근(金洪斤)은 재일한국인의 지방 참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단 발전에 공헌하였다. ③ (주)교에이[共榮]상사 황창주(黃昌柱)는 근면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사업가로서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였다.

④ (주)니시하라[西原]인쇄 한일년(韓日年)은 일본에서 인쇄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단 조직 강화와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⑤ 월드상사[ワールド商事] 이시향(李時香)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재일한국인 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단 활동을 시작했다. ‘민단의 꽃’이라 불리는 도쿄지방본부의 단장을 2기(2004~2010년) 연임하면서 회관 건립 성금으로 100만 엔을 기부했다. ⑥ (유)나카야마[中山]비닐공업 김수길(金秀吉)은 6년(2013~2019년)간 도쿄지방본부 단장으로 재임하면서 혐오 발언 근절 운동 등으로

』, 103쪽.

10 사카지방본부 이쿠노미나미(生野南)지부 단장 김승박(金勝博) 2022년 8월 인터뷰

11 민단에 공헌한 사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 제주특별자치도(2019) 등의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기술하였다(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4: 51-98쪽; 제주특별자치도, 2019: 114-118쪽).

재일한국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⑦ 백두학원(白頭學院) 설립자 조규훈은 재일한국인의 민생 안정과 권리옹호를 위해 1949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제7·8대 중앙본부 단장을 역임하면서 초창기 민단의 틀을 다지는 데 공헌했다.

민단 산하단체에 공헌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재일한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재일한국인 상공업자를 결집하며, 기술 연구, 정보 교환 등 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시책을 시행함과 더불어 한일 양국 간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국 경제 재건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일한국인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¹²

설립 이후 재일한국상공회의소(도쿄, 오사카) 발전에 공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¹³ ① 미하마[美浜](주) 오찬익(吳贊益)은 관동제주도민협회 회장을 거쳐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회장, 도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일한국인 상공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 특히 회장 재직 시에 매입한 도쿄 한국상공회의소 건물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의미 있는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도쿄 한국상공회의소의 행사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재일한국인 사회의 발전에 공헌했다. ② 도쿄관광흥업[東京觀光興業](주) 김광일(金光一)은 도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재일 상공인의 진흥 발전을

12 大阪韓国商工会議所(1996), 『大阪韓国商工会議所40年史』, 70쪽.

13 앞의 주 11)과 동일.

도모하며 회원 기업의 건전하고 원만한 경제활동에 공헌했으며, 지역 상공인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③ 이 외에도 유기화학공업[日本有機化學工業](주) 안재호(安在祜), (주)삼광[三光] 김인식(金仁植), 제일관광[第一觀光](주) 양희진(梁熙晉), 광경질도금공업[光硬質渡金工業](주) 박동진(朴東進), (주)와다상점[和田商店] 오진성(吳辰成), (주)대신[大信] 한장숙(韓長淑), (주)고덴샤[高電社] 고기수(高基秀), (주)다카야마가세이[高山化成] 고영관(高英寬) 등도 고문, 상담역,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재일본대한체육회

재일본대한체육회는 1953년 설립 이후 모국의 체육 발전과 한일 스포츠 교류, 그리고 재일동포 사회의 스포츠 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겨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재일한국인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성공을 계기로 일본에서 인적·물적 지원으로 재일사회의 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¹⁴

제주도 출신으로 안재호, 김인식, 양희진, 흥성인(洪性仁), 김성대(金聖大), 강충남(康忠男), 김홍근, 김병종(金炳鍾), 이시향 등은 재일동포 선수단 인솔 단장과 총감독,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육성과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 스포츠 진흥에 공헌하였다.¹⁵

14 정진희(2012), 『재일본대한체육회 60년사(1953~2012)』.

15 在日本大韓民國民團(2017), 『民團70年史』, 605-610쪽.

특히 홍성인은 1963년 재일본태권도협회 일본 지부장, 1964년 재일대한체육회 관서본부 이사로 참여하면서 간토 지부와 고베, 시가, 규슈 등지에 지방본부를 두고 오사카 12곳에 도장을 설치해 후진 양성에 힘썼다. 같은 해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재일동포 태권도 선수단 감독으로 참가하여 재일사회의 태권도 발전에도 기여했다.¹⁶ 그리고 재일한국인들은 1997년 9월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당시 오사카지방본부는 민단 산하 36개 지부와 단체가 모금한 체전 성공 기원 성금(1100만 엔)을 오사카 지사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공식 행사 참가를 계기로 오사카시는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실현의 일환으로서 국제화를 지향하는 이미지를 높이는 상징이 되기도 했다.¹⁷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하는 2002년 FIFA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한일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할 재일한국인후원회(회장 이희건)가 발족하면서 재일한국인 사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재일사회 단체에 공헌

민족학교 설립 및 교육(육영) 사업

2023년 현재 일본에는 한국계 민족 학교가 오사카에 2개교(白頭學院 建國學校, 金剛學園), 도쿄와 교토에 각 1개교(도쿄 한국학교, 교토

16 洪性仁(2015), 『洪性仁 나의 투쟁 60년 재일 韓國民團 護衛武士, 태극 깃발을 일본 하늘에』, 디자인 오투출판, 36-37쪽.

17 洪性仁(2015), 앞의 책, 99쪽.

국제학교)가 있으며, 이 외에 6개(名古屋, 兵庫, 神戶, 尼崎, 倉敷, 広島)의 한국 학원이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출신들은 한국계 민족 학교 설립과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우선, 건국학교 초대 이사장 조규훈(조천읍 신촌리)은 1923년 일본으로 건너가 별목 사업, 제재소, 고무 공장 등을 운영하던 중 1946년 3월 조선인 친목 단체 백두동지회(白頭同志會)를 결성하여 꿈에 그리던 학교를 오사카에 세웠다. 당시 사재 200만 엔을 들여 건국학교의 문을 열면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문부성(학교교육법)에 의해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은 민족 학교인 백두학원(白頭學院)을 설립한 것이다. 그는 재일한국인 교육에 대한 공로로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여 민족 교육의 선구자로 인정받았다.¹⁸

다음으로 김용해(金容海)는 1943년 일본으로 건너가 1972년 기타츠루하시(北鶴橋) 소(小)학교에 민족 학급을 설치했다. “본명을 쓰는 것이 곧 민족의 자긍심(自矜心)을 찾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그는 조선인총연맹(朝鮮人總聯盟) 단체에서 재일한국인들의 교육 발전과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등 후세 양성 교육에 전념했다.¹⁹

이 밖에도 최근까지 재일제주인으로서 재일사회의 교육 발전에 대한 공헌 사례는 다음과 같다.²⁰ ① 오찬익은 도쿄 한국학교 증설에 1000만 엔을 기부하였다. ② 노부가와[信川] 고무공업소 강구범(康龜範)은 2006년 4월에 10억 엔으로 재단법인 가메노리(龜範)재단을 설립하였다. 재단 기금은 교리츠(共立)빌딩 주식회사를 계승한 차남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164-165쪽.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위의 책, 165-166쪽.

20 앞의 주 11)과 동일.

강건수(康健守)가 관리하고 있다. 재단은 아시아 나라의 청소년 교류를 후원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와 공생을 목표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고교생 교환 및 유학 사업, 대학생 유학과 장학금 지급, 한일 단기 교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③ (주)그랜드도쿄[グランド東京] 이근식(李根植)은 1998년 12월에 6억 2000만 엔(기금 5억 엔, 운영자금 1억 2000만 엔)을 출연하여 도쿄에 청봉(青峰) 국제교육진흥재단(이후 청봉장학재단으로 개칭)을 설립했다. 재단은 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유망한 유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재일본 유학생과 재일교포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지원해 왔다. 또한 일본의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하는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한일 상호 이해와 친선 교류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일본 적십자사에 1983년부터 매년 500만 엔 등 총 1억 1500만 엔을 기부했다. ④ 안재호, 양희진, 고기수, 이시향, 김수길, 고경필(高敬弼) 등은 민족 학교 운영(고문, 이사장, 이사, 교우회 회장)에 참여하는 등 재일한국인의 교육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로써 재일제주인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 학급 운영과 민족 학교 설립, 교육(육영) 사업에서 선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재일한국인신용조합

오사카 지역에는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1950년대에 두 개의 신용조합이 설립되었다. 오사카쇼긴(大阪商銀)²¹은 1953년 오사카에서

21 신용조합 오사카쇼긴(大阪商銀)은 1998년 3월 920억 엔의 채무 초과로 인해 경영 파산을

처음 민족 금융기관으로 설립된 합일 합작 신용조합이었고, 간사이코긴(關西興銀)은 1955년 재일한국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신용조합이었다.²²

현재 시점으로 재일한국인 사회에는 재일한국신용조합협회(在日韓國信用組合協會), 아스카(あすか)신용조합, 요코하마코긴(横浜幸銀)신용조합, 신용조합아이치쇼긴(愛知商銀), 신용조합히로시마쇼긴(広島商銀) 등 5개의 재일한국인 신용조합이 있다.

신용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안재호, 강충남, 한장숙, 김병종, 이재방(李才方), 김치부(金致富), 오승명(吳承明), 안인순(安仁淳), 김경옥(金景玉), 오진성, 조남부(趙南富), 이시향, 이정림(李正林) 등을 비롯한 제주도 출신들은 오사카쇼긴, 간사이코긴, 고베쇼긴(神戶商銀)에서 상담역, 이사를 역임하는 등 재일 한국계 신용조합 발전에 공헌했다.

재일제주도민협회

1)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在日本關東濟州道民協會)

관동 지역 재일제주인들은 1960년대 이후 제주개발협회(濟州開發協會, 1961년)를 비롯한 도 단위 친목회들을 결성하였다.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는 관동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들을 대상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협회는 1961년에 발족하여 회원 회비

선언했다. 이 신용조합은 창립 이래 45년 동안 민족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일본 경제를 뒤흔든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의 파도를 넘지 못했다.

22 정진성·김백영·정호석(2020), 『재일상공인과 한국 경제 '모국공헌'의 시대』, 한울, 45-46쪽.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는 회비 이외의 재정을 통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 출자로 (주)제경(濟京)을 설립하였으며, 2004년에는 (주)제경 명의로 제경빌딩을 소유하고 그 안에 협회 사무실(2층 80평)을 마련했다.²³

2)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關西濟州特別自治道民協會)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²⁴는 1963년 관서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들을 대상으로 결성되었고, 현재 독자적으로 건물을 마련하여 친목 및 각종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협회 회관은 1994년 당시 개인 150명(2억 7730만 엔), 단체 3개(제주도친목회 800만 엔·제주도민회 705만 엔·신용조합관서흥은 500만 엔 등 2005만 엔) 등이 총 2억 9735만 엔을 찬조하여 건설하였다.²⁵

3) 재일센다이제주특별자치도민회(在日仙台濟州特別自治道民會)

재 일 센 다 이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민 회 는 1975년 미야기현 센다이(仙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 출신(300여 명)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재일제주인 사회의 상호부조와 친목 도모에 큰 역할을 하였다. 협회[이후 재일센다이제우회(在日仙台濟友會)로 개칭]는 민단 운동회(1980년)와 안중근(安重根) 기념비(1981년),

23 在日本關東濟州道民協會(2011), 『50周年記念号 漢拏山』, 第9号, 115-116쪽.

24 간사이(關西) 지역은 재일제주경제인협회(在日濟州經濟人協會, 1961년) 설립을 계기로, 이후 재일제주도민회(在日濟州道民會, 1963년), 재일제주도친목회(在日濟州道親睦會, 1965년), 재일제주청년회(在日濟州青年會, 1967년)가 창립되었는데, 1994년에 이들 4개 단체를 통합하여 관서제주도민협회(關西濟州道民協會)를 결성하였다.

25 關西濟州道民協會(2004), 『關濟會10年の歩み』, 34쪽.

임간(林間)학교(1982년), 민단의 무연불공양(1984년), 민단 신년회(1985년) 등에 기부하는 등 재일사회 발전에 공헌하였다.²⁶ 2025년 재일센다이제우회(회장 송고사)는 제주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고향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장학 기금 100만 엔을 기탁했다.²⁷

4) 제경(濟經, 在日濟州經濟人協會)

재일제주경제인협회(회장 정태길)는 1961년 9월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친목과 경제 지위 항상 등을 도모하고 국제 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제주도 상공인 출신(23명)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협회는 1962년 2월 오현고 축구단 환영회 참가, 1963년 11월 제주도 산업 시찰단 방일 간담회, 1964년 6월 주일 대표부 오사카사무소 음료 기계(냉수) 기증, 1965년 5월 오사카총영사관 청사 이전 기념 총영사 전용 책상·의자 기증, 1967년 5월 본회 재정 지원 기관 (株)제우물산(濟友物產) 설립(자본금 6000엔), 1969년 2월 세토나이가이(瀬戸内海)에서 제주대학교 수산과 연습선이 조난되었을 때 구조 협력, 1971년 8월 주오사카 한국 총영사관 하반기 협력금 지원, 동년 11월 기관지 [제경] 창간호 발간, 1972년 7월 재일본대한체육회 제주도 체육대회 참가 협력, 1972년 11월 간사이 지방 한국학원 가을 운동회 협력, 1973년 7월 영사관 하반기 협력금 지원, 동년 10월

26 在日仙台済友会(1999), 『在日仙台済友会 会員名簿』.

27 재일센다이제주도민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원진 노령화, 차세대 회원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해산할 예정이다. 도민회는 1978년 제주도 490만 엔(식수 6,000본), 1982년 제주대학교 100만 엔, 1988년 신산공원 성화 기념사업 1500만 엔 등을 기부했다. 《한라일보》 2025년 5월 28일

한국학원 합동 체육대회 지원 협력, 1974년 5월 오사카총영사관 건설 기금 1000만 엔 기부, 1974년 7월 재일본대한체육회 제주도 체육대회 참가 협력, 동년 7월과 12월 영사관 협력금 지원, 1977년 3월 일한의학협회 설립 원조, 동년 12월 공공 기관 협력금 지원(민단본부, 금강학원, 백두학원, 오사카부, 오사카시), 1978년부터 1990년 12월까지 공공 기관 협력 지원으로 오사카부(5회), 오사카시(5회), 금강학원(10회), 백두학원(5회), 민단 오사카지방본부(6회) 등에 지원하였다.²⁸

이처럼 단체들은 상호부조와 친목 도모 외에도 경제 지위 향상, 도민협회 회관 건립, 재정 기반 확립, 일본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일사회에 공헌하였다. 특히 제주개발협회는 1962년 제주도 시찰단, 오현고교 축구팀²⁹, 미스 탐라 등 초청, 1963년 제주도 여성 대표 친선 사절단 초청, 1965년 제주도 산업 기술 연수생, 교육 시찰단 초청 등을 통해 재일제주인 사회와의 상호 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8 在日濟州經濟人協會(1992), 『創立30周年記念誌 濟經』第5号, 69-73쪽.

29 오현고 축구팀은 제주도 체육사상 처음으로 해외 원정 경기에 참가한 팀으로 기록되어 있다. 축구팀 해외 원정은 1962년 9월 재일제주개발협회(이후 재일제주도민협회로 개칭)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원정 경기는 오사카, 고베, 도쿄에서 일본 고교 팀과 3회, 재일동포 학교 팀(백두학원, 한국학원)과 2회 등 5차례 경기를 치러 5전 4승 1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일본과의 외교가 이뤄지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오현고 축구팀의 일본 원정은 고봉식 교장에게 호의를 보였던 김영관 지사의 중개로 안재호(安在祐) 회장이 원정 축구팀에 대한 재정보증을 해 주어 성사되었다(五賢高等學校總同憲會, 2002: 169, 713-714쪽).



오현고 축구팀과 우승컵 수상(1962년)

이 외에도 재일제주인 사회에 공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³⁰ ① 후지전선공업[富士電線工業](주) 강충남(康忠男)은 일본 사회에서 전선 공업 회사를 경영하면서 신용과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사카 지역에서 4개 단체(재일제주경제인협회, 재일제주도민회, 재일제주도친목회, 재일제주청년회)로 분산되어 있던 재일제주인의 친목 단체를 관서제주도민협회(關西濟州道民協會)로 통합 창립함으로써 오사카 지역 재일 제주도민의 화합을 이끌었다. ② 남해회관[南海會館](주) 김창인(金昌仁)은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발전을 위한 건물 신축 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생활 터전인 재일사회에 공헌하였다. ③ 김해상사[金海商事](주) 김평진(金坪珍)은 제주개발협회를 이끌면서 제주 농민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감귤 재배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오찬익은 2003년 6월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회장을 역임할 때 관동 지역 제주도민의 숙원이던 회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주)제경(濟京)을 설립하고 빌딩을 매입하였다. 주식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주주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본관동제주도민회 운영을 위

30 앞의 주 11)과 동일.

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⑤ 나가오카상사[長岡商事] (주) 장윤종(張潤鍾)은 우에노(上野)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민단과 재일 제주도민회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1962년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전신인 제주개발협회 활동을 통해 재일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⑥ 안재호는 1960년대 초반 오사카 지역 재일제주도민회 단체를 이끌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향 제주에 대한 지원에 앞장섰고 제주도와 재일제주인 사회 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에도 힘을 썼다.

재일제주인친목회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집단은 혈연·지연·학연 등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혈연 조직은 종친회, 문중회, 화수회 등의 남성 중심의 출신을 중시하는 유교 이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지연 조직은 도민회, 친목회가 대표적인 것으로, 동일 지역(읍·면·동·리 등) 출신에 의한 수평적 관계에 기초하여 상호부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³¹ 학연 조직은 동창회, 동문회에서 초중고 동문이 서로 만나는 형태로서 상호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³²

이와 관련하여 재일사회 발전에 공헌한 대표 사례를 보면 다음과

31 고광명(2008), 앞의 논문, 201쪽.

32 2013년 재일제주인 친목회는 혈연 5개, 지연 175개, 학연 36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 단위별로는 도(道) 단위 65개, 동(洞) 단위 49개, 리(里) 단위 103개 등 총 217개에 이르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는 관동(關東) 76개, 관서(關西) 75개, 기타 26개로 분포되어 있다 (고광명, 2013: 98쪽). 현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친목회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1세가 사망하고 후세대가 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점점 해체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건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체되는 친목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다. 우선, 재일광산김씨친족회(在日光山金氏親族會)는 1954년 1월 오사카 이쿠노구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의 광산김씨(약 20명)가 모여 만든 혈연 네트워크로 2004년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거행하였다. 조직은 오사카에 뿌리를 내린 제주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고 단합이 잘 되는 친족 집단 중의 하나이다. 혈연 집단 조직에서 문중 단위의 선영이 아닌 동향 친족 집단의 공원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재일제주인 사회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³ 이것은 공동 부계 조상을 갖고 있다는 혈연 의식이 강한 광산김씨가 하나의 친족 집단으로 뭉쳤음을 의미한다. 이 조직에서는 본토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동향 의식이 ‘광김회(光金會)’ 통합성의 바탕을 제공해 준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재일한국인 사회에서도 제주도 출신들 간의 지연과 혈연 의식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³⁴

다음으로 재일본고내리친목회(在日本高內里親睦會)는 1949년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고내리(高內里) 출신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회원 중에는 다수가 가방 제조업이라는 특정 업계에 종사하면서 일본 사회 속에서 경제적 기반을 쌓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³⁵ 특히 친목회는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결속력이 가장 강한 마을 단위 친목 단체로, 고내리는 자수성가한 경제인을 다수 배출한 마을로 널리 알려져

33 고광명(2008), 앞의 논문, 202쪽.

34 이문웅(2005), 「재일(在日)제주인 사회에서의 생활문화에 나타난 적응전략 : 광산김씨 친족회를 중심으로」,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74~79쪽.

35 고광명(2008), 앞의 논문, 200쪽.

있으며 재일한국인 사회 연구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³⁶

마지막으로 재일본도교·오사카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在日本東京·大阪五賢高等学校總同窓会)는 1983년 도쿄와 1994년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모임을 통해 결성된 학연 네트워크이다. 조직은 회칙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연다. 나아가 각 이사회의 활동 등을 통해 동창 간 정이 두터워지면서 경조사, 정보 교환 등에 전 회원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동창회로 거듭나고 있다.³⁷

이렇게 재일제주인들은 혈연·지연·학연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성을 표현하고, 제주도 출신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일본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해 왔다.³⁸ 이들 대부분은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던 초기에 관서 지역에 많은 조직을 형성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인 혈연·지연·학연 친목회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고, 숙박이나 취업 등을 알선하기도 했다.³⁹

기타

지금까지 서술한 민단이나 산하 및 관련 단체 외에 재일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36 滝沢健次(2004), 「在日高内里出身者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ーそのコミュニティ形成史を中心に」,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18-43; 고광명(2013),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06-307쪽.

37 고광명(2013), 앞의 책, 109; 大阪濟州島研究会(2011), 『濟州島研究』, 27-28쪽.

38 고광명(2008), 앞의 논문, 202쪽.

39 고광명(2013), 앞의 책, 98-99쪽.

40 앞의 주 11)과 동일.

① 김창인은 2011년 동일본(東日本)대지진 발생 후 복구비 1억 엔을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奈良)현에 기부하여 위로하였다. ② 오찬이은 2011년 제주도의 최대 관심사였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이벤트의 일본 지역 추진위원장으로 나서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규슈(九州)까지 누비면서 제주에 투표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도쿄에서는 위원회 대표단과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언론 기관 등을 초청하여 모든 행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면서 힘을 보탰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홍보비 외에도 5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일사회 발전을 위한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福島)현 이와키(岩木)시에 1000만 엔, 같은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1000만 엔 등을 기부했다. ③ 도쿠야마물산[德山物産](주) 홍성익(洪性翊)은 관서한식문화협회(關西韓食文化協會)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음식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데 공헌하였다. 반가식공방(班家食工房)을 통해 한국 식품을 일본에 알리며, 일본 사회에서 한국 식문화 봄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⁴¹ ④ 애삼산업[愛三産業]·백하산업[白河産業](주) 백창호(白昌鎬)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1994년 기독교 범인 단체인 운산장학회를 창립하였으며, 1906년 창립한 재일한국YMCA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 ⑤ 고기수는 1983년에 결성된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재일동포 사회의 과학 기술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했다.⁴² ⑥ 이 외에도 재외동포재단(2억 원)과 민단 및 상점가(5000만 원)가 재정을 부담하여 2021년 코리아타운

41 小熊英二·姜尚中編(2008), 『在日一世の記憶』, 集英社新書, 579-594쪽.

42 在日本大韓民國民團(2006), 앞의 책, 618-623쪽.

미유키모리(御幸森) 제2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다. 건설 기금 조성에는 69개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재일제주인도 민단 오사카지부를 비롯하여 일부 상점가 및 기업가[프라하도(주), (주)高山化城]가 동참하였다.



이쿠노(生野)코리아타운 공중화장실 건설 기념 방명록



제주—오사카 직항로 개설 100주년 기념 돌하르방⁴³

43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生野)구에 제주-오사카 직항로 개설 100주년을 기념해 대형 돌하르방 한 쌍을 기증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제주와 일본 오사카의 교류 역사를 기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평화 협력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한 '역사와 평화'의 상징으로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제주 돌하르방을 세운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재일제주인의 이주 역사를 기리고 후세에 알리면서 다각적인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제주일보》 2024년 1월 29일

제8장

마음으로 새긴 애향의 보람

마음으로 새긴 애향의 보람

사회경제 기여에 따른 서훈(敍勳) 및 수상

훈장과 포장

대한민국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재일한국인 권익 신장과 재일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포상해 왔다. 재일한국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 체계인 한국 정부의 서훈(훈장·포장)은 재일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심리적 보상으로 큰 역할을 했다.¹

표는 196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과 포장을 받은 재일한국인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훈·포장은 1970년대 초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와 1990년대 초반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수상 공적은 1970년 일본 만박(萬博) 박람회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원, 1984년 전국소년체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2002년 FIFA 월드컵 등의 개최와 관련이 있다.

한국 정부가 공(功)을 인정한 재일한국인 수상자는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장(愛族章) 5명을 비롯하여 무궁화장(無窮花章) 68명, 모란장(牡

1 정진성·김백영·정호석(2020), 『재일상공인과 한국 경제 '모국공헌'의 시대』, 한울, 178쪽.

丹章) 108명, 동백장(冬栢章) 740명, 목련장(木蓮章) 279명, 석류장(石榴章) 100명, 국민포장(國民褒章) 166명, 체육훈장(體育勳章) 148명(青龍章 36명, 猛虎章 30명, 巨象章 81명, 白馬章 1명) 등 1,614명이다.² 이들 중에서 제주도 출신은 본국과 고향, 그리고 재일 사회의 발전에 대한 공로로 수상했는데, 건국훈장 3명, 무궁화장 4명, 모란장 14명, 동백장 31명, 목련장 9명, 석류장 6명, 국민포장 4명, 체육훈장 14명(청룡장 3명, 맹호장 3명, 거상장 8명) 등 85명이다(〈표 8-1〉).

〈표 8-1〉 재일한국인 서훈(敍勳) 현황³

(단위 : 명)

구분	건국훈장	국민훈장					국민포장	체육훈장
		애족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1960년대			1	13(1)			3	
1970년대		11	36(2)	216(4)	36(3)	19	17	
1980년대		14(2)	22(1)	349(9)	131(1)	10	27	146(14)
1990년대	3(1)	17(1)	22(4)	87(13)	42(3)	10(2)	50(2)	1
2000년대	2(2)	15	14(4)	52(2)	41(2)	37(1)	38(1)	1
2010년대		10(1)	8(3)	18	20	18(2)	24(1)	
2020년대		1	4	5(2)	6	5(1)	2	
불명			1		3	1	5	
합계	5(3)	68(4)	108(14)	740(31)	279(9)	100(6)	166(4)	148(14)

주) 괄호 안()은 제주도 출신 수상자 수치를 나타냄

2 www.sanghun.go.kr

3 在日本大韓民國民團大阪府地方本部(2006), 『大韓民國國民勳章受章者』;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www.oka.go.kr 등에서 조사 작성

수상자들은 일본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얻은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재일한국인 사회 및 민단 조직 발전에 오랜 기간 물심양면으로 공헌하였다. 또 재일한국인 사회의 생활 향상, 일본 지역사회의 발전, 민단과 재일한국 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이다. 그리고 청년회 조직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권익 옹호 운동, 법적 지위 향상, 민족 교육, 차세대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일한국인의 지위 향상에 공헌한 경우이다. 이 외에도 재일한국인 사회 활성화와 위상 제고, 한일 친선 교류, 민단과 지역사회 간 우호적 환경 조성, 재난 시 모금 활동 등에 이바지했다. 결국, 이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재일 사회에 사회적·경제적으로 공헌하고, 재일한국인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한일 간 문화 및 경제 교류를 통해 민간외교 가교 역할을 수행한 공적으로 수상한 것이다.

제주도문화상

제주도문화상은 1962년부터 교육, 학예, 향토 문화의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제주도민에게 수여하고 있다. 재일제주인들은 1973년 공익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32명이 수상하였다. 수상 부문으로는 공익상 3명, 교육 1명, 체육 1명, 지역사회개발 1명, 지역사회 5명, 해외동포 12명, 국외재외도민 9명으로 나타났다. 수상자 대부분은 개인(31명)이고 단체로는 탐라연구회가 있다(〈표 8-2〉).

<표 8-2> 제주도문화상 수상자 현황⁴

(단위 : 명)

구분	공익상	교육	체육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해외동포	국외 재외도민
1970년대	3						
1980년대			1	1			
1990년대		1			5		
2000년대						12	
2010년대							7
2020년대							2

주) 수상 부문은 1981년 지역사회개발, 1989년 지역사회, 2000년대 해외동포, 2010년 이후 국외 재외도민 부문 등으로 개정됨.

제주상공대상(특별대상)⁵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지역사회 및 상공업 발전과 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제주 상공인 화합의장을 마련하고 있다.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은 1993년부터 제주상공회의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주상공대상 시상식에서 7명이 특별대상(최우수 해외기업인상)을 받았다(<표 8-3>). 수상자는 지역사회 공헌을 비롯하여 제주 상공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기업가들이다.

4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예술60년사·3』, 272-274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자료 제공.

5 고광명(2013),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 『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 제주상공회의소 내부 자료(공적서)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표 8-3> 제주상공대상 특별대상 수상자 현황⁶

회수	연도별	수상 내역	수상자	소속 및 직위
제14회	2006년	특별대상-최우수해외기업인상	김홍근	(株)磯子御苑
제15회	2007년	특별대상-최우수해외기업인상	황창주	(株)共榮商事 代表取締役
			한진삼	三松商事(株) 代表取締役
제16회	2008년	특별대상-최우수해외기업인상	오찬익	(株)美浜 代表取締役
제17회	2009년	특별대상-최우수해외기업인상	이시향	ワールド(월드)商事(株) 대표이사
제18회	2010년	특별대상-최우수해외기업인상	한일년	(株)西原印刷 代表取締役
제19회	2011년	특별대상-최우수해외기업인상	오익종	伸興化成(株) 會長
제22회	2014년	특별대상	김광일	동경한국상공회의소 회장

고향 발전의 공로로 세운 비(碑)

기증에 대한 보답

애향심의 발로인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고향 제주와의 연대와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다. 또한 마을과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및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제주 지역의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기증에 대한 보답의 표시는 마을 회관 입구에 세운 기념비, 송덕비, 공덕비 등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기증 당시에는 마을 재정이 어려워 미처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이후 비를 세워 그들의 공헌을

6 제주상공회의소(2015), 『제주상의 80년사』, 524쪽.

새기고 간직하는 사례가 있다.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비석을 건립했다는 응답이 총 70명 중 53명(7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상(흉상)과 애향탑 건립, 서신 교환이나 감사패를 증정한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4〉). 다만 당시 마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마을에서는 비를 설립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의 면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8-4〉 기증에 대한 보답의 표시⁷

항목	서신 교환	감사패 증정	기부 표지판	비석 건립	동상(흉상) 건립	애향탑 건립	방문 인사	기타	전체
수(명)	2	2	1	53	4	1	5	2	70
비율(%)	2.9	2.9	1.4	75.7	5.7	1.4	7.1	2.9	100.0

비 현황⁸

제주 지역 마을과 학교 곳곳에는 재일제주인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 표현을 담은 비(공덕비, 송덕비, 기념비 등)가 세워져 있다. 이 비석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돌이나 동판(흉상, 동상) 등에 그 내용을 새겨 넣은 것이다. 대부분이 1960년대 이후 세워진 것으로, 재일제주인의 공로와 희사 내용을 담고 있다.

7 제2장 〈표 2-1〉과 동일.

8 이 절에서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5)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 센터(2016·2017·2018)에서 조사한 910기와 최근 필자가 조사한 2기(애월읍 광령리, 중문동 법환리)를 추가하여 제주도 전체 912기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기술했다.

비석의 공적 내용은 새마을 사업, 도로 개발, 전기·전화 가설, 수도 가설, 마을 회관 건립, 학교 부지와 건물 회사, 교육 지원, 장학 지원 등과 관련된 것이다.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대한 기여는 1930년대 시작되어 1960년대 이후 본격화하면서 제주 마을과 학교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비 특성

현재 제주도에 산재한 비는 총 912기로 각 지역 마을과 학교 등에 분포되어 있다. 제주시 지역은 629기(69.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 지역은 283기(31.0%)가 있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 동 지역이 120기(1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천읍이 116기(12.7%), 애월읍이 109기(12.0%), 대정읍이 90기(9.9%), 한림읍이 80기(8.8%), 구좌읍이 72기(7.9%), 표선면이 71기(7.8%) 순으로 건립되어 있다(<표 8-5>). 이는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이 많은 마을에서 친목회 또한 많이 결성됐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향 마을이나 학교에 기증한 사례가 많아서 그에 대한 보답의 표시로 비석 건립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8-5> 지역별 현황

지역별	제주시 동 지역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조천읍	구좌읍
수량(기)	120	109	80	64	-	116	72

비율(%)	13.2	12.0	8.8	7.0	-	12.7	7.9
지역별	우도면	서귀포시 동 지역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수량(기)	5	67	90	42	27	49	71
비율(%)	0.5	7.3	9.9	4.6	3.0	5.4	7.8

재일제주인 비가 소재한 곳을 통해 그들이 공연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소재지별로는 복지 회관과 경로당이 244기(26.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학교가 191기(20.9%), 마을 회관이 166기(18.2%), 마을 안길 도로변이 101기(11.1%), 리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90기(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6>). 이 외에도 보건진료소, 청풍대, 어울림마당, 솔동산, 개웃샘물, 버스 정류장, 비석거리, 체험 어장, 공부방, 본향당 능향원, 삼무공원, 의용소방대, 동백마을, 체육관, 포구, 어린이집, 마을 창고, 향교, 제주대학교, 향립사 등 여러 곳에 비가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 곳곳에 세워진 애향탑(愛鄉塔)과 흥상, 공덕비는 마을마다 깊게 스며든 재일동포들의 단성(丹誠)을 의미한다.

<표 8-6> 소재지별 현황

소재지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리사무소 주민센터	마을 도로변	옛 학교	마을 공원	마을 운동장
수량(기)	166	244	90	101	11	12	5
비율(%)	18.2	26.8	9.9	11.1	1.2	1.3	0.5

소재지	학교	학교 도로변	장학회관	도서관	문화의 집 도로변	기타	합계
수량(기)	191	14	11	8	13	46	912
비율(%)	20.9	1.5	1.2	0.9	1.4	5.0	100.0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은 1933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 오사카에 거주했던 청년들이 마을에 봉사한 일을 기념하여 세운 비이다. 그 뒤를 이어 애월읍 광령리에는 1936년 오사카 친목회원들이 향림사(香林寺) 근처의 샘물(절물)을 수선한 기념으로 세운 비(寺水修繕紀念碑)가 있다.⁹



향림사 절물(寺水) 수선기념비

시기별로는 1970년대가 312기(3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⁹ 기념비(寺水修繕紀念碑) 옆 비에는 공진회 임원 명부와 샘물 보수에 대한 당시의 기증 상황을 담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功深九仞 德潤一里 共進之名 有光萬世(공이 깊고 매우 높으니 덕이 온마을에 빛나네 공진회 이름이 만세에 빛나리). 김일용(金一龍) 2025년 10월 8일 판독 및 해설

1980년대가 197기(21.6%), 1960년대가 164기(18.0%), 1990년대가 118기(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다수가 1960~80년대에 건립되었다. 총 912기 중 673기가 이에 해당하며 비율로는 73.8%에 달한다(<표 8-7>).

<표 8-7> 연대별 현황

연대별	1945년 이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이후	미상
수량(기)	11	18	164	312	197	118	68	15	9
비율(%)	1.2	2.0	18.0	34.2	21.6	12.9	7.5	1.6	1.0

비석 호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념비(307기, 33.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송덕비(268기, 29.4%), 공덕비(151기, 16.6%), 공적비(53기, 5.8%)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표 8-8>). 그 밖에 상(동판), 방명비(성금록), 희사자 명단(기금 기부 기탁자), 성금비, 의연자(록), 기념탑, 장학탑, 정표탑, 애향탑, 교가(교훈), 탑, 표창비, 표성문, 표지석, 공현(공로)비, 건립(취지)비 등이 건립되어 있다. 4기 이하의 비는 감사비, 기념수비, 기공비, 계선비, 유공비, 독지비, 구휼비, 송공비, 수은비, 은덕비, 보은비, 송보비, 칭송비, 애향비, 여사지비, 현창비, 장학비, 친목회비, 출판기념비, 연의자기, 건립문, 봉사명, 방명기, 특지비, 불망비, 혜은비, 의연비, 추모비, 장학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4기 이상의 비석 중 874기의 비제가 20종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 38종 38기의 비제까지 더하면 재일제주인 관련 비는 912기가 58종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8-8> 비제 호칭별 현황

비제 명	공적비	공덕비	송덕비	기념비	상(동판)	방명비 (성금록)	건립 (취지)비
수량(기)	53	151	268	307	18	15	4
비율(%)	5.8	16.6	29.4	33.7	2.0	1.6	0.4
비제 명	공현 (공로)비	표창비	기념탑	희사자 명단	여러 비	기타	합계
수량(기)	7	8	12	13	38	18	912
비율(%)	0.8	0.9	1.3	1.4	4.2	2.0	100.0

제주 지역에 산재한 비석은 912기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마을(공공시설 등)에 공헌한 공적으로 세운 비가 586기로 전체 비석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표 8-9>). 이 외에도 교육을 비롯하여 장학회, 식수, 새마을 사업, 보건 복지, 도서관, 구휼 기금, 대학, 자금심 고취, 동창회관, 기념비, 공로, 창립, 출판, 교육 여건 조성, 향교, 본향당에 대한 공적으로 비를 건립하였다.

<표 8-9> 공적별 현황

주요공적	마을	새마을 사업	식수	정미소	보건복지	체육	문화
수량(기)	586	16	20	3	12	14	5
비율(%)	64.3	1.8	2.2	0.3	1.3	1.5	0.5

주요공적	교육	도서관	장학금 (금)	기성회 기념	감귤 묘목	기타	합계
수량(기)	191	12	23	9	4	17	192
비율(%)	20.9	1.3	2.5	1.0	0.4	1.9	100.0

비석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공헌자별로는 개인이 429기(4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체가 358기(39.3%), 친목회가 82기(9.0%), 기성회(위원회, 후원회 등)가 7기(0.8%) 등으로 나타났다(<표 8-10>). 이 외에도 개인이나 단체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마을 출신 재일교포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 이들 비는 해당 지역에 공헌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설립되었는데, 학교 설립 및 운영,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현금과 현물을 기증받고 감사의 마음을 기리는 비가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표 8-10> 공헌자별 현황

공헌자	개인	단체	친목회	기성회	민단	기타	합계
수량(기)	429	358	82	7	1	35	912
비율(%)	47.0	39.3	9.0	0.8	0.1	3.8	100.0

고향 사랑에 대한 보은 시책과 교류

고향 방문 산업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고향 방문 사업에는 1세대 어르신 돋기

사업¹⁰과 백두학원 학생 초청 사업, 재일제주도민회 임원반 운영 등이 있다. 우선, 1세대 고향 방문 사업은 과거 제주의 발전을 위해 도로 건설, 학교 건립, 감귤 묘목 기부 등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으로 고향 방문이 힘든 1세대 중 제주 방문 기회가 적었던 어르신들을 초청함으로써 재일제주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¹¹ 다음으로 백두학원 학생 고향 방문 사업의 목적은 재일제주인 3·4세대 학생 등을 초청하여 제주 발전상 견학 및 조상의 문화 체험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재일제주도민회 임원반 운영은 재일제주도민회 임원 및 회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일제주도민회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재일제주인 1세대와 후손들의 고향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자 재일제주인 공덕비 속 공헌자를 마을과 연계하여 고향에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주 발전에 공헌한 재일제주인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되었다. 2022년과 2023년 오사카에서는 ‘공헌자의 밤’을 개최해 현지 공헌자들을 초청했으며, 2023년부터는 일본에 거주하는 공헌자 및 후손들을 제주로 초청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신촌리 마을 공헌자 및 후손 17명, 2024년에는 회수리 마을 공헌자 및 후손 6명이 고향을 방문했다.

10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60년대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에 마을과 학교 발전을 위해 제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재일제주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재일제주인 돋기 특별 모금’을 2023년까지 진행했다. 시행한 사업(특별 모금 10억 8500만 원)으로는 1세대 고향 방문(120명, 4억 1400만 원), 재일제주인 생계비 지원(1386명, 6억 7600만 원), 1세대 봉안당 지원(250기, 1000만 원) 등 3개(11억 원)가 있었다.

11 www.channeljeju.com

이렇듯 이들 사업의 목적은 도내 주요 축제 및 행사에 국내외 재일제주인을 초청하여 도민회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고향의 발전상을 보여 주며, 재일제주인의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재일제주인 3·4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도 의미를 둔다.



회수 마을 출신 재일제주인 고향 방문(2024년 11월)

재외도민증 발급

제주도는 거류민단, 조총련 등의 이념을 초월하여 제주도 출신으로서의 소속감과 긍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외도민증¹²을 발행하고 있다. 재외도민증을 재외 동포에게도 발급하면서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12 재외도민증 발급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지원조례」 제8조(2010 제정)(제8조~제12조)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 원적 또는 본적지 포함)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자녀 포함)이다.

제주인 역량 결집의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외도민증 소지자는 제주도 출발·도착 국내선 항공료 및 국내 여객선 운임 할인(20%), 직영 박물관·기념관·관광지·사설 관광지·골프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국 최초의 재외도민증 발급 추진은 고향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재외 도민들에게 보답하고 그들을 제주인으로 예우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현재 제주넷 및 도민회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5년 9월 말(2465명)까지 총 11만 7234명에게 발급하였다(<표 8-11>).

<표 8-11> 재외도민증 발급 현황¹³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21,617	12,824	10,290	8,686	7,969	6,858	7,033
동기 대비		59.3	74.7	84.4	91.7	86.0	102.6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8,277	6,383	4,223	3,495	5,393	6,044	5,677
동기 대비	117.6	77.1	66.1	82.7	154.3	112.0	93.9

차세대 한국어 강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대학교는 2013년부터 재일제주인 차세대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는 재일제주인 1세들이 사라지고 제주에 대한 후세대들의 이해와 정체성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후세대의

13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외교과(2025.09) 자료 제공.

모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선조들의 고향 사랑 정신을 이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운영된 한국어 강좌(역사 문화 체험)에는 도쿄, 오사카, 센다이 등에서 재일제주인 자녀인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간토 26명, 간사이 35명, 센다이 9명, 백두학원(白頭學院) 22명, 건국고(建國高) 23명, 기타(도외, 해외 등) 12명 등 127명이 참가했으며, 재일제주인 3·4세대가 선조의 고향인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뿌리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표 8-12>).

2023년 실시된 강좌에는 일본 도쿄 9명, 오사카 1명, 건국고 13명, 기타 5명 등 28명이 참여했다. 강좌는 수준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한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발음 등) 능력 배양을 위한 언어 기술별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승마와 해양 스포츠, 전통 음식, 감물들이기 등 각종 언어 수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생활 문화를 접하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표 8-12> 차세대 한국어 강좌(중고등학생) 입교 현황¹⁴

(단위 : 명)

지역 연도	간토 [関東]	간사이 [関西]	센다이 [仙台]	백두학원	건국고	기타	합계
2013	4	15	3			1	23
2014	4	11				2	17
2015	2	7				1	10
2016	2	1	4	11			18

14 2020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 2018년과 2022년, 2024년은 신청 저조로 운영을 취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2018.08)과 평화외교과(2025.09) 자료 제공.

2017	2		2	11			15
2019	3				10	3	16
2023	9	1			13	5	28
합계	26	35	9	22	23	12	127



제일제주인 차세대 한국어 강좌 입교식 및 수료식(2017년 7월·8월)

하게 향토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과 제주대학교는 1978년부터 ‘재외도민(대학생반 및 임원반) 하계 향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¹⁵ 향토학교는 재외도민 대학생 자녀들이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역사를 배우며, 조상의 숨결과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 발전한 모습을 통해 재외제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고자 해마다 여름철에 개설해 운영한다.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재외도민증을 지급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한다.

15 향토학교 입원반은 197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746명, 일본 114명, 미국 등 120명 등으로 총 1027명(21회)이 참여하였다.

그동안 하계 향토학교 대학생반은 1978년부터 재일제주인 자녀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운영하다가 1997년부터 국내외 전 지역으로 확대해 올해까지 35회 운영하여 173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25년 현재까지 운영된 향토학교에는 미주 지역과 일본을 비롯해 서울, 부산 등 국내외 15개 지역에서 재외도민 자녀 대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국내 912명, 일본 689명, 미국 등 138명이 수료했다(<표 8-13>). 2025년 하계 향토학교 프로그램은 제주 역사·문화 특강을 비롯하여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자연문화 유산 탐방, 전통문화 체험, 지질 트레일, 돌담 체험, 재래시장 탐방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표 8-13> 향토학교(대학생반) 수료 현황¹⁶

(단위 : 명)

연도별	국내	일본	미국 등	연도별	국내	일본	미국 등
1978		30		2005	45	8	6
1979		51		2006	36	10	5
1981		45		2007	33	4	9
1983		39		2008	34	9	8
1985		42		2009	34	6	8
1987		46		2010	34	8	5
1989		46		2011	45	6	1
1991		44		2012	41	6	2
1993		54		2013	28	11	4
1995		33		2014	30	4	4
1997	48	29		2015	35	2	9

16 앞의 주 14)와 동일.

1998	43	21		2016	35	4	7
1999	46	21	6	2017	30	2	5
2000	48	21	7	2018	24	5	4
2001	47	13	8	2019	23	3	8
2002	39	18	12	2023	13	4	2
2003	39	18	8	2024	12	2	2
2004	47	21	4	2025	23	3	4



재외 도민 하계 향토학교 환영식 및 입교식(2018년 7월)

제주애향묘지에 대한 인식과 향후 과제

제주애향묘지의 현실과 과제

제주도는 재일동포, 특히 재일(在日)제주인들에게 보답하고자 고향 땅으로 귀환을 원하는 사망자를 위해 1992년 4월 제주애향묘지(濟州愛鄉墓地)를 착공하였다. 그리고 1992년 6월에 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제주시 한라산 북녘 자리(노형동 산18 일대) 약 5만 9000m²에 모두 3,500기를 매장할 수 있는 제주애향묘지를 조성한 후

같은 해 10월 7일에 준공하였다. ¹⁷

하지만 재외제주인 방문 및 귀향 사업(65세 이상 재일제주인 고향 방문 사업,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 애향묘지 조성 사업 등)의 하나로 추진된 제주애향묘지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제주시 자료에 따르면, 애향묘지 이용 실적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51기(평장 묘역 45기, 봉안 묘역 6기), 2018년 1기(평장 묘역 1기)로 전체 수용 가능 묘지 1,058기(평장 묘역 740기, 평분 묘역 149기, 봉안 묘역 169기)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일제주인 1세대 봉안당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한라산 관음사 내 영락원에 90기(재일제주인 1세대 2명,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 88명)가 안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⁸

제주시는 애향묘지 이용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관련 조례(1998년 이후 추진)를 개정해 2003년부터 이북5도민 출신 제주도 내 거주자(조성 기수 340기, 매장 기수 87기, 매장 가능 기수 253기) 대해서도 매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일본 오사카 중재자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제주도 출신과 교류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만일 제주애향묘지에 부모가 안장되어 있다면 제주도를 마음의 고향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끈(연결 고리)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주애향묘지는 고향을

17 제주연구원(2021), 『제주애향묘지 활성화 방안 연구』, 25-26쪽.

18 제주연구원(2021), 위의 자료, 33-36쪽.

떠나 일본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제주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둘째, 지금까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팜플렛 등을 제작하는 등 제주애향묘지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외(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남미 등)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회, 향우회 회원들에게 제주애향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인들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의 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를 주축으로 마을 친목회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셋째, 거류민단 단체장의 확인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인을 중심으로 신청, 서류, 의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홍보와 행정 절차를 담당할 창구는 더욱 절실하다. 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회원 중 이에 대해 관심을 지닌 사람이 적어, 현지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사찰에서 보관 중인 유골이나 구천에 떠도는 영혼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여전히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이 있다. 또한 강제 동원되었던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골이 존재하고, 강제 동원 관련 비석이 세워지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조국과 민족, 그리고 고향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제주도 출신들을 위해 사후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다섯째, 재일제주인 1세와 2세,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주애향묘지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아직도 재일제주인 1세와 2세의 제주애향묘지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재일제주인 집거 지역인 오사카와 도쿄, 센다이 등의 제주도 출신들을 대상으로 제주애향묘지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 합리적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애향묘지 표지석과 납골 묘지

재일제주인의 납골 묘지 현실

1945년 전후로 일본에 이주한 재일제주인 1세와 2세들이 고령화로 타계(사망)하는 시기에 이르고 있다. 그런 재일제주인들이 납골 묘지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¹⁹

하나는 기존에 가족묘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그곳(터)에 모시는 경우가 있지만, 신규로 묘를 조성할 시 관련 비용(토지 구입 비용,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립 묘지(비석 포함)의 경우는 비용이 200만 엔 이상 소요되고, 공립(공설) 묘지의 경우에도 최하 150만 엔 이상은 있어야 새로운 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재일제주인 1세 유족들은 경제적 이유로 새로운 묘를 조성할 수

19 삼존사(三尊寺) 주지스님 고태수(高泰洙) 2021년 5월 인터뷰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외에도 저렴한 비용(3만 엔)으로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사찰이 있다. 예를 들면, 오사카(大阪) 소재 천왕사(天王寺), 일심사(一心寺) 등에 유골을 1년 동안 맡겨(보관) 두었다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일심사의 경우 그 유골을 모두 모아 두었다가 10년에 한 차례 시멘트와 합쳐(섞어) 불상을 만든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유골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과 함께 죽어서도 불상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족들은 유골을 안치한 절에 성묘하는 기분으로 간다고 했다. 절은 성묘 철(시기)이 되면 유골을 참배하는 사람들로 빨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빈다고 한다.

몇몇 재일교포는 “내가 죽거든 돈 들이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돈을 많이 들여서 묘를 만들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유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로 사망한 조부모를 안장한 곳에 나를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후 고향에 있는 친척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이미 조상을 모시기 위해 묘지 관련(토지 등) 비용 등을 지불했음에도 별초 등 사후 관리 문제가 발생해 친지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친척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등 친인척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한 후에 종친 가족 묘지에 모시려 했는데 관리비, 정비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래서 죽으면 고향의 하르방 묘지에 안 간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친족 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양지공원에 납골하는 사람도 있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족 묘지에 가기 싫어하면서도 제주도에는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결국, 재일제주인 1세들은

경제적 이유와 친인척과의 갈등 등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친척 관계나 경비 문제 등으로 가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뼈로 만든 불상(骨佛)의 절, 일심사(一心寺)²⁰

20 삼존사(三尊寺) 주지스님 고태수(高泰洙) 2025년 10월 사진 제공

| 부록 1 |

재일제주인 관련 연표

연도	내용
1903	제주해녀의 일본 출가(東京 三宅島)
1905	관부연락선(関釜連絡船) 취항(釜山↔下關)
1907	제주도 어부 어로견습 실시
1910	한일병합조약 체결,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실시
1913	제주도 토지조사사업(1913~1915년) 실시
1914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발발 오사카방직(大阪紡績) 제주도 직공모집
1919	2·8 독립선언, 3·1 독립운동
1920	산미증산계획(1920~1934년) 실시
1922	제판항로(濟阪航路) 취항(濟州島↔大阪), 자유도항제도 실시
1923	제주도와 오사카 간 정기항로(君が代丸) 개설, 관동(關東)대지진 발생
1927	제주공제회(濟州共濟會) 조직, 재동경고내리소년공창회 결성
1930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 설립 재동경고내리소년공창회→재동경고내리청년회 개칭
1934	일본 도항억제정책 실시
1938	국가총동원법 공포
1939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발발, 국민징용령 공포
1941	태평양전쟁 발발
1942	조선인 징병제도 도입
1945	해방,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결성
1946	신조선건설동맹(전동) 결성,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 결성

1947	외국인등록령 공포. 실시
1948	제주4·3 발발, 한신교육(阪神教育) 투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재일본조선거류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개칭
1949	재일본고내리친목회 창립
1950	한국전쟁 발발, 나가사키현(長崎県) 오무라(大村)수용소 개설
1951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결성, 출입국관리령 제정·공포
195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외국인등록법 시행
1955	지문날인제도 실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1959	복승선 니가타(新潟)항 출항
1961	제주개발협회(도교) 창립, 재일제주경제인협회(오사카) 창립
1962	제주향토방문단 내도
1963	재일본제주도민회 창립, 감귤묘목 기증
1965	한일기본조약 조인, 재일제주도친목회(大阪濟民會) 발족
1966	재일본제주도부인회 발족
1967	재일제주청년회 발족
1970	재일본제주도부인친목회 발족
1975	재일센다이제우회 창립
1976	대판제민회→대판제주친목회 개칭, 재일본제주도새마을부녀회 발족
1977	대판제주친목회→재일본대판제주도친목회 개칭
1978	하계 향토학교 개교
1982	일본정부비준(1979년) 난민조약 발효, 국민연금법 국적조항 철폐 특별영주제도 실시
1986	국민건강보건법 국적조항 폐지
1989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
1992	제주개발협회→재일본제주도민회 개칭
1993	개정 외국인등록법 시행, 특별영주자 지문날인제도 폐지

1994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창립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개칭
1996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개칭
2005	재일본제주도민협회→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개칭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개관
2006	재일센다이제우회→재일센다이제주특별자치도민회 개칭
201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제주도민증 발급
2011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설립
2017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세계제주인센터 명칭 변경
2023	오사카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 개관
2024	(사)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 설립

자료 : 각종 자료에서 조사 작성

| 부록 2 |

고향 발전에 공헌한 인물

제주시 서부 지역

한림읍 고원일(高元一)

고원일은 1918년 고산리 출신으로 10대의 젊은 시절에 청운의 꿈을 안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갔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전기 회사를 세우고 기업가로 성공하였다.

남다른 향토애를 지닌 그는 1960년 고산초 건축을 시작으로 1961년 고산중 신축 기금(59만 7000원) 조성과 목욕탕 시설, 관덕정 주변 정화를 위한 분수대 시설비, 1963년 제주도청에 가로수용 벚나무 묘목(510그루)을 비롯하여 1973년 새마을 사업 기금(50만 원), 1974년 삼성혈 급수대 설치(50만 원), 1976년 삼성혈 주차장 부지 매입비(100만 원), 1980년 추자면사무소 비품(100만 원) 등을 마을 발전을 위해 희사하였다. 이 외에도 전 재산을 고산중에 기부하는 등 제주 교육을 위해 물심양면 헌신하면서 단순히 학교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졸업생들을 일본의 전기 회사에 초청해 연수를 지원하는 등 학생 진로까지 세심하게 돌보았다.

한림읍 강순찬(姜順贊)

강순찬은 1920년 귀덕리에서 태어나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열정과 노력으로 실업계에 투신하여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1946년 평화[平和](주)와 평화고무공업[平和고무工業](주), 1960년대 평화산업[平和産業](주)과 평화관광[平和觀光](주) 등을 연이어 설립하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1957년 귀덕초 체육 시설(미끄럼틀)을 시작으로 1963년 학교 비품(현미경),

1964년 상수도 시설(170만 원), 1967년 한림여중 교사 신축, 1969년 신흥리 전기 가설(200만 원), 1981년 진입로 포장 및 새마을 사업 기금(2020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2000만 원), 1996년 귀덕3리 마을 운영비(500만 원) 등을 희사하였다.

한림읍 김동규(金東圭)

1920년 한림리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에 난관을 극복하며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간 김동규는 도쿄에서 칠전팔기로 대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1954년부터 거액의 정재(淨財)를 희사하여 교지 확장 및 교실 증축에 숨은 공덕을 베풀었다. 재릉초 시설비(200만 원)를 시작으로 1962년 한림공고 부지($2,200\text{m}^2$), 1963년 한림중·고 부지, 1966년 한림공고 부지($2,205\text{m}^2$), 1968년 한림공고 교실(135m^2)의 건물과 부지,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리고 1973년 한림여중 타자기 및 장학금, 1974년 교육위원회에 장학금, 1980년 한림공고 장학기금, 1982년 한림공고 장학금(2000만 원), 1984년 제주도체육회에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100만 원), 1989년 한림공고 장학금(200만 원) 등을 희사하여 육영사업과 체육 진흥에 힘을 기울였다.

애월읍 백정혁(白丁赫)

백정혁은 1919년 신엄리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거류민단을 조직하여 재일교포 권의 옹호와 국가관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1970년 귀일중 비품(벽시계) 기증을 시작으로 1973년 신엄중 비품(카세트 라디오 등), 1980년 신엄리 새마을 회관 건립 기금(100만 원), 1986년 신엄중 교기,

1997년 교육 시설비(100만 원), 1999년 다세대주택 건립 사업 기금(500만 원) 등을 희사하였다. 특히 신엄중 설립 시 일본 전 지역 총 대표를 맡아 기여하였다. 이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책에 따라 본교가 폐교 위기에 이르자 중학교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거액을 쾌척하는 등 백년대계를 위한 후진 양성에 큰 업적을 남겼다.

오라동 김병종(金炳鐘)

김병종은 1937년 제주시 오라동에서 태어나 1957년 20세 때 밀항하여 일본 땅을 밟았다. 대학을 졸업 후 오사카홍은(大阪興銀)에 입사하여 간사이홍은(関西興銀) 상임이사, 고베상은(神戸商銀) 부이사장, 대홍저당증권(주) 사장 등으로 승진을 거듭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은퇴 이후에는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였고, 관서제주도민협회 고문으로서 재일제주인의 친목과 제주도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는 1971년 오라초에 비품(트로피) 기증을 시작으로 2000년 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 203만여 원, 2002년 전국체전 격려금 200만 원, 2007년 제주대학교에 재일본제주인센터 건립 기금 3억 원을 희사했다. 이외에도 4·3유족회 및 연구소에 수년 동안 자금 면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에 기부하였다.

이호동 김창휘(金昶輝)

김창휘는 1929년 제주시 이호동에서 출생하여 13세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사회에서 구두 공장, 비누 판매업, 식료품 사업, 대규모 찻집, 수입상, 레저센터 등을 경영했던 노하우로 김영상사[金榮商事](주)를 설립하여 탁월한 능력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는 1962년 이호동사무소 비품(야구공, 사이렌) 기증을 시작으로 1964년

문화회관 건립, 1968년 전기 가설, 1970년 이호초등학교 도서, 1974년 새마을운동 기금, 1980년 오도(吾道)마을 공동 창고 건립비, 1987년 이호동사무소 신축, 2001년 제주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 등으로 각각 10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희사하였다. 마을 출신 재일교포를 선도하여 문화관 건립과 농업분소 유치, 전기 가설 추진을 이끄는 등 마을 발전에 공헌하였다.

제주시 동부 지역

구좌읍 황창주(黃昌柱)

황창주는 1926년 김녕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일본에서 독학으로 간사이(關西)대학을 졸업했다. (주)공영상사[共榮商事]를 만들어 술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근면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기업가이다.

그는 1979년 김녕초 비품(220만 원) 기증을 시작으로 1982년 장학금(100만 원), 1984년 김녕중 정문 시설 및 환경 정비(50만 원), 1985년 김녕중 시설 및 조경(100만 원), 1988년 김녕중 강당 건축(300만 원)과 급식소 건립 기금(300만 원), 1999년 김녕마을회관 건립 및 통합 성금(2000만 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격려금, 체육 기금, 제86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성금(2300만 원) 기부 등 고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구좌읍 고기수(高基秀)

고기수는 1934년 세화리에서 태어나서 1951년에 도일하였다. 1965년 전기공사회사를 창업하여 1979년에 고덴샤[高電社]를 분리 독립시켜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한 후 컴퓨터 분야에 종사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는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300만 원)을 시작으로 1991년 세화리 복지회관 건립(1000만 원), 1996년 구좌읍 컴퓨터 구입비(1000만 원), 1997년 제주대학교 장학기금(1000만 원), 1999년 세화초 발전 기금(1000만 원), 1999년 제주대학교 복지 기금(1000만 원), 2000년과 2004년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2100만여 원), 2001년 하도리 마을복지회관 건립 기금(2000만 원), 2002년 제주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 기금(2010만여 원) 등을 희사하였다.

조천읍 한장숙(韓長淑)

한장숙은 1932년 조천리에서 연대(煙臺) 동산의 정기를 타고 태어나 청운의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소년 시절부터 끈질긴 집념과 역행(力行)의 남아로서 타국에서 대신[大信](주)을 경영하여 기업가로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1967년과 1973년 조천초 비품(탁자, 피아노 등), 1984년 조천리 복지회관 건립(3000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1000만 원), 1987년 복지회관 운영(100만 원)과 조천리 하동 지역 발전(500만 원), 1988년 조천초 학교 시설(100만 원), 2009년 하동경로당 건축 부지(3000만 원) 등에 희사하였다. 특히 애향심을 발휘하여 하동 동민의 숙원 사업인 하동회관 건립지를 희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천읍 한재룡(韓在龍)

한재룡은 1921년 함덕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청운의 뜻을 품어 정든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만주와 일본 등에서 활동하다 서원관광[西原觀光](주)을 설립하여 자수성가한 기업가이다.

그는 1962년 함덕초 비품 기증을 시작으로 1972년 함덕리와 제주도청에 새마을 사업 성금, 1978년 함덕초 동상 건립비(89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100만 원), 1987년 함덕초교 급식소 건축 및 교육 기자재(100만 원), 1988년 함덕리 장학재단 설립 기금(5000만 원), 1989년 함덕중 교육 발전 기금(100만 원), 1991년 함덕정보산업고 취타대 운영비(100만 원) 등을 회사했다. 1960년대 초 고향에 있는 함덕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품을 보내기 시작하여 교육 지원 활동을 꾸준히 했으며, 마을 수도와 전기 가설 및 함덕 복지회관 건립과 함덕장학회 설립 등 교육 문화 사업에 거액을 출연했다.

삼양동 장윤종(張潤鍾)

장윤종은 1921년 제주시 삼양동에서 태어나 무역선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18세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물건을 사서 다른 곳에서 파는 형태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도요상사[東洋商事](주), 나가오카상사[長岡商事](주)를 창업하여 음식점으로 확장하는 등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1962년 삼양초 도서 기증을 시작으로, 1963년 삼양초 비품, 1972년 마을 도로포장을 위한 새마을 기금(80만 원), 마을 회관 토지 매입 및 건립 기금, 1976년 삼양동사무소 증축비 등 1980년대까지 거의 매해 기증하였다. 특히 198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200만 원), 1989년 삼양동 복지회관 건립, 2001년과 다음 해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3억 원)을 회사하였다. 당시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고향 마을 발전을 위한 성금을 보내는 것이었다.

서귀포시 서부 지역

대정읍 임수근(林秀根)

임수근은 상모리에서 태어나 오사카로 이주하여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고향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와 지역사회에 많은 기증을 하였다.

그는 1965년 상모리 상수도 시설, 1967~68년 피아노 기증, 1969년 상모리 학교 건립(100만 원), 1973년 방송 시설, 1979년 대정초 교육 시설(앰프, 등사기, 스피커 등), 1980년 대정고 교육 시설(500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1000만 원) 등을 회사했다. 그 밖에 간이 강당용 특별실 건립을 비롯하여 모슬포 수협, 제주도청, 제주대학교, 교육위원회, 경찰국,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언론사, 남제주군청 등 각 기관에 대형 벽시계(85만 원) 1개씩을 기증했다. 또 1971년 대정여고 체육관(50평) 건립(200만 원) 기념으로 임수근 기념관을 조성하면서 앰프 등 방송 기자재를 들여놓고 교실마다 스피커를 갖추게 되었다.

대정읍 이정근(李鼎根)

이정근은 1910년 하모리에서 태어나 14세 때 청운의 뜻을 품고 일본으로 갔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성실과 근면으로 대방흥업[大邦興業](주)을 창업하여 굴지의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그는 1962년 하모리 사무소 건립을 시작으로 1964년 사무소 비품 및 대정읍 문화시설, 1964년 대정여고 부지(현금 70만 원, 토지 1만 1,400평), 1973년 하모리 새마을 사업 기금(165만 원), 1973년 대정농협 비품(한글 타자기, TV), 1982년 대정여고 운동장 확장(1000만 원, 토지 4,500평),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2000만 원), 1985년 대정여고 부지, 1994년 모슬포 노인회관 건립 및 시설(현금 7500만 원, 부지 132평) 등에 회사하였다. 이처럼 낙후된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상수도 전기 가설과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 노인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문화시설에 지원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했다.

서호동 오익종(吳益鐘)

오익종은 1937년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태어나 가난을 극복하려고 16세

때 혈혈단신으로 일본에 가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자수성가한 기업가이다. 50여 년 긴 세월 동안 일본에서 손꼽는 건축자재인 PVC 타일을 제작하는 신흥화성[伸興化成](주)을 창업하여 성공한 뒤 1994년 충남 흥성군에 합작회사인 (주)동신(東新)포리마를 설립했다.

그는 1990년 서호초 급식 시설 및 약기 제공(3500만 원), 2002년 서호초 체육관 부지 매입금(1억 5000만 원)과 '서호교 50년' 총동문회지 창간 비용(500만 원), 2008년 대륜2통 경로당 발전기금(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희사하여 모교와 마을 발전에 헌신했다. 이분의 도움으로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마음체육관과 함께 모교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공간인 한마음 생활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서귀포시 동부 지역

성산읍 강민선(康民善)

1921년 성산리에서 태어난 강민선은 일본으로 건너가 힘들게 생활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삼명[三明]과 (유)삼명회관[三明會館]를 설립하여 기업가로 성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

그는 1962년 성산초 시설(미끄럼틀, 아동 문고) 기증을 시작으로 1964년 성산수고 교육 자료, 수산초 교육 시설, 1972~73년 성산초 현장탑, 1981년 성산리 마을회관 건립(100만 원), 1982년 체육 진흥 기금,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500만 원), 1988년 성산초 자동 인쇄기 및 재단기 등의 교육용 비품(300만 원), 1995년 성산초 비품(300만 원)과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1000만 원), 2001년과 2003년 성산초 발전 기금(1100만 원) 등을 희사하였다. 196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어린이들을 위한 문고, 복사기 등의 교육 기자재를 꾸준히 기증해 주었다.

표선면 강공권(康公權)

강공권은 1920년 하천리에서 태어나서 19세에 혈혈단신으로 도일했다.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의지로 극복하여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제관 공장인 대영공업사[大榮工業社]를 경영한 자수성가 사업가이다.

그는 1972년 하천리에 전기를 가설해 마을에 전등불이 들어오도록 했으며, 1976~78년 하천초 장학금, 1977~78년 새마을 사업 기금, 1978년 하천리 새마을 회관 건립비(150만 원), 1981년 하천리 도로포장비(3500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3000만 원), 1985년과 1987년 서귀포시립도서관 건립 기금(2000만 원), 1987년 정의향교 의전당 건립비(2000만 원), 1988년 표선상고 비품, 1989년 하천초 비품 등을 기증했다. 학교 부입 매입, 시청각 설비, 장학 기금 마련으로 학교 육영사업에 공헌하고 수시로 고향을 방문해 마을 사람들과 향수를 달랬으며, 방문할 때마다 고향 마을에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효돈동 오승명(吳承明)

오승명은 1922년 서귀포시 상효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생활하다 한신흥산[阪神興産](주)을 창업하여 사업 운이 좋아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는 1962년 상효리에 비품(휴대용 확성기)을 시작으로 1975년 하효리 도로포장(100만 원), 1968년 상효리 전기 가설 후원금(30만 원), 1972년 새마을 사업 성금(38만 원) 등 마을 회관 신축에 거액의 성금을 희사했다. 1980년 상효1리 도로포장(200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1500만 원), 1986년 서귀포시 문예회관 건립 기금(300만 원), 1999년 상효리 마을 기금(300만 원), 2004년 마을 회관 건립 기념 벚나무, 2011년 노인 여가용으로 장구와 북, 팽과리 등을 기증했다.

효돈동 양희진(梁熙晋)

양희진은 1918년 남원읍 하례리 출신으로 1926년 민족적 궁지와 개척의 꿈을 안고 이국땅 일본으로 건너갔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학문을 닦고 기와 턱을 쌓아 제일관광[第一觀光](주)과 경판관광[京阪觀光](주)을 창업하여 기업가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1963년 하례리 사무소 비품(탑종, 운동 기구, 앰프) 기증을 시작으로 1964년 하례초 체육 시설(회전 그네, 미끄럼틀), 1971년 하례초 시설(교구 시설), 1975년 하례2리 전기 가설비(172만 원),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2000만 원), 1985년 하례초 교육 사업(50만 원), 1990년 하례초 과학관 신축 및 시설(1억 1000만 원), 1999년 하례초 살리기 성금(300만 원) 등을 회사했다. 특히 1966년 어둠을 밝히는 전기사업에 거액을 지원했고, 1995년 주민의 복지를 위한 하례1리 복지회관 건립(4000만 원)으로 마을 숙원을 해결해 주었다.

| 참고문헌 |

| 한글 문헌

- 姜龍三·李京洙編(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 강충남(1994), 「일본 속의 큰 제주인」, 『제주도』 96, 제주도.
- 진입동마을회(2008), 『健入洞誌』.
-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22, 韓國日本近代學會.
- (2010a),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27, 韓國日本近代學會.
- (2010b),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東泉 金坪珍 연구」, 『日本近代學研究』 30, 韓國日本近代學會.
- (2010c),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曉泉 康忠男 연구」, 『제주발전연구』 14, 제주발전연구원.
- (2011),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古堂 安在祐 연구」, 『日本近代學研究』 34, 韓國日本近代學會.
- (2013),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14), 「일본의 고무공업과 재일제주인 기업가」,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 (2015),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日本近代學研究』 50, 韓國日本近代學會.
- (2017),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 교육·문화 발전에 대한 고찰」, 『日本近代

- 學研究』57, 韓國日本近代學會.
- (2018),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고찰」, 『日本文化研究』66, 동아시아일본학회.
- (2023), 「재일제주인의 재일(在日)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 『濟州島研究』60, 濟州學會.
-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2016), 『2016 서귀포시 문예연감』.
- 康龜範(1987), 『望鄉의 旅路-내가 걸어온 78년』, 母音社.
- 古堂 安在祐(1976), 『광복(光復)의 시대(時代)에 살면서』, 世原文化社.
-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2021), 『대학나무 감귤』.
- 梨湖洞誌編纂委員會(2007), 『梨湖洞誌』.
- 法還마을회(2000), 『法還鄉土誌』.
- 부만근(2012), 『제주지역개발사』, 제주발전연구원.
-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7), 『둔지오름 漢東里誌』.
- 五賢高等學校總同窓會(2002), 『五賢高50年史(II)(1951~2001)』.
- 연평중학교(1999), 『演坪中便覽-開校 45周年 記念』.
- 이문웅(2005), 「재일(在日)제주인 사회에서의 생활문화에 나타난 적응전략 : 광산김씨 친족회를 중심으로」,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 이민호(2022),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다 재일동포의 모국사랑』, 統一日報.
- 임영언(2021), 『재일코리안 기업의 성장과 모국 기여활동』, 선인.
- 長嶋俊介(2008), 「世界遺産登録に向けての文化の掘り起こしと交流」,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海女)의 무형유산』, 제3회 한·일 해녀(海女)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재단법인 제주장학재단(2022), 『장학반세기(1969-2022)』.

재외동포재단(2009), 『하와이 동포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인하대학교 출판부.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정진성·김백영·정호석(2020), 『재일상공인과 한국 경제 '모국공헌'의 시대』, 한울.

정진희(2012), 『재일본대한체육회 60년사(1953~2012)』.

濟民日報社(2004), 『濟州人名辭典(在日同胞篇)』.

제주MBC편성제작팀·제주특별자치도(2012), 『재일제주인 애향 100년-나의 살던 고향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2001), 『제주감귤농협 40년사』, 서울문화사.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 『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

—————(2015), 『마을 사람들이 세운 재일제주인 비(碑)』.

제주도(1986), 『寫眞으로 본 道政 40年 제주도: 別冊 附錄』, 통권 제80호.

—————(2001), 『愛鄉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2006), 『濟州道誌 第4卷』.

제주도교육청(1979), 『濟州教育史』.

—————(1999), 『濟州教育史』.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제주상공회의소(2015), 『제주상의 80년사』.

제주시우당도서관(2014), 『우당도서관 30년사』.

제주여자고등학교(2001), 『제주여고 50년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제주연구원(2021), 『제주애향묘지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2016), 『제주농촌진흥 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2024),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활동 기초 조사』.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예술60년사 3』.

_____ (2019), 『제주특별자치도지 제3권』.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6), 『재일제주인 공덕비 1-제주시 동지역,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_____ (2017), 『재일제주인 공덕비 2-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_____ (2018), 『재일제주인 공덕비 3-서귀포시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21), 『재일제주인 기증물 실태조사 (제주시 서부지역)』.

_____ (2022), 『재일제주인 기증물 실태조사 (제주시 동부지역)』.

_____ (2023), 『재일제주인 기증물 실태조사 (서귀포시 동부지역)』.

_____ (2024), 『재일제주인 기증물 실태조사 (서귀포시 서부지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202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70년사』.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편(2006), 『제주태권도 50년사』.

濟州道(1983·1991·1999), 『愛鄉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鄉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 濟州島廳(1937), 『濟州島勢要覽』.
- (1939), 『濟州島勢要覽』.
- 濟州道體育會(1991), 『濟州道體育史』.
- (2001), 『濟州道體育會 五十年史』.
- 濟州商工會議所(1985), 『寫真으로 본 濟州商議六十年』.
- (1995), 「일본 사회에 民族의 신용을 뿌리내린 후지전선 康忠男 사장」, 『濟州商工』.
- 진관훈(2004),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7(1), 한국학중앙연구원.
- (2004), 『근대제주의 변동』, 각.
- 최민경(2024), 『재일한인의 해역인문학』, 해피북미디어.
- 학교법인 남녕학원 남녕고등학교(2006), 『南寧二十年史(1986~2006)』.
-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자중학교 외(2006), 『건학 60년』.
- 한라일보사(2001), 『濟州 3000人選』.
- (2004), 『濟州觀光半世紀』.
- 洪性仁(2015), 『洪性仁 나의 투쟁 60년 재일 韓國民團 護衛武士, 태극 깃발을 일본 하늘에』, 디자인 오투출판.

| 일본어 문헌

- 関西濟州道民協會(2004), 『関濟會10年の歩み』.
- 関西濟州特別自治道民協會青年会(2012), 『濟州大学図書寄贈 40周年記念誌』.
- 金府煥編(1977), 『在日韓国人社會小史(大阪編)』, 共同新聞社.
- 大阪韓国商工会議所(1996), 『大阪韓国商工会議所40年史』.

大阪韓国人会館建設委員会(1987),『大阪20万同胞の“民族殿堂”大阪韓国人会館建設記念誌』.

杉原 達(1998),『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徐龍達(1973),「同胞經濟人の社會的責任」,『濟經』2,在日濟州經濟人協會.

小熊英二・姜尚中編(2008),『在日一世の記憶』,集英社新書.

舛田一二(1976),『舛田一二地理學論文集』,弘詢社.

永野慎一郎編(2010),『韓国の經濟發展と在日韓国企業人の役割』,岩波書店.

在日本関東濟州道民協會(2011),『周年記念号 漢拏山』,第9号.

在日本大阪濟州道民會(1993),『日本の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在日本大韓民國民團(2017),『民團70年史』.

在日本大韓民國民團大阪府地方本部(2006),『大阪韓国人百年史-民團大阪60年の歩み』.

—————(2006),『大韓民國國民勳章受章者』.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編(1997),『図表でみる韓國民團50年の歩み』,五月書房.

在日本濟州開發協會(1991),『愛鄉無限-在日本濟州開發協會 30年史』.

在日仙台濟友會(1999),『在日仙台濟友會 會員名簿』.

在日濟州經濟人協會(1982),『濟經』.

—————(1992),『創立30周年記念誌 濟經』,第5号.

在日濟州道親睦會(1969),『會員名簿』.

濟州青年會(1980),『濟青春秋』24.

泉 靖一(1966),『濟州島』,東京大学出版.

鶴岡正夫(1981),『在日韓国人の百年—私の生活信条』,育英出版社.

韓日問題研究所編(1987),『在日韓国人三百六十人集—在日同胞現代小史』.

黃昌柱(2015),『マイウェイ 共に栄える』,神奈川新聞社.

| 기타 자료

《뉴스1》 2024년 4월 24일

《연합뉴스》 2023년 10월 11일

《연합뉴스》 2023년 10월 11일

《제주일보》 2024년 1월 29일

《한라일보》 2011년 10월 11일

《한라일보》 2025년 5월 28일

《동아일보》 1927년 1월 19일

《매일신보》 1927년 1월 18일).

<http://blog.daum.net>

<http://overseas.mofa.go.kr>

<http://www.jeju.go.kr>

<https://jpn-tokyo.mofa.go.kr>

<https://www.jnilbo.com>

<culture.seogwipo.go.kr/gidang>

<culture.seogwipo.go.kr/kimjeong>

<dreamway.co.kr>

<encykorea.aks.ac.kr>

<namu.wiki>

<pro.makeit27.com>

<school.jje.go.kr/jeju-g>

<school.jje.go.kr/namnyeong>

www.channeljeju.com

www.dnbreport.co.kr

www.ihalla.com

www.jejuinnews.co.kr

www.jemin.com

www.mindan.org

www.oka.go.kr

www.sanghun.go.kr

zainichijeju.jejunu.ac.kr

제주대학교 도서 기증(2007~2012)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2007~2012)

제주상공회의소 공적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외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한원리사무소 희사자 문서 기록부

| 인터뷰 및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

강덕립, 강승일, 고팽환, 고구봉, 고혜영, 김민호, 김정화, 문원진, 박한철, 이창진, 정재훈, 최창해, 고태수(高泰洙), 김수길(金秀吉), 김승박(金勝博), 김일용(金一龍), 송고사(宋高士), 현행복(玄行福), 흥성인(洪性仁), 사쇼하쿠도(佐粧博道)

| 찾아보기 |

ㄱ

- 간사이코진 196, 238
감귤 농업 진흥 143
감귤묘목 234
감귤 재배 144, 148, 149, 150, 200
강구범 67, 84, 126, 167, 194
강제동원 229
강충남 69, 120, 126, 192, 196, 200
경제적 성취 21
고운종 141
고향 방문 사업 221, 228
고향애 4, 46, 47, 69, 266
공공사업 22, 23
공덕비 8, 31, 35, 60, 213, 214, 216, 218, 219, 221, 249
과학관 106, 122, 123, 245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197, 200, 235
교육 발전 9, 24, 25, 103, 105, 106, 108, 110, 118, 125, 194, 195, 241
교육 사업 22, 23, 69, 111, 197, 245
교육·연구 지원 125
교포창고 82

- 급식실 54, 122, 124
기념비 8, 60, 197, 213, 214, 217, 218, 219
기당미술관 24, 26, 67, 163, 166, 167, 168
기당복지회 67, 77
기미가요마루 6, 134
기증위원회 53, 55, 115, 125
기증자 문서 기록 93, 98, 99
김봉학 156, 158, 167, 179
김용해 194
김유비장학회 119, 122
김정문화회관 163, 166, 168, 169
김창인 61, 126, 200, 204
김치부 63, 178, 196
김평진 66, 110, 159, 200
김홍주 159
김화남 111

ㄴ

- 남녕고등학교 24, 111, 250
남녕학원 111, 250
네트워크 47, 53, 56, 73, 164, 166, 175, 202, 203, 222, 223,

229, 232, 246

노동시장 132, 138

ㄷ

대영장학회 121

도서관 20, 26, 27, 35, 52, 54, 65, 66, 69, 76, 77, 106, 122, 123, 170, 172, 173, 217, 219, 220, 244, 249

도서 기증 77, 169, 170, 172, 173, 174, 241, 253

도일 64, 119, 131, 132, 136, 239

도정공장 83, 84

도제 19, 73, 74

도항 61, 131, 132, 133, 233

동복리 우물 87

동상 21, 35, 36, 37, 54, 60, 112, 113, 214, 241

동대 21, 24, 31, 78, 89, 90

ㅁ

마을 공동 창고 81, 82, 239

만대장학회 122

만장장학회 122

문화시설 20, 77, 79, 80, 164, 166, 167, 242, 243

문화예술 발전 165

미야기현 지방분부 188

미야케지마 134

미카와시마 6

민족 정체성 195

민족학교 193

밀항 63, 238

ㅂ

방림방적 138

백동홍 111

백두학원 191, 194, 199, 221, 224

백이남 65, 111

백정혁 109, 237

백창호 119, 122, 155, 159, 204

법환마을 공동묘지 85

변형 28, 29, 30, 31, 32, 34, 35

부대시설 지원 122

ㅅ

사진기록 28, 29, 30, 32, 34, 35

사카모토방적 186

사회적 결합 73

사회적 네트워크 73, 164, 175, 202, 203, 246

사회적 위신 21

삼려장학회 121, 180

새마을 사업 20, 21, 22, 23, 28, 57,

- 61, 65, 66, 67, 69, 74, 76,
77, 79, 80, 92, 215, 219,
220, 236, 237, 241, 242, 244
새마을 자매결연 91, 92, 93
새마을 정미소 84
생활 시설 80, 81
서갑호 186
서귀포관광호텔 159
서울올림픽대회 23, 175, 192, 209
서훈 60, 209, 210
선일홍업 152, 153
선한 영향력 4, 6, 8, 60, 266
소설 28, 29, 30, 31, 32, 34, 35, 45
송금 131, 132, 133, 134, 136
송덕비 60, 213, 214, 218, 219
시계탑 31, 35, 36, 54, 77
신한은행 138, 157
-
-
- 아라카와 188, 189
악기 기증 35, 55, 114, 115
안재호 68, 92, 138, 141, 192, 195,
196, 201
애향무한 9, 17, 19
애향심 7, 8, 10, 21, 42, 43, 46, 47,
80, 84, 92, 132, 142, 159,
164, 182, 213, 221, 223,
226, 240
- 애향의 단성 82
애향의 보람 9, 207, 209
연정정구장 163, 178, 179
연주현씨친족회 101
영사관 185, 186, 187, 188, 198,
199
오도 88, 239, 244
오사카방적 233
오사카쇼긴 238
오사카 친목회 217
용호장학회 122
우당도서관 26, 77, 170, 172, 249
운산장학회 122, 204
유기업 66
유기화학공업 68, 138, 140, 192
음악 용품 57, 106, 113, 114, 115
이근식 64, 120, 126, 195
이두후장학회 121
이순천 67, 121, 124
이시향 61, 62, 120, 122, 126, 190,
192, 195, 196, 213
이월옥 62, 120, 122, 126, 159
이일옥 63
이일옥 복지재단 63
이쿠노 6, 188, 190, 202, 205
이쿠노미나미 188, 190
이희진 193
인적 네트워크 166, 175, 223

일본유기화학공업 68, 140
일본 이주 6, 106
일심사 231, 232
일제강점기 6, 105, 186, 229

ㅈ

자궁심 10, 46, 47, 114, 164, 173, 181, 194, 209, 219, 221, 223, 226
자발적 기여 41, 42
장학금 4, 48, 56, 63, 70, 80, 106, 112, 113, 118, 119, 120, 121, 122, 126, 180, 195, 220, 237, 239, 244
장학지원 8
장흥원 137
재외도민증 222, 223, 224, 226
재외동포재단 204, 248
재일곽지리친목회 83
재일광산김씨친족회 202
재일교포 31, 35, 42, 81, 86, 109, 159, 168, 195, 220, 231, 237, 239
재일대판제법건친회 54
재일동포 73, 92, 108, 171, 176, 177, 178, 179, 192, 193, 204, 216, 228, 248, 249
재일본고내리친목회 202, 234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52, 196, 200, 201, 235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234, 235
재일본대한민국민단 57, 59, 191, 235
재일본대한체육회 192, 198, 199, 248
재일본제주개발협회 50, 51
재일본제주도민회 147, 152, 234, 235
재일본제주북초등학교총동창회 55
재일본한국조선인민주통일연맹 170, 171
재일사회 발전 8, 9, 183, 185, 198, 201, 203, 204
재일산지친목회 54
재일센다이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7, 235
재일일파리친목회 82
재일제주경제인협회 51, 125, 198, 200, 234
재일제주도민회 200, 201, 221
재일제주도친목회 125, 170, 200, 234
재일제주인 1세 231
재일제주인 2세 70
재일제주인 3세 4
재일제주인 기업가 248

- 제일제주인 사회 6, 7, 8, 9, 142, 144, 190, 197, 199, 200, 201, 202
- 제일제주청년회 125, 172, 173, 200, 234
- 제일제주청년회 문고 172
- 제일한국상공회의소 191, 192
- 제일한국인 기업가 138
- 제일한국인 사회 159, 176, 188, 190, 191, 193, 196, 202, 203, 211
- 제일한국인신용조합 195
- 전국소년체육대회 23, 24, 52, 62, 66, 163, 164, 175, 179, 180, 237, 240, 241
- 정기항로 개설 131
- 정체성 10, 195, 222, 224
- 제조업 7, 138, 140, 141, 152, 202
- 제주4·3 234
- 제주관광호텔 66, 159
- 제주대학교 도서관 52, 76, 172, 173
-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 24, 25, 125, 127, 235, 246, 248, 249, 265
- 제주도문화상 60, 211, 212
- 제주도체육회 20, 21, 23, 51, 52, 69, 76, 163, 175, 179, 237
- 제주도태권도회관 177
- 제주 문화 165
- 제주상공대상 60, 212, 213
- 제주신문사 64
- 제주애향묘지 228, 229, 230, 249
- 제주여자학원 66, 110, 250
- 제주월드컵경기장 23, 24, 62, 66, 70, 77, 175, 181, 182, 239
- 제주장학재단 118, 121, 248
- 제주주정공장 154, 155
- 제주컨벤션센터 160
- 제주컨트리클럽 119, 159
- 제주팔레스개발 62, 159
- 제주팔레스관광호텔 159
- 조규훈 187, 191, 194
- 종각대 34
- 종탑 33, 80
- 좌수반문화재단 122
- 주일대사관 185, 186, 187
- 중립장학회 122
- 지역사회 공헌 47, 175, 212
- 지연 네트워크 53
- 진황등대 89, 90
- ★**
-
- 차세대 한국어 강좌 224, 225
- 채산성 142
- 청봉장학재단 195
- 청운장학회 122

체육관 21, 24, 28, 35, 42, 67, 69, 106, 122, 124, 164, 175, 179, 216, 242, 243
체육 발전 9, 117, 161, 163, 174, 175, 176, 192, 243
체육 사업 22, 23
체육 시설 55, 77, 89, 116, 164, 175, 176, 177, 179, 237, 245
체육 용품 20, 34, 35, 106, 112, 113, 114, 116, 117, 175
체육 진흥 79, 80, 119, 175, 181, 237, 243
춘원장학회 121, 180
춘지동대 90
출가 노동자 133
출가 해녀 134, 135, 136
츠루하시 194

ㅋ

커뮤니티 229
코리아타운 205, 235

ㅌ

투자 활동 60, 138

ㅍ

핀크스 CC 159

ㅎ

하계 향토학교 225, 226, 227, 234
하천리 공동묘지 85
학교 교구 106, 112, 113, 114
학교 구조물 112, 113
학교 설립과 운영 108
학연 3, 53, 54, 56, 126, 201, 203, 249, 265, 266
학연 네트워크 203
한국전쟁 6, 105, 234
한원리 81, 93, 94, 95, 97, 98, 253
함덕장학회 122, 241
해녀 노동 134
향림사 216, 217
향우회 25, 46, 47, 48, 83, 106, 164, 229
현준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혈연 56, 201, 202, 203
혈연 네트워크 202
호텔업 66
후원회 25, 48, 53, 55, 56, 107, 108, 115, 179, 180, 186, 193, 220
훈장과 포장 209

고광명(高廣明)

오현고등학교 졸업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학사

타쿠쇼쿠(拓殖)대학 유학생별과 수료

와세다(朝稻田)대학 대학원 상학석사

도쿄케이자이(東京經濟)대학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연구교수(전)

(사)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 원장(현)

<전공 및 연구분야>

경영사회학, 기업가, 마이너리티(재일제주인)

<주요 저서 및 논문>

『재일디아스포라와 글로컬리즘2』(공저, 2023,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 보고사)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공저, 2014,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재일한국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공저, 2014,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20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공저, 2012, 제주대학교출판부)

『M & A 이후 경영과 조직통합- 인사·조직·전략적 접근-』(2011, 제주대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일본의 기업과 경영특성 연구』(2008, 제주대학교출판부)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공저, 2006, Art21)

『東アジア持続的成長の諸条件』(共編, 桜美林大学 産業研究所, 2002) 외 논문 다수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78

고향愛를 품은 재일(在日)제주인의 선한 영향력

2025년 10월 31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고광명

펴낸이 문경운

편집 고주영

디자인 고주영

펴낸곳 (사)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

등록 2025년 10월 16일 제2025-000080호

주소 (631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63(J·S빌딩 3층)

전화 064-727-0027

팩스 064-759-0027

E-mail kkm0630@jejunu.ac.kr

인쇄 명신씨앤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귤로 28

전화 064-721-7971

ISBN 979-11-995390-0-6 93090

-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의 출판비 일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고향과의 교류, 공동체 정신, 고향애라는 관점에서 재일제주인들의 따뜻함과 선한 영향력에 대해 제주인들이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오래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하게 되었다.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일본으로 간 제주인들은 힘든 삶 속에서도 고향 제주를 위해 심리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마을과 학교를 비롯하여 산업경제, 문화예술, 체육, 재일사회 등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고향과 고향 사람을 그리워하는 애듯한 마음에서 비롯한 따뜻한 기부와 후원은 고향을 위한 헌신의 표현으로 제주의 오늘을 만들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제주의 내일을 향한 숭고함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값 21000 원



93090

ISBN 979-11-995390-0-6